



7

1984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4. 7호

(루게 441)



## ◆◆◆◆◆◆◆◆◆◆ 차 례 ◆◆◆◆◆◆◆◆◆◆

수령님 우러러 드리는 노래.....	4
백두의 바람.....	5
당의 위업앞에.....	6
기다리는 마음속에 (외 1 편).....	7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뜯시다》.....	7
향도성.....	8
영원히 빛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9
력사의 피어린 교훈으로 자주의 진리를 밝혀준 기념비적명작.....	10
푸른 소나무.....	18
나를 위한 눈빛.....	20
동지에 대한 생각.....	21
기타를 들고 온 청년.....	23
추억 (외 1 편).....	34
아버지의 말.....	34
저 젖은 신발을 바라보며.....	35
알려지지 않은 진료소에서.....	36
파괴된 굴뚝앞에서.....	46
미소.....	47

기적소리 높은 역구내에 서니 .....	48
그해 봄 .....	49
건설장의 기발 .....	57
첫 기둥 .....	60
호수가의 서정 .....	69
무엇을 위한 삶이며 무엇을 위한 투쟁인가 .....	70
용접공, 그대 날리는 불꽃은... ..	73
세대의 자랑 .....	74
돌격대원, 그 이름속에 .....	76
《목화》대풍 .....	77
눈내리는 순천땅에서 .....	78
탄생 (외 1 편) .....	78
별들이 웃네 .....	79
김수범단편집 《무성하는 산림》 .....	80

# 수령님 우러러 드리는 노래

리 동 렬

티없는 우리의 마음처럼  
가없이 맑고푸른 7월의 하늘가  
해빛도 오늘은 더욱 눈부시고  
꽃향기도 오늘은 더욱 그윽합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이시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서른한뫼을 맞이하는 이 아침,  
온 나라 인민들은  
가장 깨끗한 충성의 마음으로  
수령님께 삼가 인사를 드리웁니다

천리방선의 일당백초병들과 함께  
불타는 락동강을 넘어온 전사들도  
1211 고지의 방위자들도  
축포 터져오르는 전승의 열병식광장  
자애론 손길 높이 흔들어주시는  
수령님 우러러 만세를 부르던  
그날의 감격에 목메입니다

항일의 불길만리  
눈보라를 헤쳐가시던 그나날  
주체전법으로  
강도일제를 타승하신 수령님

백전백승의 그 위대한 전법으로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시고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탁월한 전략과 전술로  
세계 전쟁사에 없는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였습니다

진정 그 얼마입니까  
《기술적우세》, 《수적우세》를 떠벌이는  
미제침략자들을 발밑에 굽어보시며  
사랑하는 전사들을 찾아 걷고 걸으신 길은  
전선과 후방의 포연서린 험한 길은  
전사들은 전사마다 영웅으로 키워주시고

초소는 초소마다 철벽으로 다져주시는  
그 영원불멸할 자욱자욱  
오늘도 끝없이 이어가시며  
힘을 주시고 용맹을 주시는  
한없이 은혜로운 사랑

그 사랑 노래부르며  
한세대에 두제국주의를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군대의 영광  
우리 인민의 행복 끝이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빛나는 승리의 한길 걸어온 우리  
폭풍이 휘몰아쳐오면 멈춰서오리까  
불바다가 막아서면 주저하오리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더욱 빛내여주시는  
그 신념, 그 투지 가슴마다 지니고  
영원히 충성의 한길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인민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  
그 성스런 위업을 하루 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는 억세게 싸워나아가겠습니다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기적과 혁신의 불길 높이  
《80년대속도》로 힘차게 달려나아가겠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이시여  
포화속에서도 진달래를 품에 안아 키우고  
백병전의 언덕우에서도  
《**김일성**장군님의 노래》 높이 부르던  
우리들의 불타는 충성의 한마음  
언제나 수령님을 우러러 축원합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 백두의 바람

박장화

두텁게 락엽이 내려썩인 웅달샘에도  
하얗게 피어난 이름모를 꽃송이에도  
항일의 성스러운 피가 고여있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더럽히지 않은  
깨끗한 냇물이 깃들어있는곳

아, 백두밀립!  
추억의 자옥 력력히 어러오는  
옛싸움길을 감회깊이 돌아보시던 수령님,  
차창을 여시며 말씀하시여라  
-백두의 바람이나 쏘입시다

순간  
차창으로 흘러드는  
송진내 풍기는 산바람  
하늘같은 그이 품에  
가득 안기는 백두의 산바람!-

달리던 차를 세우시고  
바람을 맞으시며 걸으시는 수령님  
한걸음 또 한걸음  
항일의 자옥우에  
위대한 자옥 덧새겨가시여라

그때라, 천리밖에서도  
한달음에 달려와 얼굴을 묻던  
못잇을 전사들의 숨결인양  
바람은  
그이의 옷자락에 매달리는데

조국진군작전을 익히시던 그날,  
김정숙어머님 열어놓으신 피창으로  
청신한 산바람이 흘러들던  
백두밀영의 그 아침을  
생각하고 계시는가

항일의 긴긴 세월  
숙영의 밤마다 가슴에 파고들던  
그 눈바람소리  
그 비바람소리  
듣고계시는가

걸음걸음  
생각 깊으신 자옥을 새기시며  
밀립속을 걸으시던 수령님  
뜻깊은 말씀을 하시여라  
-백두의 바람은 변함이 없소

아, 백두의 바람!  
언제나 변함없는 그 바람을 안으시고  
항일의 그 걸음으로  
쉽없이 걸어가시는 우리 수령님,  
그 자옥 따라 조국이 나아가거늘

세월을 이어  
백두산에서 끝없이 불어내리는  
혁명의 영원한 불바람이여,  
온 나라에 넘치는 조선의 숨결  
조선의 신념이여!

# 당의 위업앞에

오 선 학

내 정다운 길을  
무심히 걷다가도  
문득 그 생각  
내나이 지금 몇인가

눈내리는 깊은 밤  
아늑한 잠자리에 누워  
단꿈을 꾸다가도  
문득 깨어나 묻는 말  
내 올해 나이 얼마인가

해빛 밝은 창가에서  
명상에 잠겨 글을 쓰다가도  
문득 붓을 멈추고  
생각하는것  
내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있는가

덧없이 흘러간 세월앞에  
존엄있는 당의 위업앞에  
내 나이를 선포 말하기가  
왜 이다지도 어려운것인가  
왜 이렇게도 대답이 무거운것인가

지난날 받아온 사랑의 길보다  
바쳐야 할 보답의 길이 짧아  
스스로 놀라는 이 마음  
자책의 높은 맥박이여

흘러온 인생의 자욱을 두고  
아름다운 추억에 잠기는 분들은 모르리  
은혜로운 당앞에  
많은 빛을 지고사는 전사인 까닭에  
흘러가는 시간을 두고  
그토록 뉘우침이 큰 이 마음을

순간의 쉽도 없이  
혁명의 머나먼 길을 걸어오신 수령님  
오늘은 이루지 못한 통일때문에  
머리에 흰서리 내리는  
아버이수령님의 영상을 뵈올 때마다

정녕 나라의 분열때문에  
동트는 새벽에도 잠 못드시는  
친애하는 그이의 로고를 생각할 때마다  
더더욱 깊어지는 생각

못다 한 일을 두고  
더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불타는 이 마음이여

그때문에 정녕 그때문에  
벽에 붙은 달력은 쉽게 번저도  
인생의 월력, 내 나이는  
쉽게 넘어가지 않는구나

내 여태도록  
하루에 하루를 살아왔건만  
내 이제 한순간에 한생을 담아살고  
인생의 한 발자국으로  
온 생을 대신하여 일해야 할 사람  
보답의 의리를 다하며  
숨은 충신으로 살아야 할 전사이거니

아, 통일의 그날  
남녘땅을 한번도 밟아보지 못하셨다는  
친애하는 그이를  
서울 남산으로 안내해드릴 때  
부산과 제주도로  
그이의 사랑의 길을 이어드리고  
풍치 아름다운 다도해기슭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에 가서  
만약 내 나이를 묻는다면  
힘들게 대답하지 않으리라  
설사 내 나이 50 을 넘고 60 을 넘어도  
진정 내 나이를 후회하지 않으리라

정녕 후회하지 않을  
그 마음, 그 신념으로  
오늘에 살고 래일에 살리라  
그이께서 걸으시는 길에  
한송이의 꽃으로 피어나 기쁨을 드리고  
그이께서 흘리시는 땀방울을 식혀드리며  
한점의 맑은 바람결이 되어  
그이의 창가로 달려가리라

내 부끄럼없이 서있으리라  
그이의 사상을 받드는 친위병이 되어  
그이의 안녕을 지키는 성벽이 되어  
당의 위업앞에 곳곳이 서있으리라  
영원한 충성의 젊으로!

# 기다리는 마음속에 외 1 편

림 종 근

아득한 활주로 저 한끝너머  
평양으로 닿은 길우에 눈길 모으며  
이제나 저제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오시기를  
기다려 발돋움하는 비행사들  
벌써 눈언저리엔 물기가 어려라

언제나 오시려나  
비행훈련을 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몸소 험한 하늘을 날으시겠다신 그이  
먼길 떠나는 자식들이 마음놓이지 않아  
함께 따라나서는 어머니인양  
당과 국가의 큰일 다 미루시고 나오시는 그이  
우려러 그리는 마음들엔 터지는 환호성

오시였다 가신지는 몇달전  
그러나 생각은 어제런듯-  
허물없이 땀물은 비행복도 입어보시고  
비행기의 조종간도 만져보시며  
부어주신 그 사랑 더더욱 안겨와  
한없이 뵈옵고싶은 지도자동지

불러서 만나주신지는 며칠전  
제집에 온것처럼 생각하하시며  
우리모두를 꾸집한 저녁상에도 앉혀주시고  
비행사들의 서투른 노래도 들어주시며  
안겨주신 그 은정 더더욱 뜨거워  
못건디게 그리워지는 지도자동지

사랑의 한품에 우리모두를 안아  
주체형의 혁명전사로 키워주시는  
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비행사들은 나라의 귀중한 보배라시며  
찾아오시여 불러서 안겨주신  
그 사랑, 그 은정 끝이 없어라

우려러따르는 향도의 태양  
뵈옵고싶은 마음 간절해질수록  
높이 모실 마음도 함께 불타올라  
언제나 오시려나 기다리는 이 순간에  
아! 한생을 그이 위해 다 바쳐갈  
충성의 한마음으로 가슴 더욱 뚫어라

##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뜹시다》

어느 하늘에서 구름폭이 터졌다  
어느 대륙에서 바람사태 일었다  
이제 그이 모시고 날아야 할 하늘길에  
갑자기 구름과 바람이 뒤엎켜 도나니  
흐린 하늘처럼 비행사들의 얼굴에도  
근심의 구름이 가득

그런데 허리에 두손을 얹으시고  
하늘에 눈길을 보내시는 그이  
그이께서만이 여전히 환히 웃으시여라  
위험해진 비행길을 그냥 오르시려는  
그이를 우려러 비행사들  
안타까운 마음을 터치여라  
《오늘 비행훈련은 저희들끼리...》

그들의 간절한 소원 들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는 지도자동지  
확신에 넘쳐 하시는 말씀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뜹시다》

그러시고는 큰 걸음으로  
비행기사다리를 오르시여라

아! 뜻밖의 정황앞에서도 흔들림없이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없이  
어려운 항로를 앞장서 헤치시려는 그이 모습  
어쩌면 그리도 꼭 같으실가,  
겹쌓인 난국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우리 혁명을 승리로 이끄시는 수령님 모습과

진정 수령님의 풍모 그대로 지니시고  
귀하신 몸 조금도 돌보실념 없이  
지하수천척 막장길도 분계선초소길도  
언제나 앞장서 걸으시며 전사들을 이끄시는 그이  
오늘은 비행사들도 주저하는 험한 길에  
이렇게 몸소 나서시나니

광풍이여, 머리를 숙이라  
비구름이여, 길을 열어라  
강철의 의지와 담력을 지니시고  
자신의 숭고한 모범으로 혁명을 이끄시는  
영명하신 그이를 모시고 가는 우리  
세상에 못갈길 못할 일 어디 있으랴

아,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길엔

우리 비행사들을 앞에 세워주시고  
언제나 어렵고 힘든 길은  
몸소 진두에서 걸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는 향도의 태양  
그 빛발따라 싸우는 우리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리라!

## 향도성

씨사이 레소메

조선의 향도성  
백두산의 흰눈을 녹이며 솟았네  
인민의 락원 주체조선의 심장속에  
위대한 향도성의 영광스러운 빛발  
누리를 붉게 물들이고 빛내이네  
인류력사에 찬란한 승리를 기록하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영광을 드리네  
위대한 주체위업의 향도성  
그이는 굳은 신념을 지니신 불굴의 투사  
당의 두리에 하나로 뭉친 조선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로 령도하시네

그이는 진보적세계의 향도성  
제국주의철폐를 짓부시며

인류의 자주성을 실현하시네  
우리모두 그이께서 밝혀주신 광명한  
길을 따라 나아간다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평화롭고 공산주의적이며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수령님의 위업의 빛나는 완성을 위하여  
짓밟힌 인류의 완전한 해방을 위하여  
우리의 향도성 **김정일**동지 만세!  
자주성을 위한 인민의 우수한 아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필자: 에티오피아 쏘아지구 교육부 통계 및  
계획국장)



# 영원히 빛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프라브조트 카우르

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당신께서는 위대한 뜻과 결의를 품으시고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을 이어받으시여  
혁명의 운명을 틀어쥐고 나아가십니다

당신을 따르는 인민들은  
당신께서 안겨주신 속도전의 불바람을 안고  
모든 건설분야에서  
당신을 받들어 일하며  
당신을 따라 나아갑니다

당신께서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하시였기에  
혁명은 완성될것입니다

인민들은  
영광으로 수놓아진 지난날을 경탄하며  
자부심의 상징으로 휘날리는  
주체의 기치 들고  
혁신의 한길로 도도히 나아갈것입니다

혁명은 대중이 하는것  
대중은 혁명의 주인  
자주성과 창조성에 대한 대중의 지향은  
숭고합니다

당신께서 주체의 새력사를 창조하고계시기에  
사람들은 주체형의 새인간으로 개조되고  
그들에 의하여  
새로운 미래가 개척됩니다

하여  
조선인민은  
그 어떤 우여곡절도 모르는 인민으로  
기아와 빈궁도 공포도 불안도 모르는 인민으로  
되었습니다

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여  
인민에게 모든 영광 안겨줄  
참된 혁명을 이끄시는 당신을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의  
참다운 후계자로 높이 모시였습니다

당신은 인민의 희망  
사상과 이론  
음악 예술 문학  
공업과 농업...  
모든 창조분야 모든 인간활동에  
완전히 정통하신분이십니다

당신은 강철의 의지를 지니신분  
당신은 한없이 자애로우신분  
당신은 쉬임없이 정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당신은 인민들을 고무하시여  
주체의 화원으로 이끄십니다

주체의 화원이 펼쳐진 모든곳에서  
대지는 빛을 뿜고  
바람은 향기를 안아오며  
사람들은 언제나 자유를 노래합니다

당신께서 지니신 비범한 대담성과  
헌신성으로 하여  
당신께서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존경을 받으시며  
영원히 빛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필자 인도 시인)

# 력사의 피어린 교훈으로 자주의 진리를 밝혀준 기념비적명작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혈분만국회》에 대하여-

강 진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항일혁명투쟁 첫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각색한 력사물주제의 작품이다.

이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그가 제기하고있는 사상의 철학적심오성과 형상의 예술적완벽성으로 하여 세계연극사에 내놓고 당당히 자랑할수 있는 기념비적명작으로 되고있다. 이 작품은 주체의 인간학적 원리와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창작원칙에 기초하여 연극의 립체성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다양한 형상수단들을 연극의 특성에 맞게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주체시대 혁명연극의 참다운 본보기로 되고있다.

## [1]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과거의 력사적사실에 기초하면서도 오늘의 우리 시대가 제기하고있는 민족자주의식에 대한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는 걸출한 명작이다.

《혈분만국회》, 이 짙막한 제명속에는 단순히 20세기초 애국지사 리준이 《만국평화회의》에서 배를 갈라 피를 뿌리며 순국하였다는 력사적사실만이 요약되어있는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의신적인 《만국회》에서 애국의 피를 뿌리며 찾은 력사의 준엄한 교훈이 뚜렷한 예술적표상속에 감명깊게 집약화되어있다.

혁명연극에서 주인공 리준은 회의장에 울분에 찬 붉은 피를 뿌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며 이렇게 애타게 말한다.

《...우리가 것처럼 애써 찾은 국권회복의 밝은 빛이란 결국 허위였소. 내 할수만 있다면 저 하늘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볼수 있도록 이 붉은피로 글을 새겨놓고싶소. 남의 힘을 믿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이 얼마나 절절한 심장의 호소인가!

이것은 리준이 혼자만이 찾은 피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찾은 력사의 교훈이며 원작이 밝히고있는 심오한 진리이다. 이 진리를 저 하늘에다 붉은피로 새겨놓고 만천하에 고하고싶다는 주인공의 불같은 념원을 통하여 작품은 이 땅에 다시는 망국의 력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족자주의식을 굳건히 간직할데 대한 지향까지 웅심깊이 반증하고있다. 하기

에 사람들은 이 혁명연극을 보면서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을 철저히 뿌리빼고 민족자주의식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간직할 때만이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끝까지 지켜낼수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받아안게 된다.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이 종래의 력사극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사상에술적특성이 있으며 명작으로서의 혁신적풍격이 있는것이다.

인류의 장구한 문예사는 고대희랍의 비극으로부터 문예부흥기의 인문주의적연극을 걸쳐 근대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력사극을 기억하고있으나 아직도 나라와 민족의 운명문제를 옹계 반영한 참다운 력사물작품을 알지 못하고있다. 세계연극사에 기록되어있는 많은 력사극들은 모두다 왕권쟁탈전을 둘러싼 궁중비극이나 애정비화였고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반대하는 투쟁을 반영한 작품인 경우에도 대부분 개인의 립신공명이나 애정륜리문제를 중심으로 한 신변잡사에 매달려 민족자주의식과 같은 의의있는 사회정치적문제는 제기조차 하지못하였었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이 모든 기존력사극들과는 달리 과거의 력사적사실에서 교훈을 찾고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데서 근본적 의의를 가지는 민족자주의식문제를 구체적인 인간의 운명선을 따라가면서 극적으로 밝혀내고있다.

혁명연극이 이렇듯 력사발전에서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깊이있게 해명한것은 력사물창조에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옹계 결합할데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의 근본요구를 빛나게 구현한 결과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적관습이 진하게 배여있는 지난날의 생활을 그리는 경우에는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이 중요하다.》**

력사적 인물과 사실을 당대의 사회력사적환경속에서 진실하게 그리면서 그것들을 오늘의 견지에서 평가하고 형상하는것은 우리 당이 력사물창조에서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창작에서 력사주의적원칙을 지킨다는것은 해당시대의 민족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며 력사적인물의 성

격을 당대의 시대적환경속에서 옳게 형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런것만큼 역사물창작에서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중요인물들의 호상관계와 사건고증을 잘하여 진실성을 담보하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은 지난날의 민족생활을 개작할수도 없고 엄연한 역사적사실을 외곡하거나 꾸며낼수도 없기때문이다.

혁명연극《혈분만국회》는 우선 20세기초의 중요한 사회정치적사변들과 역사적사건들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시대적환경의 진실성을 폭넓게 담보하고 있다. 당시 일제는 《을사 5 조약》을 강요하여 《통감부》를 설치하고 우리 나라의 국권을 강탈하였으며 《합방》모략까지 공공연히 꾸미고있었다. 이러한 침략책동에 격분한 우리 인민은 반일의병투쟁과 애국적인 계몽운동을 활발히 벌여왔지만 그것으로는 빼앗긴 국권을 다시 찾아낼수 없었다. 그때 우리 인민은 주체의 진리도, 자주의 리념도 알수 없었던 까닭에 어찌할바를 몰라 망국노의 처지에서 온갖 굴욕과 수난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환경을 진실하게 반영하면서 혁명연극은 애국지사 리준이가 큰 나라의 힘을 빌어 국권을 회복할 기대를 안고 1907년 여름 헤그에서 열린 제 2차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로 갔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 역사적사건을 사실대로 깊이있게 그려내고있다. 뿐만아니라 주인공 리준을 비롯한 리상설, 리위종 세 밀사와 리준의 가족관계 그리고 매국노들과 봉건관료배 등 중요 등장인물들의 극적관계도 모두다 실재한 원형에 기초하고있으며 미일제국주의자들의 공모결탁을 비롯한 중요사건들도 역사적사실에 철저히 의거하고있음으로 하여 당시의 현실을 생동한 생활화폭으로 직접 보는듯하다.

그리하여 혁명연극 1906년 가을부터 1907년 여름까지의 우리 나라 현실과 북간도땅의 의병투쟁, 그리고 《만국평화회의》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축소판을 그대로 진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역사의 산 교과서로 되고있다.

그러나 혁명연극《혈분만국회》는 이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결코 기록주의적으로 옮겨놓고있지는 않다.

역사주의적원칙은 역사기록주의와는 하등의 인연이 없으며 극은 대화체의 역사기록과 엄연히 구별된다. 원래 역사주의적원칙은 역사적사실에 충실하면서도 거기에 구애되지 않고 그밑에 도도히 흐르고있는 역사적사실을 탐구할것을 요구하며 역사물작품은 역사적사실의 실재성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을 내적개연성과 필연성을 예술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창작되는것이다.

혁명연극《혈분만국회》에서도 리준이 1906년 1월초에 서울 《태평관》에서 칼을 빼들고 리완용을 처단하려는 리위종을 만류한 일이 있는지, 1907년 5월에 북간도땅에서 의병청년 태복이가 남긴 《혈서》를 받은적이 있는지 그 사실여부를 립증하는 자료는 없다. 하지만 이 사실들은 당시 일제의 침략책동을 반대한 우리 인민들의 애국투쟁과 매국노들을 증오하고 단죄하던 시대적환경에 비추어보나 우국충정에 넘친 등장인물들의 성격론리로 보아 응당 있을수 있는 역사적진실이다. 그렇진대 그 사실의 실재성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년대기를 손에 들고 작품을 음미하거나 날자를 일일이 캐여가며 등장인물들의 행동선을 판결하는 식으로 역사적사실을 추구할 필요는 없을것이다. 그것은 역사물작품의 본연의 사명과 어긋나기때문이다.

역사물작품은 어디까지나 사실밑에 내재하고있는 생활의 본질과 역사적조류를 지배하고있는 객관적합법칙성을 깊이있게 탐구함으로써만 자기 사명을 다할수 있다.

혁명연극은 바로 이러한 형상원칙에 따라 역사적 사실속에 숨어서 사실을 지배하고있는 역사적진실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그것을 극적으로 진실하게 재현함으로써 과학으로서의 역사보다 더 풍만하고 생동한 생활화폭을 안겨주고있다.

혁명연극《혈분만국회》는 이처럼 역사주의적원칙을 옳게 구현하고있을뿐만아니라 이미 역사적과거로 된 《어제》속에서 《오늘》이 제기하는 시대적문제를 찾고 그것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깊이있게 천명하도록 현대성의 원칙도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본래 문학예술창작에서 역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은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있다. 현대성은 어디까지나 역사주의적원칙에서 당시의 현실과 당대의 역사적인물을 진실하게 형상하는 기초우에서만 옳게 구현될수 있고 역사주의적원칙은 또한 오늘의 시점에서 과거의 역사를 해부하고 분석평가할 때만이 진실성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혁명연극《혈분만국회》는 이 량자를 옳게 결합하는 원칙에서, 지난날의 현대화하거나 과거의 역사적인물들을 항일투사나 현대의 민족적영웅처럼 과장하지 않고 그들의 애국적인 성격특질과 함께 시대적 및 계급적 제한성을 옳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옳바른 사회력사관을 주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그 이전시기의 애국투쟁사이의 계선을 명백히 굿도록 하고있다.

주인공 리준의 진실한 성격형상이 이것을 잘 실증해주고있다. 그는 국권회복을 위해서라면 가정의 행복도 한몸의 영화도 다 버리고 갖은 고초와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당대의 열렬한 애국지사로서 형상되고있다. 그러나 그의 애국충정은 이처럼 열렬하고 그의 민족적절개는 그토록 굳세였건만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그 모든것이 웅당한 결실을 맺지 못한것은 무엇때문이었는가. 혁명연극은 바로 이 물음에 대하여 리준의 시대적 및 사상적 제한성에 대한 심오한 천명과 그의 비극적운명을 통하여 감명깊은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우국지사 리준은 자신과 민족의 힘을 믿지 못하고 큰 나라들, 그중에서도 《민족자결》을 표방하고있던 미국의 도움을 받아 나라의 독립을 성취해보자고 수년에 찬 이역수만리길을 헤쳐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환상은 미일침략자들과 매국노의 공모결탁으로 여지없이 깨여지고말며 여러 나라 대표들의 량심에 호소하여도 그들 역시 랑대와 멸시를 보낼뿐이었다. 그제서야 비로소 오랜 환상에서 깨어난 리준은 교활하고 음흉한 미국놈의 본성과 《만국평화회의》의 위선적인 본질을 똑똑히 깨닫고 큰 나라의 힘을 믿었던 자기의 어리석은 소행이 너무나 순진하고 미련했던것을 통감하며 민족적울분을 토로한다.

《〈민족자결〉이라구? 당신들이야말로 평화와 정의에 대해 지껄일 자격이 없소!

내 말을 듣거라!

우리 조선은 완전독립국가이며 <을사보호조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조선사람은 왜놈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자, 우리 조선민족의 항거의 정신을 보라! 조선독립 만세》

이렇게 웨치면서 리준은 배를 갈라 붉은 피를 뿌리고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는 교훈을 남긴채 운명하고 만다.

이 얼마나 절통한 력사의 교훈인가...

이것은 남에게 의존할 때에는 애국심마저 무참히 통락되고 유린당하며 한 인간이 비극적운명을 면치 못할뿐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된다는것을 밝혀주는 력사의 준엄한 진리이다.

이것은 다름아닌 민족자주의식을 가지지 못한 인간이 겪어야 하였던 비극이었으며 자주의식과 결합되지 않은 애국심을 빚은 잃고야만한다는것을 밝혀준 생활의 심오한 진리이기도 하다.

혁명연극은 이 진리를 그 어떤 논리적개념으로 선언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우여곡절에 찬 주인공의 일생을 총화하는 피의 교훈을 통하여 극적으로 천명하고있음으로 하여 더욱 커다란 감흥을 자아내고있다. 특히 연극은 주인공 리준이가 《만국평화회의》에서

배를 가를수 있는 인간으로 처음부터 그의 성격을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생활발전의 우여곡절속에서 시종일관 그의 제한성을 굴곡있게 깔고나감으로써 형상의 진실성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그는 국권회복의 길이 막혔을 때 사나이울음을 터뜨리며 번민속에 모대기기도하고 황제의 친서와 신임장을 얻기 위해서 서대감한테서 뺨을 맞고 상궁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며 헤그호텔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는 망국노의 설음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 그는 자신의 심각한 극적체함체계를 축적해나가도록 형상되고있다.

그러다가 더는 달리 행동할수도 없고 더는 달리 울분을 터뜨릴수도 없는 극한점에 이르러 배를 가르고 력사의 진리를 절절하게 토로하도록 함으로써 이처럼 거대한 정서적공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애국지사 리준이 배를 갈라 순국한 이야기를 음흉하고 교활한 미일침략자들과 부패무능한 봉건왕조에다 걸어놓고 사대주의사상의 해독성과 위험성을 강조함으로써 더욱더 커다란 인식교양적의의를 가지게 하고있다.

여기서 중추원의장 서대감의 성격형상을 계급적 견지에서 똑똑히 발가놓고있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서대감은 비록 리준의 뺨을 쳤으나 일정한 반일감정을 품고 리준의 애국충정에 이끌려 불철저하게나마 그를 동정하고 지지해나선다. 그러나 봉건적인 충군사상에 물젖은 그는 고종이 이등박문놈의 강박에 굴복하여 밀사과건을 부정하는데 동의하자 임금의 뜻은 나라의 뜻이니 그 결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순간에 돌아서는 인물로 형상되고있다.

이처럼 혁명연극은 골수에 박힌 봉건적충군사상의 본질과 봉건관료배들의 계급적본성을 예리하게 분석해보임으로써 그 모든 형상이 사람들의 계급적자각을 높이는데 더 힘있게 이바지되게 하고있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또한 《만국평화회의》를 전후한 시기에 조선문제를 놓고 미일침략자들사이에 맺어진 음흉한 공모결탁의 진상도 심오한 극적일반화를 통하여 예리하게 까밝히고있다. 리준의 민족적지조를 우롱하고 그를 밀사로 보내는것을 미끼로 하여 돈벌이를 일삼는 정치간상배인 헬버트의 위선적형상, 원조자의 탈을 쓰고 일본대표와 결탁하여 조선대표들을 쫓아낼 모략을 꾸미는 미국대표 쇼트의 이중적형상 등은 미제의 음흉하고 교활한 침략적본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있다. 그리고 《을사 5 조약》을 날조한후 우리 나라 국권을 빼앗고 《합방》책동까지 감행하면서 리준을 비극적인 죽음에로 내몬 마루야마, 쯔즈끼 등의 형상은 일제강점자

들의 포악무도한 날강도적인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그리하여 혁명연극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본성과 공모결탁에 대한 인식을 더욱 철저히 주며 이 땅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언제나 민족자주의식을 고수하는것이 초미의 문제로 나선다는것을 일깨워줌으로써 반제계급교양의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혁명연극《혈분만국회》는 이와 같이 력사주의적 원칙과 현대성의원칙을 옹계 결합시킬데 대한 주체적문제이론을 빛나게 구현하여 원작이 담고있는 시대와 력사의 진리, 당시의 모든 력사가 줄수 있는것보다 더욱 심오하고 철학적인 자주의 진리를 감동적으로 밝혀주고있으므로 하여 세계연극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 [2]

혁명연극《혈분만국회》는 주체의 인간학적원리와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창작원칙에 기초하여 연극의 립체성을 완벽하게 구현함으로써 참으로 극다운 극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이 혁명연극은 인간생활을 기승전결의 사건단락에 따라 도식화하던 낡은 4막극구성법을 타파하고 생활의 흐름자체가 요구하는대로 9 개장면속에 우리나라 서울과 북간도땅과 화란의 헤그까지를 포괄하는 다양한 생활을 련속적인 흐름으로 보여주고있다. 사실상 3 장 서대감네 집에서 변화되는 후원장면과 4 장 리준의 집에서 변화되는 나루터장면, 그리고 9 장 회의장면에서의 변화와 서장, 종장까지를 넘두에 둔다면 무려 14 개장면의 력속적인 흐름속에 각이한 생활을 다각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혁명연극《혈분만국회》는 이처럼 다장면으로 구성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빈틈없이 짜인 인물관계와 심오한 극성으로 일관된 사건조직으로 하여 극의 립체성을 훌륭히 담보하고있다.

다장면으로 구성된 극작품에서는 흔히 극이 산만해지거나 평면화될수 있다. 그것은 극이 많은 장면들에 부산될수도 있고 장면들이 서로 평면적으로 라렬될수도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그러면 혁명연극《혈분만국회》가 다장면구성속에서도 연극의 립체성을 훌륭히 살려내게 된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주체적문제이론이 밝혀준대로 극이 체현되고있는 매 장면의 생활을 립체적으로 그려낼데 대한 형상원칙을 구현한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매 장면들에 생활의 본질을 체현하고있는 극이 있어도 그것을 립체적으로 그려내지 못하면 장면의 형상은 철학적인 깊이를 가질수 없다.》**

극예술작품의 매 장면에서 형상의 철학적심오성을 담보하려면 무엇보다도 매 장면의 극을 립체적으로 그려내야 한다.

이것은 극의 본성으로부터 출발된 필연적요구이다. 극이란 생활에서 대립과 투쟁의 반영인것만큼 각이한 사상적지향을 가진 인물성격들이 서로 얹혀있는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생겨날수 없으며 현실생활을 립체적으로 그리지 않고서는 제대로 형상될수 없다.

그것은 우리들을 둘러싸고있는 생활환경만 립체적인 공간을 형성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교제교감하는 인간들의 호상관계 역시 시공간적인 련관속에서 다각적으로 얹혀있고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심리정서세계 또한 직선적으로 표면화되지 않고 웅심깊은 내면세계의 립체적개방을 통하여 표현되고 있기때문이다.

현실자체의 이러한 특성은 생활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진실하게 형상할것을 지향하는 극작품에서 형상의 립체성을 담보할것을 요구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종래의 낡은 문예창작리론은 생활을 본색그대로 립체적으로 형상하는 원칙과 방도들을 명백하게 밝혀주지 못하고있었다.

이것은 오직 주체의 인간학적원리와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창작원칙에 기초하여 생활을 현실에서와 같이 련속적인 흐름으로 보여주면서 립체적으로 형상하는 새로운 극작법이 탐구됨으로써 비로소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었으며 혁명연극《혈분만국회》의 창조과정에 그것이 더욱 공고발전되었다.

주체적문제이론이 밝히고있는바와 같이 매 장면에서 생활의 본질을 체현하고있는 극을 립체적으로 형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성격의 본질과 사건의 깊은 내용을 폭넓고 다양한 시점에서 분석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혁명연극《혈분만국회》는 이 원칙적요구를 빛나게 구현하고있으므로 하여 빈틈없는 극구성과 짜인 극조직속에서 형상의 철학적심오성을 완벽하게 보장하고있다. 혁명연극은 주인공 리준의 성격을 사회정치활동과 가정생활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다면적으로 보여주면서 그의 애국심과 시대적제한성을 세 밀사들의 호상관계와 세친구간의 극적관계, 가족들간의 인정관계와 봉건관료배들과의 극적관계, 매국노와 결탁된 미일침략자들과의 갈등관계 등 빈틈없이 얹혀있는 다각적인 인간관계속에서 분석적으로 밝혀냄으로써 극의 립체성을 형상적으로 담보하고있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국권회복과 같은 참예한 사회정치적문제를 반영하면서도 주인공의 가정생활을 깊이 파고들어 정치성과 인간성을 결합시키도록 형상함으로써 성격의 다면성을 생동하게 살리고 있다. 리준은 나라를 위한 사회정치활동에 몸을 바치면서 가정에 들와서는 언제나 안해와 아들딸들을 사랑하는 인정깊은 남편으로, 자애넘친 아버지로 개성화되고있다. 그와 가족들간의 아름다운 인정세계는 리별장면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다시 돌아온다고 기약할수 없는 이역만리길을 남몰래 떠나면서 명절웃차림으로 가족기념사진을 찍는 장면은 인정세계에 대한 형상의 생동한 본보기이며 앞으로 가족들에게 닥쳐올 화를 생각하여 가슴터지는 아픔을 느끼면서도 국가대사를 망칠가봐 안해에게 비밀을 더놓지 못하는 리준과 그것을 알면서도 집걱정은 말고 국가대사를 성취하기를 바라며 리별주를 부어주는 안해 사이에 오고가는 뜨거운 정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여러모로 개방해주는 감명깊은 생활화폭이다.

이처럼 가정생활에 깊이 파고들어가 인정세계를 다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주인공은 정치없이 떠돌아다니는 사회운동자가 아니라 가정적바탕에 착실히 발을 붙이고 살며 활동하는 산 인간으로 형상될수 있었으며 참다운 애국심은 인간을 사랑하고 부모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러나올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도 깊이있게 밝혀낼수 있었다.

혁명연극은 이와 같이 인간성격의 본질을 다면적으로 밝혀내고있을뿐만아니라 역사적사건의 깊은 내용도 다양한 시점에서 분석적으로 그려냄으로써 형상의 립체성을 더욱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혁명연극은 주인공 리준이 갖은 간난신고를 다 겪으면서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게 되는 로정과 배를 갈라 회의장에 붉은 피를 뿌리게 되는 경위를 사건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그 밑에 깔려있는 사건의 깊은 내용을 미일침략자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극적관계속에서 립체성있게 그려낸 결과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는 진리를 더욱 극적으로 천명하게 되었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또한 한 장면의 생활을 통하여 지나온 생활과 앞으로의 생활을 다같이 깊이 생각하도록 형상함으로써 매 장면의 립체성을 더욱 진실하게 담보하고있다.

그것은 현실에서 개별적인 인간의 성격과 생활도, 사람들호상간의 인간관계도, 외부적인 생활환경도 모두다 과거와 련결없는것이란 있을수 없으며 미래와 관련없는 현재생활이란 아무런 의의도 없기때문이다. 이로부터 혁명연극은 당면하게 벌어지고있는 생활을 그리면서도 반드시 그속에 지나온 과거가 굴

절되어있고 앞으로 닥쳐올 운명까지 위구하고 기대하도록 형상하는 원칙을 견지하고있다.

주인공 리준이가 이역만리길을 떠나는 나루터 장면만 보아도 비록 구구한 말은 없으나 그가 바로 이날을 위하여 바쳐온 곡절많은 지난날의 생활을 깊이 더듬어보게 하며 앞으로 닥쳐올 운명에 대해서도 절절한 기대와 위구를 가지도록 형상함으로써 장면의 립체성을 더한층 돈구어주고 더 큰 극적감흥을 불러일으키게 하고있다. 주인공이 1장에서 리상설과 주형각을 만나서 국권회복의 길이 막힌것을 통탄하는 장면도 그들의 막전생활과 앞으로의 생활을 다같이 깊이있게 생각하게 하며 복간도 땅에서 옥녀를 만나는 장면에도 그들의 과거와 미래의 생활이 다같이 굴절되어있고 비극적인 최후장면에서는 주인공의 한생이 총화되고있는 동시에 미래의 력사우에 남길 피의 교훈도 제시되고있음으로 하여 형상의 철학적심오성이 담보되고 다는것이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또한 매 장면의 극을 립체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하나의 세부를 통하여 인간과 생활의 전모를 그려보게 할데 대한 형상원칙도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다른 문학예술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극작품에서도 세부형상은 생활반영의 진실성과 생동성을 담보함에 있어서 감성적인 형상세포라고 말할수 있다. 다만 그것이 소설에서처럼 작가에 의하여 묘사되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행동세부에 의하여 극적으로 형상될뿐이다.

혁명연극은 이러한 형상원칙에 따라 인간과 생활의 전모를 그려보게 하는 생동한 극적인 생활세부들을 장면마다 설정함으로써 형상의 립체성을 더욱 인상적으로 부각하고있다.

첫 장면에 설정되고있는 피문은 《오성학교》 간판은 주인공이 막전에 벌려온 애국적인 계몽운동의 운명을 상징하고있으며 리위중이 품고다니는 칼은 반일감정과 매국노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타고있는 그의 성격과 주인공과의 상봉계기를 극적으로 부각하고있으며 그의 트렁크속에 《시체》가 되어 돌아온 《국기》는 망국노의 설움과 민족의 울분을 터뜨리게 하는 극적계기를 조성하고있다. 리별장면에서 안해가 안겨주는 송백주는 또한 부부간의 사랑넘친 인정세계를 돈구어주고있을뿐만아니라 수록만리 떨어진 이국땅에서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강렬하게 촉발해주고있으며 옥녀한테서 넘겨받은 《조선》이란 글발의 혈서는 의병투쟁의 실패와 조선민족의 열화같은 애국심을 대변해주고있다. 이렇듯 혁명연극은 하나의 세부형상을 통해서도 인간의 내면세계와 생

활의 깊은 뜻을 여러모로 부각해주고있음으로 하여 장면의 립체성을 더욱 생동하게 살려내고있다.

이와 같이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매 장면에서 생활의 본질을 체현하고있는 극을 립체적으로 형상하고있는 동시에 설정된 모든 장면들이 강렬한 극성에 기초하여 호상 립체적으로 맞물려 끊임없는 상승발전속에 편관되도록 함으로써 장면구성의 립체성도 잘 보장하고있다.

《성황당》식 혁명연극에서 장면은 구성의 한고리로 되어 극을 이어받고 떠밀어주면서 서로 립체적으로 편관되도록 빈틈없이 짜여있을 때만이 응당한 형상적효과를 나타낸다. 그것은 극작품에서 매개 장면의 극이 아무리 립체적으로 잘 형상되어도 그것이 하나의 굴곡있는 극적흐름을 이루지 못하고 제각기 분리되어있거나 평면적으로 라렬되어있으며 매 장면의 립체성도 작품전체의 립체성도 제대로 살려낼수 없기때문이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서울과 북간도땅, 화란의 헤그 등 다양한 생활화폭들을 여러 장면에 걸쳐 펼쳐보이면서도 그 편쇄과정을 립체적으로 맞물리도록 빈틈없이 구성함으로써 극을 시종일관 굴곡있는 생활의 흐름속에서 끌고나갈수 있게 하고있다.

우선 연극 1 장 리준의 집장면에서는 국권회복의 길이 막혀 사나이울음을 터뜨리며 울분과 번민속에 모태기는 주인공의 절절한 극적체험세계를 가정적인 분위기속에 보여주고있다면 2 장 《태평관》장면에서는 《만평화회의》에 큰 기대를 걸고 국권회복의 새길을 모색하는 주인공의 극세계를 당대의 시대상을 체현하고있는 다양한 극적관계속에서 폭넓게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이렇게 전환된 극이 다시금 3~4 장에서 서대감네 집과 주인공의 집안으로 깊숙이 옮겨지면서 그 어떤 고초와 모욕도, 가족들에게 닥쳐올 가혹한 박해도 무릅쓰고 이국만리길을 떠나려는 주인공의 비분강개한 극적체험세계로 심화되어가며 그것이 5 장 북간도땅에서 또다시 심각한 시대상을 폭넓게 펼쳐보이는 가운데 세 밀사들이 체협하는 웅심깊은 극세계로 더욱 심화발전되어간다.

이처럼 심화된 6~7 장의 헤그호텔장면에서 수난과 기쁨이 교차되는 주인공의 극적체험세계를 치밀한 감흥조직으로 축적해나가다가 다시 8 장에서 서대감네 집장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장면에서는 비록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지만 주인공과 원썬들간의 갈등선이 우리 나라 서울에까지 다시 뻗쳐온 결과로 벌어지는 생활속에서 극을 더욱 상승시키고있음으로 하여 전후반의 장면구성에서 형상성통일을 잘 담보해주고있다. 이러한 립체적인 편쇄과정속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어온 극이 9 장 회의장면에서 절정

을 이루고 필연적으로 폭발되도록 장면들을 빈틈없이 구성함으로써 종자를 더욱더 극적으로 밝혀낼수 있게 하고있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에서는 이와 같이 장면들이 평면적으로 라렬되어있는것이 아니라 심오한 극성이 끊임없이 촉발되도록 모든 장면들이 호상유기적으로 편관되고있음으로 하여 극구성의 짜임새와 연극의 립체성을 완벽하게 살리고있다. 그리하여 《성황당》식 혁명연극이 종래의 4 막극구성에 의한 낡은 연극과 구별될뿐아니라 장면수만 늘이려고 시도하는 서사적인 다장면구성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립체적인 다장면구성법에 의거함으로써 참으로 극다운 극을 창조하게 되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 [3]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철학으로 깊이있는 주옥같은 명대사와 주인공들의 극적인 체험에 적응한 명가사, 그리고 뜻깊은 설화 등 다양한 형상수단들을 연극의 특성에 맞게 활용함으로써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새로운 묘사방식상특성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연극창작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우리 식의 새로운 연극형식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우리 식의 새로운 연극형식을 창조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새 연극의 묘사방식상 특성을 옹호하게 규정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키는 문제이다.

주체의 문학예술론은 우선 연극의 기본형상수단을 《행동》 또는 《말과 행동》이라고 보아온 기존리론과는 달리 산 인간의 대사가 기본형상수단이라는것을 새롭게 밝혀주면서 명대사창작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와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있다. 연극에서 인물의 성격은 주로 대사를 통하여 나타나고 극성도, 지속적인 감흥조성도 주로 대사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작품의 사상주제적요구도 대사조직으로 실현되는것만큼 극작품의 매개 대사들은 이러한 형상적기능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명대사로 되어야 한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명대사창작과 관련된 원칙적요구를 빛나게 구현하여 뜻이 깊고 알기쉬우며 성격적이고 생활적인 명대사로서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생동하게 개성화하고 있으며 극성과 지속적인 감흥조성을 확고히 담보함으로써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제를 감명깊게 밝혀내고있다.

작품의 대사들은 당대인들의 애국적인 사상감과 민족적울분, 쓰라린 마음의 고통과 번민을 진실하게 반영하고있음으로 하여 시대상이 짙으면서도 알기쉽고 극성이 강하면서도 철학적사색이 깊은것으로 특징적이다.

1장에서 안해가 대낮에도 술을 마시고 들어온 주인공을 핀잔할 때 《... 이 나라엔 대낮이란건 없소. 캄캄한 그믐밤뿐이지.》라는 대사와 《내가 무슨 돌부처요? 저 한강물이 다 술이래두 내 단번에 마셔버리겠소.》라고 하는 대사, 그리고 집을 판것을 두고 안해가 나무랄 때 《리완놈은 나라를 팔아먹는데 제집이야 못팔아먹소?》라고 하는 대사 등은 당시의 우리 나라 현실과 민족적울분을 주인공의 개성적인 성격형상으로 심오하게 밝혀준 명대사로서 사람들에게 깊은 철학적사색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이 작품에는 대상의 본질적속성을 집약화하여 나타내는 비유나 형상적인 대구, 격언 등이 격에 맞게 쓰이고 있음으로 하여 대사가 성격과 정황을 극적으로 부각하는데 훌륭히 이바지하고있다.

단적으로 《... 모든것이 변해두 변하지 않는건 조선의 물맛뿐이구나.》라고 하는 주인공의 생활적인 대사와 왜놈들이 국권을 강탈한것을 이 나라의 염통까지 떼내었다고 비유한 대사, 그리고 피폐화된 봉건정부를 《왜놈의 바지저고리》에 비기고 외교권을 빼앗겨 쓸모없이 된 국기를 나라의 《시체》에 비긴 대사들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들이다. 그리고 서대감네 집장면에서 임금이 있고야 나라도 백성도 있다고 하는 서대감에게 《아닙니다. 나라가 있구야 임금도 백성도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주인공의 말과 헤고호텔장면에서 안해의 사랑이 깃든 송백주를 마시고 망국노의 설음을 터쳐놓으며 《우리에겐 살아서 돌아갈 조국이 없고 죽어서 문힐 조국이 없소.》라고 하는 대사 등은 주인공의 절절한 애국충정과 민족적울분을 형상적인 대구로 극명하게 표현하고있는 명대사로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이와 함께 혁명연극은 풍부한 감정축적에 기초하여 고도로 양양된 극적정황속에서 인물의 내면세계를 정서적으로 시화하여 개방하는 수법도 활용하고있다.

그것은 회의에 참가하게 된 소식을 듣고 세 밀사가 열싸안고 기쁨에 목메일 때 읊는 리준의 즉흥시에서 찾아볼수 있다.

그는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된 기쁨을 시름의 파도만 밀려오던 망망대해를 헤쳐 꽃향기만 풍겨오는 기슭에 닿은것에 비유하면서 서정적으로 개방하고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즉흥시가 아니라 주인공의

공의 양양된 감정세계를 극적으로 개방하고있는 주정토로이다.

또한 이등박문의 강박으로 최악의 전보문이 헤그로 날아가는것을 통탄하여 주인공의 안해가 하늘에다 대고 버락을 쳐달라고 절절하게 부르짖는 대사 역시 단순한 《방백》이 아니라 그의 내면세계를 극적으로 터쳐놓는 심장의 절규로서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흥과 깊은 사색을 안겨주고있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이처럼 명대사창조를 기본으로 하는 극적묘사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동시에 생활과 성격의 론리에 따라 서정적 및 서사적 묘사방식도 배제하지 않고 연극의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묘사방식상 특성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음악이 대사와 함께 연극의 중요한 형상수단으로 된다는것을 밝혀주면서 음악과 그 문학적기초인 가사가 연극에서 성격창조의 중요수단으로 되게 하는데서 나서는 형상원칙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있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이 형상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여 주인공이 생활을 정서적으로 체험하는 절절한 극적계기들에서 노래를 연극의 특성에 맞게 방창식으로 주며 그 가사 또한 극적묘사방식의 특성에 어울리게 절가화된 단절가사로 줌으로써 그것을 대사와 행동만으로 메마르게 엮어오던 연극의 낡은 틀을 깨뜨리고 풍만한 정서와 감흥이 넘쳐흐르는 새로운 본보기작품으로 되게 하였다. 이 작품의 방창가사들은 우선 정책가요나 가극작품의 가사와는 달리 서정성을 살리면서도 칠두칠미 등장인물들의 극적체험세계와 장면들의 구체적인 정황에 맞게 도입되고있음으로 하여 커다란 정서적감화력을 안겨주고있다. 그것은 이 작품의 주제가 《조선아 말해다오》가 잘 말해주고있다.

2절로 절가화되어있는 이 방창가사는 각각 다른 장면들에서 그 정황에 맞게 극적으로 서정화되어 있다. 주인공이 절망에 빠져 땅을 치며 울분을 토로하는 장면에서 울리는 1절에서는 국권을 회복할길을 찾지 못해 안타까이 모대기는 번민의 세계를 개방하고있다면 주인공이 배를 가르고 운명한 다음에 울리는 2절에서는 피에 젖은 고국산천을 저 멀리 남기고 바람세찬 이국땅의 고향으로 된 그의 비극적인 최후를 정서적으로 개방하면서 그 언제면 광복의 뜻을 별빛처럼 빛낼것인가를 절절하게 토로하고있다. 이 방창가사들은 대사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수 없는 주인공의 깊은 내면세계를 가사로, 노래로 정서적으로 개방함으로써 극성과 서정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있다.



주인공이 안해와 헤어지는 장면에서 울리는 리벨가 역시 그들의 심리정서세계를 심오하게 개방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정서적감흥을 안겨주고있다. 기약할수 없는 이역만리길을 떠나는 남편에게 리벨주를 부어주는 대목에서부터 울리는 리벨가의 선율은 나루터에로 이어지고 거기서 다시 북간도로로 이어지면서 수난에 찬 길을 헤쳐가는 주인공의 애달픈 심정과 국권을 회복하고 돌아오리라는 굳은 의지를 서정적으로 표현하고있다. 또한 연극에서는 먹장구름이 밀려오고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 울리는 송엄한 개막음악과 우뢰 울고 번개치는 속에 울리는 마감음악, 그리고 헤그호텔에서 울리는 이국적정서가 짙은 음악들은 연극의 정서를 다양하게 살리고있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이처럼 연극의 특성에 맞게 서정적묘사방식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있을 뿐만아니라 서사적묘사방식에 속하는 설화도 자체특성에 맞게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연극의 형상적기능을 더욱더 확대하고있다.

혁명연극의 서장에 주어진 설화는 검은 구름이 드리운 저 하늘에서 사납게 울부짖는 퇴성에 의탁하여 망국의 비운이 드리운 당시 우리 나라의 시대상을 형상적으로 부각하고있으며 국권을 찾기 위해 주인공이 머나먼곳으로 떠나는 장면에 주어진 설화는 그 로정을 시공간적으로 비약시키는데만 이바지하고있는 것이 아니라 정다운 사람들의 뜨거운 사랑도 아늑한 보금자리도 뒤에 남긴채 떠나가는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잘 부각해주고있다. 이와는 좀 달리 종장으로 넘어가면서 주어진 설화는 력사적과거로 흘러간 《어제》의 교훈속에서 《오늘》의 시대정신을 웅심깊게 반증하고있음으로 하여 작품이 제기하고있는 사상의 철학적심오성을 더욱 돋구어주고있다. 이 모든 설화들은 종래의 낡은 희곡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해설해주던 설명문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며 움직이는 생활화폭과 함께 주어지는 영화의 설화와도 같지 않다. 이 설화들 역시 극적묘사방식에 의거하고있는 연극의 특성에 맞게 충분한 감성충적을

결쳐 극적으로 가장 양양된 생활계기들에 도입되고 있으며 등장인물들의 행동세계와 밀착되면서 강렬한 극성을 촉발해주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혁명연극은 이와 같이 지난 시기 극적묘사방식에만 매달려있던 낡은 연극과는 달리 서정적 및 서사적 묘사방식도 자체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묘사방식상특성을 새롭게 확증하고 더욱 발전풍부화시키고있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인간과 생활을 현실그대로의 구체성과 생동성을 가지고 립체적으로 반영할것을 지향하는 흐름식립체무대미술의 형상적위력을 또한 더욱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우아하고도 선명한 조선화의 특성을 살려 형상한 서대감의 집전경과 이국정서가 풍기는 헤그호텔의 정원장면은 그대로 현실을 생동하게 옮겨 놓은것과 같이 방불하다. 중간막이 서서히 움직이는 가운데 서울과 북간도, 헤그의 풍경이 영화의 화면처럼 펼쳐지는것도 대개 장면의 특성에 맞게 좌우로 흐르는 흐름막과 아래위로 오르내리는 주름막을 잘 배합하여 자연스럽게 보여 줌으로써 련속적인 극의 흐름을 더욱 립체성있게 부각해주고있다. 특히 리벨장면에서 집이 쭉 갈라지면서 나루터가 나타나는것과 주인공 리준이가 배를 타고 순국할 때 회의장의 벽이 통채로 돌아가게 하고 붉은색조명으로 그의 비극적최후를 부각해주고있는 것은 동적인 무대미술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그 내용의 철학적심오성과 형식의 예술완벽성으로 하여 《성황당》식 연극예술이 거둔 특출한 결작으로, 인류의 연극예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또 하나의 기념비적명작으로 된다.

은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자주의 진리로 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면서 인민대중을 힘있게 고무할것이며 세계 연극예술앞에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면서 새로운 진리를 열어 줄것이다.

## 푸른 소나무

김송남

나무술이 한껏 푸르러졌다.

크고작은 잎새들이 산들바람과 노닐며 끝없이 하느적거리는데 한낮의 햇빛을 잔뜩 머금은 그것들은 마치도 금구슬, 옥구슬을 굴리는듯 하다.

나는 올해 일곱살에 잡히는 유치원생 딸애의 손목을 잡고 꽃과 숲사이로 옮겨갔다. 그저 즐거워지는 맑은 공기였고 아름다운 꽃과 싱싱한 숲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진 동흥산 언덕, 사람들의 발걸음 잦을새 없는 이 언덕은 일요일의 한낮을 맞아 더욱 흥성거린다.

사람구경을 할라, 인공폭포며 금붕어못을 볼라 노상 마음이 들떠있던 딸애의 눈길이 이번에는 한떨기의 꽃에 와 멎었다.

《아버지, 이 꽃 무슨 꽃이나?》

《목란꽃이란다.》

《이건?》

《이건 장미꽃...》

대답이 궁해질 정도로 연방 들이대는 딸애의 물음이 싫지가 않았다. 정말 얼마나 좋은날에 내가 살고 있고 또 네가 태어났단말이나. 저기 높은 축대우에서 더욱 휘황찬란한 미래를 가리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부름을 받들며 우리는 또 얼마나 크나큰 행복과 영광을 너희들의 대에 물려줄수 있단말이나...

저도 모르게 가슴이 부풀어오르는데 문득 또 딸애가 묻는다.

《아버지, 이건 푸른 소나무지?!》

《아버지 소나무란다...》

그 말이 그 말이라는 생각에 그저 심드렁한 대답을 해주는데 딸애가 말꼬리를 잡아챈다.

《아니야, 이건 푸른 소나무야... 아버지 그것두 몰라. 이 나무는 김형직선생님께서 바라보신 푸른 소나무인데 뭐...》

그제사 나는 나의 대답이 신통치 못하였음을 깨달았다.

여기는 만경대의 언덕이 아니고 이 나무 역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아니건만 아이에게는 이땅의 모든 소나무가 조상대대로 불리워온 범상한 그 이름으로가 아니라 력사의 새벽길을 헤쳐오신 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존함과 련관되어있는 숭고한 이름 《푸른 소나무》로 감수되는것이다.

그저 소나무가 아니라 《푸른 소나무》란 말이지... 입속말로 딸애의 이야기를 곱씹어보며 나는 그의 리해를 바로잡아주려던 아버지의 《의무감》을 얼른 포기하고말았다. 오히려 딸애의 생각을 긍정하는 나의 가슴속에는 이 땅이 어둡던 시절 하늘의 등불처럼 누리를 밝히며 솟아오른 가슴뜨거운 시 한수가 떠올랐다.

조국의 광복과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신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시며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손수 지으신 《남산의 푸른 소나무》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롭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간악한 일제의 괴물은 군화발에 짓밟혀 신음하던 이 땅우에 기어이 재생의 봄, 양춘을 안아오리라는 굳은 맹세를 소나무의 절개에 의탁한 불멸의 노래, 이제는 온 겨레가 부르고 온 누리가 따라부르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에 대한 다함없는 이송가...

바로 이 시에 담으신 뜨거운 애국의 뜻을 혁명의 자욱자욱에 새겨가시고 이 시에 부치신 불굴의 기개를 삼천리강토우에 펼쳐가셨기에 선생님의 그 모습은 저 푸른 소나무의 기상으로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이처럼 영생하시는것이 아니라!

한그루의 소나무가 때없이 많은 생각을 불러준다. 나는 딸애의 손목을 잡고 발걸음을 못뎀다. 뜨거워오르는 나의 마음속에는 선생님께서 압록강연안 국경지대로로 혁명활동중심지를 옮기시기 위하여 만경대를 떠나시킨 력사의 그날, 가족들에게 남기신 뜻깊은 말씀이 다시금 울려온다.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내 몸이 찢기여 가루가 될지언정 일제놈들과 싸워 이겨야겠다.》

아드님대와 손자분대에 가서라도 기어이 싸워서 승리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야말겠다는 불굴의 의지와 철석같은 신념, 이 얼마나 멀리에 두시였던

원대한 뜻이었고 그것을 위하여 줄기차게 고동친 혁명가의 크나큰 심장이시었던가!

《지원》의 높이신 뜻을 푸른 소나무의 기상과 절개로 이어가신 조선의 새벽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조선의 독립은 조선사람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신념을 안으시고 국내외에 있는 독립운동자들을 중심으로 반일지하조직인 《조선국민회》를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신 김형직선생님,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를 타승하기 위한 무장을 준비하시고 독립운동자들을 한사람한사람 키워가 험난한 싸움길에서 헤쳐넘으신 시련의 고비는 얼마였으며 뚫고 지나신 사선은 또 얼마였으랴...

크고 숭엄한 뜻을 다시금 새겨안은 나의 마음속에는 이제까지 범상히 보아오던 주위의 모든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띠고 안겨온다. 굽어보니 유유히 굽이치는 성천강을 사이에 두고 금시 푸른옷을 떨쳐입은 함주백리벌도 새로와 보이고 총진군의 열풍을 휘감아올리는 은빛철탑의 도시도 처음인듯 더 웅건해보인다.

그너머로 점점이 내려있는 만선의 배들을 품에 안고 끝없이 설레이는 동해의 물결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언덕에 오르시여 이것이 《사회주의정치》라고 일러주신 그 말씀의 참뜻이 새롭게 맥박쳐온다.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축도로 펼쳐진 동해의 한 기슭, 창조로 들끓는 벽찬 생활을 안고 설레이는 공도 함흥의 모습도 《지원》의 뜻을 받아안으시고 주체의 해발높이 조선혁명의 초행길을 개척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자욱우에 피어난 한떨기의 아름다운 꽃인 것이다.

정녕 아버님께서 바라시는데로 오늘의 이 모든것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캄캄한 조국땅을 뒤에 두시고 압록강을 건느시던 그날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포평나루에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맹세는 또 얼마나 짓밟힌 겨레의 가슴을 뜨겁게 흔들어주었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후날 이때를 회상하시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열네살 때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나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가, 이렇게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도 슬픔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맹세를 지키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20성상에 걸치는 긴긴세월 항일혁명의 간고한 길을 헤

쳐 이 땅에 광복의 봄을 안아오시였다. 그리고 또다시 수십년의 장구한 세월을 오직 인민의 행복과 이 땅의 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면서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승리로 이끄시였으며 세상에 빛을 뿌리는 주체의 나라, 사회주의공업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주체의 해빛 차고넘치는 락원의 이 강산에서 우리의 가슴을 다함없는 감격으로 뿔어번지게 하는 한없이 숭고한 맹세의 노래를 또다시 듣는다.

...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  
대를 이어 해빛으로 이어가리라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공산주의 그날을 앞당겨오리  
아, 조선아 나의 조선아

흘러간 1960 년대의 첫 새벽에 벌써 조선을 불러해쫓는 룡담산마루에 울려퍼진 뜨거운 맹세의 노래,

조선을 빛내이고 조선을 떨치리라고 굳게 다지신 그 맹세를 안으시고 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일찌기 주체위업을 계승완성해 나아가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년대와 년대를 넘어 온 누리에 찬란한 향도의 해발을 뿌려오시였다. 그 해발아래 20세기의 대문에부흥기가 펼쳐졌고 속도전의 열풍은 더욱 풍만한 행복의 열매들을 이 땅 가득 익혀놓았다. 우리 당은 더 강대한 힘으로 일떠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실현해가는 이 강산에 패기와 열정, 창조와 변혁의 기쁨이 차넘친다.

정녕 얼마나 더 휘황한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인가. 조선이 받아안은 영광은 얼마나 빛나는 것인가.

감격에 뿔어오르는 이 가슴속에 한없이 숭고한 그 맹세들로 이어진 조국의 자랑찬 력사가 다시금 떠오른다.

...만경대를 떠나시며 다지신 맹세, 포평나루에 남기신 광복의 맹세, 룡담산마루에 울려퍼진 주체위업완성의 그맹세...

숭엄한 맹세는 숭엄한 맹세로 이어지고 불멸의 자욱은 불멸의 자욱으로 이어졌다. 위대한 위업은 위대한 위업으로 이어지고 빛나는 위업은 또한 빛나는 위업으로 이어졌다.

대를 이어 이처럼 뜨거운 맹세가 다져지고 또 이 맹세가 이룩되는 그 나날들에 세기를 두고 갈망해온 겨레의 절절한 숙원들이 다 풀리였으며 변혁의 한길

을 주름잡아온 우리 조국은 룡성과 번영의 대전성기-《양춘》을 맞이했다.

빙천설지의 차고 어둡던 그 세상에서 끝없이 투철한 예지의 눈빛과 한없이 뜨거운 심장의 온기를 받아 조상전래의 푸르름을 다시 찾았던 남산의 그 한그루 소나무가 오늘은 온 나라에 푸르려 설레인다.

바로 그때문에 천만년을 두고 다름없이 다만 《소나무》로 불리워온 이 사철 잎푸른 깨끗한 나무가 어린 딸애의 입을 통하여 오늘 《푸른 소나무》로 불리워지고있는것이 아닐가, 그러고보면 딸애의 말에는 우리의 시대적감정과 지향까지도 반영되고 있는것이다.

그렇다.

바로 이것이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를 통해서도 이 땅에 태어나 살며 숨쉬는 크나큰 영광을 감수하는 우리 인민의 시점이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명도를 대를 이어 받들어가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이 땅의 의지이기도 하다.

비로소 나는 한구루 소나무앞에서 발걸음을 떼었다. 그러면서 딸애에게랄가, 자신에게랄가 새로이 찾아낸 대답을 주었다.

《오나, 경이야! 네 말이 맞다. 이건 소나무가 아니라 <푸른 소나무>다!...》

때마침 어데선가 첫 여름의 훈풍이 불어왔다. 푸르싱싱한 소나무가 가볍게 설레었다.

## 나를 위한 눈빛

김 종 원

어창이 넘게  
또 한그물 쏟으니  
펄펄 뛰는 물고기를 따라  
어부의 기쁨도 뛰고  
어부의 웃음집도 흔들리는데

이 아니 무슨 전파소리나  
먼바다 물결은 잔잔한데  
수평선엔 갈매기만 노니는데  
글쎄 우리더러  
큰 파도가 온다고 들어오라누나

배군의 일육십은 물결에 내리고  
무선의 음향은 이몸을 당겨  
우리 잠시 망설임만 안고섰는데  
한순간, 너무도 짧은 그사이  
전파소린 또다시 우리를 재촉하누나

그 누가 마음속 깊은 굽  
결에서 그리도 세심히 들여다보는듯  
그 누가 나를 위해  
천리만리 더 먼바다에 나가  
나를 다칠 큰 파도를 찾아보는듯

풍랑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배군의 억센 가슴  
왜 이리 설레이느냐  
나를 위해 밝은 눈길이  
금시 내결을 감도는것만 같아

아, 철없던 그 시절  
고향의 강가에서 내 뛰놀적  
고향집의 우리 어머니  
이리도 짧은 순간에  
이리도 목메여 다급히 나를 찾았던가

진정 어머니보다  
더 뜨거운 마음  
더 진정넘친 눈빛  
내 미처 느끼지 못하는곳에도  
언제나 따라서며 내결에 있거니

그래서이구나  
귀밀에 흰서리 묻도록  
내 그물을 들었어도  
손끝에 가는흙 모르는 행복  
변덕 많은 풍랑을 모르고 산 기쁨

그때문이 아닌가  
집을 떠나 먼바다에 나가도  
내 집뜨락을 예도는 마음이어  
큰 물속에서도  
지켜보는 어머니눈길앞에 재롱피우는  
애들같이 천진해지는 마음이어

아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부름이 담긴 전파소리  
생각도 깊어지는 목소리  
이것이 나를 위한 우리 당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나를 위한 우리 당의 눈빛이구나

# 동지에 대한 생각

전 동 우

그 사랑 어쩌면 그다지나 소중한  
내 머리에 흰서리 내리였어도  
이 심장 뜨거운 가장 밑바닥에  
갈수록 고이고이 간직하는것인가...

사랑에도 그것은 범상치 않은 사랑...  
때로는 분별없이 목숨도 내걸더니  
때로는 한없이 다심도 하여  
뜬눈으로 긴긴밤을 새우기도 해

하지만 그것은 변함이 없는 사랑  
언제인가 이 가슴에 한번 심어져  
뿌리깊은 나무처럼 흔들리는 일 없고  
샘깊은 물처럼 마르는 일 없어

한뼘 살며 나는 자주 보았더라  
낳아준 어머니도 그 앞에서는  
백발을 숙이기 부끄러워 아니하고  
착한 안해들도 옷깃 여미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는것을

아, 동지... 동지여!  
그대는 나의 무엇이기에  
혈불이도 아니고 련인도 아니면서  
그처럼 이 가슴 송두리채 차지해

내 한생 살면  
그대와만 더불어 살기를 소원하고  
죽는다면 오직  
그 무릎에 눈감기를 소원하는가

어머니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송아지적 친구는 더욱 아닌 그대,  
화창한 봄날에 등산길에 마났다면  
남남으로 스치여 지나치고말았으리

바람사납던 시련의 언덕에서  
그대는 당이 나에게 안겨준 사람,  
조국이 가장 어려워하던 그날에  
그대는 당이 나에게 맺어준 사랑

잊지 못해라  
불비속에서 나를 안아 업어내던  
땀에 절고 피흐르던 널직한 그 잔등을  
최고사령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에  
이름 석자 나란히 함께 적어넣던  
초연에 활쾅 마디굵은 그 손을

그대는 바로  
위훈으로 날이 새던 건설장우등불가  
쫓잡든 내 어깨에 그무엇인가  
덮어주고 사라지더 발자욱소리였고  
내 심장 속속들이 스미고 스며들어  
불이 되어 번져가던 후더운 그 체온...

무엇때문에  
무엇때문에 그대는 나를 위해  
날아오는 적탄을 가슴으로 막아주고  
무엇때문에  
무엇때문에 나는 그대를 위해  
불붙는 로속에 먼저 뛰어들었던가

그 무엇을 바라서였던가  
무슨 담보를?  
아니면 감사를?  
아니면 후날의 무슨 갚음을?...

아, 성스러운 그 이름 더럽히지 말라!  
베풀고 갇아서 동지가 되랴...  
서로 준것은 천금보다 더해도  
서로 받은것이란 푼전도 없어  
오직 주고받은 그것은 마음 하나뿐  
당을 따라 영원히 함께 가자고  
말없이 서로 나눈 맹세 하나뿐

고향 떠나 먼곳 남모를 산기슭에  
사랑하는 전우를 제손으로 묻고  
사나이 울음을 울어본 사람은 알리라  
동지란 동지란  
버리고 가지 못할 맹세가 있어  
죽어서도 죽어서도 갈라질수 없는 사람,  
그래서 다시 살아 이 가슴에 돌아오는  
돌아와 함께 사는 그런 사랑인줄을

그렇다 그대는  
순란한 길에서는 만나지 못하고  
어려운 길에서만 만나게 되는 사람  
가슴송두리채 내맡기기전에는  
차례지지 않아  
목숨과 바꾸어야 얻기도 하는  
그렇게도 값비싼 혁명가의 재부  
그렇게도 값높은 혁명가의 자랑

그대는 그렇게 내 삶에 스며들어

더운 피가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고  
언제나 향기로운 꽃이 되어주었거니  
동지여,  
내 가진 모든것, 내 누리는 모든것  
그대와 떼어놓으면 남는것 그 무엇이랴

포화의 언덕에서 락원의 언덕으로  
당을 따라 달려온 수천수만리  
내 머리에 흰오리 질어가건만  
아, 그대의 귀중함을 다 알기엔  
어쩌면 내 나이 아직도 모자라는듯

불타는 전호에서  
피흐르는 내 다리에 봉대를 감아주던  
더없이 살뜰하던 그대의 손은  
락원의 창가에서  
때로는 맵싸디맵싼 채찍이 되어  
사정없이 이 몸에 내리쳐더라  
낳아준 어머니도 감히 삼가하는  
이는 오직 그대만이 할수 있는 일  
정녕 그대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의 어느 누가 그렇게 매를 들랴

아픔에 모대기며 뜬 눈으로 새운것은  
내가 아니고 그대였어라  
그대의 손매 그 아무리 맵싸도  
나를 아픔보다 고통마음에 울게 하더라  
그것이 다름아닌  
이 마음의 얼룩을 가시여주는  
눈물로 젖어있는 동지의 손이기에  
꿈에라도 티 한점 없기 바라는  
다름아닌 우리 당의 뜨거운 손이었기에...

그렇다, 동지여 나의 동지여  
그대는 나의 량심,  
그앞엔 내 언제나  
부끄럽지 말자고  
꿈결에도 다시 비추어보는 량심!

동지의 메앞에 나서기 두려운 사람  
신성한 혁명의 길 그 어이 함께 가랴  
그앞에서 속이는자  
자신을 속이고  
그앞에서 돌아서는자  
당앞에서 돌아서더라

그 어찌 목숨이 오고가는 칼날우에서만  
동지가 있고 배반자가 있으랴

새 울음소리 노래불러 그치지 않는  
가장 평화로운 꽃밭에서도  
꽃이나 잡초이나 관가름은 있거니  
성스러워라 동지여 그대 이름은  
변치 않는다는 말,  
순결하다는 말,  
다진 맹세 영원히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

오늘도 보람찬 투쟁의 걸음마다  
그대 언제나 곁에 있는 생각  
그것만으로도 나는 두려움없어라  
당이 부르고 당이 바라는 길에  
그대 언제나 함께 있다는 생각  
두번다시 못올 길도 웃으며 갈수 있어라

어쩌면 내 나이 더할수록 그대를 부르는  
동지라는 한마디 짝막한 이름  
이 가슴에 더욱 엄숙하고 숭엄해  
무심히 무심히 부를수 없구나  
그 이름 언제나  
한없이 숭고한 높이에 닿아있어  
우리 모든 량심과 신념의 원천이며 봉우리  
우리 당중앙의 그 이름에 닿아있어

아, 그대와 나는 행복하여라  
그 이름밑에서  
어제날의 로투사와 우리가 함께 서고  
그 이름밑에서  
우리의 아들들이 나란히 함께 가는  
영광의 대오에서  
동지라고 불리우는 그대와 나는 영예로워라

소중히 간직하라  
고이고이 간직하라  
동지라는 그 이름은  
당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한다는 말!  
위대한 우리 당의 믿음으로 수호되는  
혁명가의 가장 고귀한 칭호!

아, 그때문에, 바로 그때문에  
동지여, 나의 동지여  
그대와 나, 우리의 오랜 사랑은  
불과 바람과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사랑에도 굳고굳은 사랑이여라!  
어머니와 안해와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부러워하는  
사랑에도 아름다운 사랑이여라!

## 기차를 들고 온 청년

김 동 호

그림 리 수 길

역전공원의자에 두 여인이 앉아있었다.

얼굴이 동그스름하고 류달리 속눈썹이 길다란 처녀와 이마가 좁다랗고 눈언저리에 주근깨가 다문다문 박힌 어딘가 모르게 처녀리를 갓 벗어버린 듯한 아주머니였다. 그는 색이 진한 밤색갈의 부인용가방을 옆에 끼고있었다.

처녀는 북부지구 건설사업소의 설계원 강봄이였고 부인은 같은 지구건설사업소의 시공지도원 성은희였다.

그들은 몇해전에 함흥수리대학을 함께 나온 동창생들이었다.

봄이는 지난해 초겨울에 남포갑문대상설계때문에 석달을 기한으로 집에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왔었다.

은희가 남포갑문쪽으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는것을 안 봄이 어머니는 그의 손목을 잡고 그러한 눈길로 신신당부했었다.

《나이 스물일곱이 적니, 임자가 나셨을 때에 마련을 봐야겠다. 그런 사람 골라잡기가 어디 그리 쉬울테냐? 대학을 나왔겠다, 인물 또한 미남이겠다, 집안이 뜨르르 하겠다. 나물랄데 없당이. 석달을 기한으로 간 애가 몇석달이 됐니? 왔다가 다시 가는 한이 있더라두 이번 걸음에 꼭 데리구 와다우!》

은희는 그 《짐》을 지고 출장길에 교역에서 내려있었다.

은희의 전보를 받은 봄이는 역에 마중나왔고 그들은 지금 갑문행 배스를 기다리는중이었다.

《… 너 하나를 믿고 룽십평생을 하루같이 살아온 어머니 마음도 알아줘야 할게 아니가.》

은희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역전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붐비었다.

서늘러운 바람이 설렁대며 불어왔다.

누렇게 단풍이 든 방울나무 이파리가 한잎두잎 땅 위에 내려앉았다.

봄이는 머리로 떨어져내리는 방울나무이파리를 난딱 잡아서 줄기끝을 잘근잘근 씹었다.

《너도 그 사람을 잘 아니?》

《잘 알구말구. 이제 몇달후이면 준박사학위를 받게 될거야. 대단한 정열가지. 멀지않아 과학계에 혜성처럼 나타날거야.》

은희는 어제인가 봄이가 과학자부부에 대해 동경하던 일을 더듬으며 그가 전도유망한 과학자라는것을 길게 이야기했다.

《그게 다니?》

봄이는 심드렁해서 물었다.

《글쎄 무얼 더 말할수 있을까?! 도대체 넌 어떤 사람을 요구하니?》

《학식이 높다구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는건 아니지 않을까?!》

봄이는 그이상 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잘못이 눈지방을 내리깔며 손목시계를 보았다.

《한시간 기다려야겠어.》

《그럼 그새 너의 그 인생철학이나 들려주렴!》

은희는 빙긋이 미소지었다.

그의 눈빛에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있음을 읽은 봄이는 자기 마음을 드러내보이기로 결심하고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 1

밤은 바닥없이 깊어갔다.

이지러진 하현달이 나무가지에 걸쳐여있었다.

봄이는 진흙냄새가 서려여있는 자그마한 설계실 창문가에 그런듯이 서있었다.

달빛은 그의 얼굴을 건드리며 은빛으로 부서지였다.

봄이의 마음은 저으기 심란해졌다.

갑문건설장에 발을 들여놓은지 어느덧 석달이 가카와졌다.

그가 맡은 대상설계도 거의 끝나가고있었다.

요즈음 그의 하루는 몹시 지루하게 흘러갔다.

갈대가 우거진 서해기슭, 바다쪽으로 쭉 내불린 살부리, 파도를 차며 노닐으는 갈매기의 울음소리.

봄이는 낯설은 이 모든것에 정을 붙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었다.

그러나 생활은 그의 마음을 너그럽게 받아주지 않았다.

줄비하게 갖추어진 본소의 아늑한 설계실이 눈앞에 열른거리였고 《리상》이란 무엇인가를 담론하며 유보도의 밤길을 함께 거닐었던 동무들이 못견디게 그리워졌다.

감탕내 풍기는 바다기슭, 좁만 바람이 일어도 태질을 하듯 뽀이냐니 흙먼지가 이는 언제장.

하루 세번 식당에 내려가게도 아찔한 산릉선을 툭아다녀야 하는 벼랑길.

봄이는 자기가 이 거치른 바다바람에 절기엔 너무도 연약하다는것을 몸으로 맛보았다.

오늘 그는 어머니로부터 두번째의 등기편지를 받았다.

외동딸인 자기 하나를 믿고 서른나이드 벗어지기 전에 홀몸으로 늙어온 어머니였다.

처녀티가 온몸에 굵이쳐흐르는 오늘에도 어린 애처럼 마음놓지 못해하며 밤이 깊어지며 늘 길목에 나와서 기다리는 어머니였다.

편지를 받고보니 어머니가 더욱 그리워졌다.

봄이는 한시바삐 맡은 설계를 끝내고 돌아가리라며 며칠째 설계실에서 밤을 패웠다.

그런데 설계는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다.

어디선가 기타를 타는 소리가 들리었다.

《도미썰, 썰씨레, 도미썰, 썰씨레》

같은 음정을 반복하는 기타소리는 봄이의 사색을 여지없이 흐트러놓았다.

그 소리는 오늘밤이 처음이 아니었다.

어떤 날 밤은 그 기타소리가 봄이의 애룩한 추억을 깨여놓곤하였고 잠을 깡그리 몰아가기도 했었다.

때없이 밤늦게까지 울리는 《도미썰》이 봄이에게는 질색이었다.

랑만에 젖어있기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간고하고 거창한 건설장에서 기타소리를 듣는것이 어처구니가 없었고 그것도 일토당토않는 《햇내기》가치는 단조로운 《도미썰》이니말이다.

(기타를 배울곳이 그렇게 없어 여기에 와서 배우냐? 격에 어울리지 않게!!)

그런데 하루밤도 아니고 벌써 며칠밤째 같은 시간에 그 알수 없는 햇내기연주가는 것처럼 미옥스럽게 《도미썰》을 반복하여 봄이의 신경을 여지없이 자극하는것이였다.

(《도미썰》을 타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혹시 그…!)

봄이의 눈앞에는 갑문에 첫발을 들여놓던 때의 일이 삼삼히 떠올랐다....

전차종점에서 내린 봄이가 저만침 걸어가는데 등뒤에서 그를 찾은 웅글은 목소리가 들리었다.

봄이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령장자리가 또렷한 군복을 입은 한 청년이 기타를 들고 걸석걸석 다가오고있었다.

《동문 어데로 가오?》

《갑문예요.》

《나도 그리로 가는 길ियो, 같이 갑시다.》

둘은 나란히 걸었다.

《지원을 가오? 아니면 누굴 찾아가는길ियो?》

기타를 든 청년은 봄이를 힐끔 쳐다보며 물었다.

《대상설계때문에 떠났어요.》

《그렇소? 동문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있구만》

《월요. 줄이나 굿구, 점이나 찍어나가는걸 가지구...》

《하지만 설계가가 그은 선과 점에서 웅대한 창조물이 태동하고있지 않소!》

《...》

《나도 한때 건축설계가가 되보려는 꿈을 꾸었더랬소. 제대될 때 부대에서 건설대학에 추천해주겠다는 걸 단념하고 갑문으로 오는길ियो.》

《...》

다수곶하고 걷는 봄이의 생각은 깊어지었다.

청년의 말은 너무도 큰 무게로 봄이의 어깨우에 내려졌던것이다.

(그렇게 큰 뜻을 품고 갑문건설장으로 달려가는 이 동무가 기타를 들고 가는것은?!)

봄이는 그에 대해 묻고싶었지만 종시 입을 열지못한채 그와 헤어졌었다....

(아니야 보아하니 그 동문 군부대에술선전대에 있었던게 분명해. 그렇지 않다면야 그렇게 큰 포부를 지니었던 동무가 기타를 들고 버젓이 갑문건설장에 나설게 뭐야. 그는 신통히도 배우를 런상시켜주는 미남이였어.

술진 눈썹, 쌍까풀진 큰 눈, 파도가 인 굵실한 고수머리.

선이 굵은 그의 모습을 보면 예술인이 틀림없어.)

《도미썰》은 분명 다른 사람일것이라는데 생각이 뒀었다.

또다시 《도미썰》은 불안한 음정이 창문가에 흘러들었다.

봄이는 종시 선하나 굿지 못한채 밖에 나섰다.

어머니의 편지를 가지고 오빠를 찾아갈 생각에 서었다.

친척간인 오빠인 한때 군부대정치위원을 했었고 지금은 갑문건설돌격대의 당비서로 있었다.

그가 비록 다리면 오빠이긴 하지만 봄이는 친오빠처럼 따르있었다.

어스름달밤이어서인지 별로 마음이 호젓해졌다.

《도미썰》은 퍼그나 멀리에서 들리었다.

쉽없이 울리는 그 소리는 봄이의 마음을 점차 누그러지게 하면서 알수없는 동정심까지 불러일으켰다.

(저런 열정이면 잘할수 있을텐데... 아마 난생처음 타는 모양이지.)

부지중 그는 뛰여가서 음정이라도 바로잡아주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순간 낮은 목소리가 귀전에 쨍 날아왔다.

《미래의 설계가가 기타를 탄다- 괜찮구만.》

오빠였다.

《잘 안됩니다.》

등뒤에서 울려오는 소리에 《기타》가 머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것이 얼핏 보이였다.



《내 누이동생을 붙여줄까- 그랜 기타독주로 대학 생경연에서 시상까지 받았었어.》

《정치위원동지!(그는 병사티를 아직 벗지 못한 것이다.) 좀 지도를 받게 해주십시오. 어데 있습니까?》

《설계실에!》

《어느 설계실에 말입니까?》

《B 지구설계실에 있소.》

《알았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그말에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진 봄이는 불쑥 되돌아서서 오빠가 일을 보는 사무실로 종달음을 났다.

오빠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대학시절에 기타독주로 경연무대에 올라가서 표창을 받은 일이 있었다.

봄이는 밤늦게 집에 돌아온후에도 기타를 한곡 타고서야 잠자리에 들곤했었다.

기타는 그에게 있어서 생활의 길동무이기도 했었다. 그래서 갑문에 오는 날 기타를 쥐고 몇번이나 생각해보다가 어쩐지 멋적은 일로 보여 그만뒀던 것이다.

(이 바쁜 건설장에서 한가하게 기타나 배워주고 있을가. 오빠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

숨가빠 뛰여오면서도 봄이의 생각은 번거로웠다.

그의 뒤를 오빠가 따라섰다.

봄이를 본 오빠는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밀도끝도 없는 말을 불쑥 내던지었다.

《주먹동무를 좀 도와주지 않겠니?》

《주먹동무라니요?》

《아직 이름도 모르고있었니? 네가 갑문에 오는 날 기타를 든 청년하고 함께 왔다고 하지 않았니! 바로 그 청년말이다. 군대에 있을 때 내가 데리고있던 동무야. 기타를 배우느라고 무던히도 애쓰는데 어디 지도해줄 사람이 있어야지.》

《제가 뭘 안다구 주체넘게스리... 게다가 며칠후엔 떠나야 할텐데요 뭐.》

봄이는 오빠의 마음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새면 언제장에 장식 하나라도 더 입히라고 타일러줘야 할게 아닌가!

《그렇다면 할수 있지.》

오빠는 섭섭한 미소를 입가에 그리었다.

봄이는 오빠한테 어머니의 편지를 내보인 다음 선 자리에서 돌아섰다.

그는 걸으면서 마냥 생각에 파묻혀있었다.

《도미쫄》이 그 《기타》였단말인가.

그 며칠후였다.

문두드리는 소리에 뒤이에 설계실에 뛰여든 청년은 굳인겨울모자를 빼딱하니 चे겨쓴 주먹이었다.

설계실에 앉아있던 세사람은 거의 동시에 흠칠 놀라며 그를 살피었다. 가운데서도 누구보다 놀란것이 설계원 강봄이었다.

《어마나!》

그는 두손을 모두어 봉긋한 가슴우에 얹어놓으며 가느다랗게 소리질렀다.

《기타》가 온통 감탕에 게발린 작업복바람으로 불쑥 나타났기때문이었다.

《실장이 누굽니까?》

《나요.》

실장이 그앞으로 돌아왔으며 의혹에 잠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B형부채설계를 어느 동무가 했습니까?》

《왜 무슨 사고라도 생겼소?》

《사고가 생겨야 문젠가요?》

《이건 아닌밤중에 홍두깨격이로구만. 말을 해야 할게 아니요?》

《누가 했는지 좀 알아야겠습니다.》

그 순간 우두커니 서있던 봄이는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것을 알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제가 설계했어요.》

《동무가 부재장에 몇번이나 나와봤댔소?》

《...》

《우리 건설자들이 설계원이 나오길 얼마나 기다린 줄 아오?》

《기타》의 목소리는 저으기 깔리었다.

《동무의 그 <B형부채>설계는 대단히 인기가 있소. 그렇지만 빈구석도 없지 않소. 동무가 현장에 나와서 우리 건설자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설계를 완성했다라면 자재도 더 절약하구 부재도 더 견고하게 칠수 있었을거요. 공사기일도 더 단축하구. 그런데 어디... 이렇게 책상머리에만 앉아서 설계할바에야 옛날 글선비나 다르네 뭘니까?》

어지간히 격해오른 《기타》는 모자를 구겨쥔채 힘하니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를 지키고 서있던 봄이의 눈앞에는 무수한 별찌들이 아물거러였고 설계실이 통채로 빙글빙글 돌아가는듯싶었다.

밤을 이어가며 고심어린 사색을 쏟아부은 그 설계가 평범한 하 돌격대원에 의해서 이처럼 여지없이 무시당한단 말인가!

학교를 졸업한후 봄이는 오늘까지 적지 않은 설계를 해왔었다. 그때마다 그는 침착하고 책임적인 설계로 매번 높은 평가를 받았었다. 로숙한 설계가들도 그를 미래의 유망한 설계가로 지목하게 되었다.

복잡한 공법을 요하는 만년대계의 《B형부채》설계가 그에게 맡겨진것도 바로 그 믿음에서였다.

그런데 설계가도 아닌 그 《기타》때문에 자기가 이런 궁지에 빠지다니!

《기타》의 말을 그대로 믿으려니 자존심이 여지없이 꺾이는것만 같아 참을수 없었다.

그는 자기의 설계가 한치의 드림도 없이 정확하다는 것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푸접없는 그 청년한테 보여주리라는 마음을 굳히었다.

봄이는 한달음에 부재장으로 달려나갔다.

현장에 와당은 그의 발길은 자기도 모르게 툭 떨어졌다.

탐식다충주먹을 방줄케 하는 《1 호 ㅂ형부재》가 거연히 일떠서있는것이 아닌가.

봄이는 자기가 설계한 창조물이 이처럼 빨리 현실로 된것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입가에 그리며 오래도록 그앞에 서있었다.

돌격대원들과 지원자들도 그앞을 무심히 지나지 않았고 찬사를 던졌다.

자기의 설계가 이처럼 인기가 있다는것을 현장에 와서 직접 목격한 봄이의 가슴은 느닷없이 설레이었다.

(그런데 주먹동무만은 왜 외면하는것일까?!)

봄이는 그가 이자리에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그가 어데서 일할가 하고 기중기팔이 숲처럼 일떠선 부재장 여기저기를 살피었다.

돌격대원들은 바다 한 귀퉁이를 빙 둘러막은 언제장안에서 《2 호 ㅂ형부재》를 치려고 감탕바닥을 공고고있었다.

《여 기타! 내려오라구-》

누구인가의 목소리가 길게 울리었다.

봄이는 얼결에 그쪽에 눈을 보냈다.

사령탑처럼 아찔하게 솟은 기중기꼭대기로 쇠장대를 멘 한 청년이 뚜벅뚜벅 오르코있었다.

잠시후 몇어서있던 기중기가 부르릉 몸부림치며 긴 팔을 휘휘 내저었다.

팔을 타고 나간 청년은 끝점에 서서 호각을 불며 무엇인가 지휘하는듯싶었다.

봄이는 한자리에 못박혀서서 눈이 시리도록 그를 쳐다보았다.

빨간 나일론수건이 그의 머리우에서 신호기발처럼 나뭇기었다.

《여! 기타- 설계실선비처녀가 왔네.》

《설계실 미인을 현장에 끌어내오기 수고했는데 저녁에 특식을 차려주겠어!》

《차레줄바엔 맛상을 차려주자구.》

공사장엔 왁자그르 웃음사태가 쏟아지었다.

그들의 익살을 봄이는 탓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가는 그들의 통말속에 어딘가 모르게 반기는 마음이 스며있음을 느끼었던것이다.

봄이는 저도 모르게 그들속에 뛰어들었다.

《자- 삼을 이리 주시오.》

빨강계 익은 두불에 보송털이 보르르한 애송이 전사가 삼을 잡은 봄이앞에 다가서며 넌지시 말을 던졌다.

《부재치는건 걱정하지 말라요.》

《그러다 손에 물집이 생기면 큰일이 아닙니까? 설계원동무가 현장에 나온걸 보기만 해도 우린 막힘이 납니다. 안그렇소? 동무들-》

《더 이룰데 있소. 설계원동무한테 삼을 양보하는 동무에겐 특식이 차례지지는 않을줄 알라구.》

거쿨지게 생긴 다른 전사가 엄포를 놓았다.

《그럼 제가 차례줄게요.》

봄이도 어지간하지 않았다. 그는 헉사리 삼을 내놓으려들지 않았다.

《차 그럴거없이 세손가래질을 하자구!》

어느새 내려왔는지 《기타》가 바줄을 들고 그들새에 끼여들었다.

(홍 날 글선비라구. 자 어땀가! 비겨보자요.)

삽시에 앵도라진 봄이는 주먹이 보라는듯 삽날을 땅에다 쿵 박으며 손잡이를 잡고 섰다.

주먹이는 봄이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봄이가 쥔 삽손잡이를 나꾸쳤다.

《삼을 놓아야 바줄을 떼게 아니요!》

주먹은 대수롭지 않게 삼을 뺏아들고 좌우쪽으로 바줄을 길게 드리우며 삽모가지에 훑아냈다.

《자-》

억척같이 삼을 부여잡은 주먹은 앞에 서있는 두전사를 보고 소리질렀다.

《아이 이런 법이 어데 있어요?》

《동무가 나와줬으면 한건 우리 일을 도와달라고 그런게 아니요. 동무야 설계원이 아니요! 부재치는건 우리가 할 일이구...》

봄이는 주먹의 통명스런 말이 또 자기의 설계를 상기시키자 방금까지 가벼웠던 기분이 삽시에 흐려졌다.

(확실히 아직도 동무들의 찬사를 듣지 못했음이 분명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 호 ㅂ형부재>를 보고 감탄했었는가.)

그는 설참에 대중들의 목소리로 그를 납득시키리라 마음먹었다.

《휴식합시다.》

이윽고 휴식구령이 내리자 돌격대원들은 언제우로 옥 밀려갔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꺼낼가 하는 생각에 잠겨 그들의 뒤를 따라가던 봄이는 다들 가까이와 달라는 주먹의 부름소리를 들었다.

여기저기 흩어지던 동무들이 봄이를 가운데 두고 빙 둘러치 앉았다.

봄이는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1호 B형부재>를 쳐보니 어때요? 다들 좀 건설적인 의견을 제기해줘요.》

《뭐 특별히 의견이랄게 있습니까? 설계원동무가 이런 방대한 설계를 했다는데 감탄했을뿐입니다.》

애송이전사가 첫마디를 뱉다.

《물론 그 설계를 제가 맡긴 했어도 저 혼자 한것 아닙니다. 여러 설계집단의 방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육중한 부재가 물에 뜰수는 있습니까?》

《바다에 끌어내가야 할텐데 뜨지 않으면 되겠나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면야 무슨 의견이 있겠습니까.》

전사들은 한결같이 그의 설계에 감탄을 금치 못해 하였다.

봄이는 주먹이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리라는 일종의 만족감으로 자기를 위안하며 뒤를 눌렀다.

《좋다구만 말구 의견이 있으면 다 말해주세요.》

그들속에서는 누구도 의견을 내놓는 사람이 없었다.

웅성하던 휴식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가 말하지요.》

삽자루를 깔고 앉았던 주먹이가 벌떡 일어섰다.

《바닥두터이와 간막이 두터이에 대해서 설계원동문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봄입니다. 부재의 바닥은 바다밑면에 부착할 부위가 아닙니까? 그리고 간막이는 물살의 타격을 직접 받지 않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과 간막이 콘크리트는 현재두터이보다 3분지 1 정도로 축소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력학적인 계산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처음에는 모르겠더니 다 쳐놓고보니 그런 생각이 든단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삽질을 하는 품도 덜수 있겠구만.》

누구인가 주먹의 말에 나래를 달았다.

《세멘트와 강재는 또 얼마나 절약하게 될텐가.》

《지금보다 훨씬 가벼울테니 바다물에 띄우기도 대단히 쉬울게 아니야.》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인데...》

그날밤 설계실에 홀로 남은 봄이는 밤이 깊도록 생각에 파묻혀있었다.

만일 《기타》가 설계실에 뛰어들지 않았더라면 오래동안 현장에 나가볼 용단을 내리지 못했을수도 있었을 것이다.

현실에 발을 붙이려는 자세가 똑바로 서있지 못할 때 아무리 과학적으로 타산된 설계라 할지라도 빈구석이 있기마련이며 시대와 조국 앞에 엄중한 후과를 빚어낼수 있다는것을 봄이는 가슴으로 받아안았다.

그는 현실이야말로 《생활의 교사》이며 《스승》이기도 하다는 그 어느 소설에서 본듯한 대사가 생각났다.

바로 자기를 이 《교사》에로 끌고간것이 《기타》였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가슴이 차분히 젖어드는 것이었다.

...

《결국 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것이 그때부터였구나.》

《아니 그렇지도 않아. 너한테 늘 말해왔듯이 나아지성인을 동경해오지 않았니? 그런데 그렇게 육육하는 사나이가 마음들었을까 뭐야!

어느덧 내가 맡은 설계도 마감단계에 들어섰구 며칠후면 도면을 시공부에 넘겨주고 본소로 돌아가게 되었어...》

이야기는 다시 아지를 치고 미구에 넋쿨을 올릴것처럼 열기를 띠었다.

## 2

봄이는 귀로에 올랐다.

그루잡에서 갠 때문인지 피곤이 온몸에 실리였지만 그는 내치 걸었다.

봄이는 청춘시절의 한 부분을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인 남포갑문건설장에 바쳤다는 자부심을 안고 고즈넉한 새벽길을 걷고 또 걸었다.

그새 귀밑머리에 하얀 서리가 더 내려앉았을 그리운 어머니의 모습이 항상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고향집처마밑에 매달아놓은 비둘기장에서 자기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구구거릴 비둘기들의 울음소리가 금시 귀전에 날아오는듯싶었다.

어느덧 그가 십여리길을 걸어나왔을 때였다.

마주 다가오던 차주호가 스칠듯이 그의 옆을 지나더니 빼익 벗어섰다.

거기에는 별로 관심하지 않고 스적스적 걸음을 옮기던 봄이는 자기를 찾는듯한 소리에 주춤 돌아섰다.

온통 얼굴에 흙먼지와 땀으로 얼룩이 진 《기타》였다.

자기도 모르게 측은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던 봄이의 가슴은 조용히 설레이었다.

설계때문에 부재장에 처음 갔다온 후로부터 봄이는 짬을 타서 부재건설장에 나갔고 또 거기에서 늘 어려운곳마다 먼저 뛰어들군하는 주먹이와 만나곤 하였다.

그런데 요사이엔 떠날 준비로 바빠 보내다보니 건설장에도 나가지 못하다가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다.

봄이는 반갑게 인사를 나눈 순간 마치 자신이 그를 기다리길라도 한것처럼 생각되어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오래간만에 그를 만난 봄이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할수 없는것이 좀처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던것이다.

《영 떠나오?》

《예, 가서 편지하겠어요. 혹시 또다시 오게 될지도 모르지요.》

《기다리지 않겠소. 언제보나 <계절조>는 봄날에만 찾아들더군요. 잘 가오.》

주먹은 무슨 말인가 하려다 말고 오던 길을 되돌아서 격석격석 뛰어갔다.

이윽고 차는 떠났다.

못박힌듯 선채로 멀어져가는 차를 바라보는 봄이의 가슴은 무겁게 처져내리었다.

《계절조!》

그말이 창끝처럼 가슴에 박히었다.

(과연 내가 《계절조》란말인가?! 나는 내앞에 부과된 임무를 성실히 끝내고 버젓이 나선 걸음이 아닌가. 그런데 저 동문 처녀의 심정을 너무도 몰라줘. 어쩔 그렇게 모진 말을 내뱉을수 있을까?!)

봄이는 눈곱에 물기가 땡 돌았다.

생각할수록 억울했다. 가슴이 아팠다.

가슴에 쇠조각처럼 박힌 그 말을 그대로 두어두고는 한결음도 걸어나갈것 같지 못했다.

그가 무엇때문에 자기보고 계절조라 했는지 그 읊매여진 매듭을 풀지 않고는 떠날수가 없었다....

그는 하루 묵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그를 만나서 가슴을 헤쳐보이리라며 그길로 갑문에 도로 들어왔다.

일요일이어서 건설장에서는 휴식을 하고있었다.

주먹이를 찾아 건설장으로 돌아온 봄이는 그가 기타를 들고 언제장쪽으로 나가는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줄곧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었다.

바다로 쭉 내불린 도래굽이에 에어린 나무들이 보초병처럼 우뚝우뚝 서있었다.

황혼이 드리운 언제우를 묵묵히 걸어가는 봄이의 가슴은 느닷없이 설레이었다.

멀리 휴언제장 끝점에서 기타소리가 들리었다.

《기타》는 바다쪽을 향해 온몸으로 활시위를 굿듯이 언제우에 한모양새로 앉아있었다.

봄이는 종잡을수 없는 마음에 이끌리어 조용조용 걸어갔다.

이윽고 등뒤에 와서 벗어선 봄이는 잠시 머뭇거리었다.

그러나 언제나 이렇게 서서 기다릴수 없다고 마음을 다잡은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쉬는날인가보지요?》

《...》

저쪽은 반응이 없었다.

봄이는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얼굴이 화끈 달아오름을 어찌할수 없었다.

그는 이마우로 달칵 미끄러져내린 머리칼을 가볍게 쓸어넘기며 또다시 물었다.

《저- 한가지...》

모진 마음을 먹고 돌아온 봄이는 마음속에 엉킨 매듭을 풀려고 입을 열었으나 종시 뒤말을 사리었다.

그는 장석을 입힌 언제우에 트렁크를 내려놓고 우두커니 서있었다.

《대형철배!》

《기타》는 뒤라없이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는것이였다.

한동안 바다쪽에 눈을 주고있던 봄이는 그 소리에 《기타》쪽으로 돌아서며 물었다.

《철배가 어떻게 되였나요?!》

그제야 《기타》는 등뒤로 얼굴을 돌리었다. 그리고는 언지시 미소지었다.

《난 또 누구라고... 바다가 좋지요?》

주먹은 《계절조》라고 푸접없이 쏘아부었던 일은 감감 잊은 모양이였다.

그래서 봄이는 묻고싶었던 매듭을 뒤로 밀어놓으며 건성 대답했다.

《그러문요.》

《남포갑문!》

주먹은 웨치듯 소리치며 기타를 한손에 들고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마치 시인이나 되는듯이 걱정을 터뜨렸다.

《인제 우리가 저 날바다를 막아놓으면 이 언제우에 서해지구를 편결하는 광궤철도가 놓이게 되고 자동차의 긴 행렬이 경적을 울리며 마주 오갈거요.

청춘남녀들이 휘황한 꿈을 안고 록음이 우거진 유보도를 거닐것이며 유람선의 경쾌한 동음이 물결에 실려 수도로 달리게 될테지. 대동강은 인공호수로 변하게 될거구 서해간석지엔 생명수가 철철 흘러넘칠거요. 갑실로는 큰 짐배가 오르내릴거구 대동강호수엔 고기떼가 욱실거릴거요.

갑실이 준공되는 날 우리 건설자들은 건설장에 동원된 수백척의 배를 타고 편대를 지어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승리의 자랑찬 보고를 올리게 되겠지. 그날 수령님께서 갑실의 붉은 테프를 끊으시면 우리 건설자들을 실은 첫 려객렬차가 지나가게 될테지.

정말 그날을 그려보면 저 600 만산도 단숨에 들어다 바다우에 꿰어앉힐것만 같소.》

《...》

봄이는 말이 없었다.

자기가 돌아선것은 과연 무엇때문이었던가. 자기의 자존심을 풀대처럼 꺾어버린 이 푸접없는 청년한테서 잘못했다는 사과를 받고 그것으로 가슴의 상처

를 말끔히 가서버린후에 떠나려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 그앞에서 그런 말조차 꺼내기 힘든것이 이상했다.

그는 애초의 마음을 수습해보려고 애썼으나 그럴수록 낮은 그의 말에 빠져들어가고있었다.

《앞으로 일떠설 갑문언제우에 얼마나 빛나는 위훈이 새겨졌고 수많은<별>들이 조국의 고임돌이 되어 갑실과 언제를 떠받들고있을것인가를 생각해보우.》

《...》

《령하 삼십도를 오르내리는 흑한속에서도 우리 잠수공들은 얼음구멍을 내고 수십메터 바다밑에 내려가서 작업을 했소. 조수에 밀려온 산더미같은 얼음산을 까내는 전투는 또 몇번이었소. 감탕우에서 얼음산과의 전투를 벌리느라고 밤낮을 이어대서도 하루에 휴언제가 불과 이삼메터도 나가지 못한 날들이 수없이 많았지.

그땐 언제면 첫 기적소리를 들어보나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언제우에 혈맥처럼 철길이 뻗어나가고 있지 않소. 그런데 걸린건 내가 잡은 이 기타요.

갑문이 준공되는 날 배우에서 멋지게 타보자는 건데 마음같이 안되누만.》

주먹은 더수기를 굵적거리었다.

《내가 이런 꼴을 하고있는걸 보면 우리 중대장이 대다니 노여워할거요.》

《그건?》

한동안 생각에 파묻혀있던 봄이는 길다란 속눈썹을 가볍게 치켜올리며 물었다.

《내가 부대를 떠나오던 날 중대장이 나한테 이 기타를 안겨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주먹은 군사복무의 나날에 사격도 잘했었구 훈련과 생활에서도 언제나 모범이었소. 그러나 동무는 병사시절을 최우등으로 졸업하지 못했소. 노래를 부르라면 늘 뒤꽂무니부터 찾구, 노래없는 생활은 피가 끓지 않는 심장과도 같은거요... 내가 무슨 강연을 하겠나?

그런데 뭘 기념으로 줄가? 오, 이 <기타>를 가지고 가라구. 바다생활에서야 얼마나 어울릴텐가.>

우리 중대장은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소. 설사 아들이 있었다 해도 이 기타처럼 아끼지는 않았을거요. 그런걸 나한테 안겨주었던말이요.

중대장의 기대는 컸지만 보다싶이 나는 오늘까지도 노래 한곡 제대로 타지 못하고있지 않소.

밤마다 <도미쫄>을 연습하곤했소.

얼마나 힘들게 음정을 익혀왔는지 동무는 모를거요.

내가 기타의 음정을 하나하나 익혀왔듯이 바다를 가로막는 공사도 한치한치 뚫아가는 여간 어려운 전투가 아니었소.

내가 노래를 제대로 타자면 아직도 많은 날들이 흘러가야 할거요,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지.

그러나 우리 전투원들은 기어이 날바다를 막아낼거요. 그날엔 나도 노래를 타게 될거구.》

주먹은 잠시 깊은 명상에 잠겨있었다.

썩-치절썩

곧추 달려온 파도가 언제에 안기며 길길이 비발을 휘뿌리었다.

얼결에 한걸음 뒤로 물러선 봄이는 손수건을 꺼내서 얼굴에 튕겨진 쭈뼛한 물방울을 찍어냈다. 그러나 주먹인 끄떡없었다.

《며칠후엔 가물막이공사를 위한 대형철배를 남포 앞바다에서 끝살뿌리에 끌어다 앉히는 첫 전투가 벌어지오.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린줄아오.

사내대장부가 이런 때 심장을 내대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될게 아니겠소. 그런데 쟁쟁한 이 주먹이를 알아주려는 사람이 있어야지. 난 연공두 아니구 잠소공두 아니라구 전투서열에 세워주지 않는단말이요.

누가 한사코 반대한줄 아오? 동무 오빠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동무 오빠란말이요. 오늘밤엔 결판을 내고야말겠소.》

《...》

(그랬됐구나.)

그제야 봄이는 방금전에 그가 《철배!》하고 소리치던 일을 되새겨보았다.

그의 눈앞에는 산같은 대형철배를 수십리 날바다에 끌어다 가물막이공사장에 앉히는 영웅적인 인간군상들이 방불히 떠올랐다.

그는 자기가 철배조립설계에 얼마간 기여했다는것을 말하려다 말았다.

이 불같은 청년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것이 너무도 먼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었던것이다.

그가 바라것은 과연 무엇이였었는가!

그는 자기앞에 환히 열린 《포장길》도 마다하고 감탕내 풍기는 여기 갑문건설장으로 달려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나는?

이 순간 봄이는 자기를 《제철조》라고 닮은 그의 말이 너무도 웅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국의 맥박을 심장으로 느끼고 어려운 돌파구를 앞장서 헤쳐나가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청년들이 아닌가!

자기앞에 가장 높은 요구를 제기한 봄이는 바로 자기가 서야 할 위치가 가슴속에 깊숙이 뿌리내리는것을 절감하였다.

그는 잠시 뒤로 미루려던 마음을 영영 눌러버린채 입을 봉하고말았다.

주먹이와 헤어진 봄이는 그달음으로 오빠를 찾아갔다.

《네가 그를 동정하지 않아도 주먹인 내가 잘 알지. 그런데 나는 며칠전...》

이렇게 허두를 댈 오빠는 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얼마전 그가 잠수훈련장에 나갔을 때였다.

뜻밖에도 거기에 주먹이가 와있었다.

《동무가 어떻게?》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차 이거 비서동지한테 망원경을 드려야겠군요. 주먹동문 몇달째 쉬는날마다 우리한테 뛰어와서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잠수부들은 바다물밑에서도 기타소릴 들었는데 비서동진 듣지 못한 모양이군요.》

잠수공들은 저저마다 익살을 부리었다.

《너석두 그몸을 가지구.》

당비서는 그의 잔등을 철썩 갈기며 손에 끼였던 양털가죽장갑을 주먹이앞에 내밀었다.

《마음만 가지구야 되나? 몸이 튼튼해야지. 그 몸에 손까지 얼구어놓으면 끝장이야 어서!》

당비서의 눈굽은 뜨겁게 저려들었다.

불비속을 뚫고 화선천리를 넘나들며 한 전사의 입당청원서에 세포비서로서 수표를 하던 그날부터 당비서라는 수표를 하고있는 오늘까지 삼십년이 넘도록 당사업을 해온 자기가 아닌가?!

한 전사를 당에 받아들이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며 결론을 기다리는 한 일군이 저지른 파오를 두고 며칠 밤 새운 일은 그 얼마였던가?!

언제나 남들을 다 퇴근시킨후에야 사무실의 마지막 창문을 닫고 나왔고 늘 남먼저 출근했었다.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었어도 사람문제를 두고 가슴을 적시었다.

그는 밑의 사람들이 쉬거나 잠잘 때도 자기만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자기가 쪽잠에 들었을 때조차 일을 하는 당원이 있다는것을 미처 몰랐던것이다.

주먹은 뛰어난 인물도 아니었다.

위훈이 불길처럼 타번지며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인물은 더욱 아니었다.

대원들이 언제장에 있을 때엔 그도 있었고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면 언제나 구석쪽에 보이었다.

당비서는 주먹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병사시절에 다 몰랐던 그를 갑문건설장에서 더 깊이 알게되었던것이다.

봄이는 오빠가 여쭙던 이야기를 고스란히 은희에게 쏟아부으며 머리를 젖히고 파아랗게 열린 하늘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제비가 깃을 치며 하늘높이 나날었다.

그의 눈빛에서 이름할수 없는 그 무엇을 읽은 은희도 한동안 명상에 잠겨있었다.

### 3

가물막이공사에 침강시킬 대형철배를 교 항에서 수십리 떨어진 끝살뿌리에 끌여가는 첫 전투가 벌어졌다.

끝살뿌리전투장에서는 어둑새벽부터 군악대들과 기동선전대원들이 렬을 지어 서있었고 사진사들이 대형철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봄비였다.

세계 수리공학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간고한 전투인 여기에 조국의 모든 눈들이 쏠리었다.

탐식고층건물을 방불케 하는 원통뭉음식 대형철배는 각도가 조금만 기울어져도 통채로 바다에 처박힐 위험성이 있었던것이다.

철배우에는 해군지휘관이었던 오십대의 선박부장을 조장으로 하는 이십여명의 전투원들이 편성되었었다.

관공이 톱 붙어진 선장과 눈이 억실한 서해항만기사, 머리를 바투 취울린 날과람있어보이는 해상부대 중대장과 구레나룻인 추로측정원, 그리고 젊은 전투원 변조종사들이 대렬을 지어 철배우에 올랐다.

전투원들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자기 위치를 차지했다.

그런데 배우에서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싸움》이 벌어졌다.

그것은 전투조에 이름이 없는 한 청년이 몰래 배에 올라탄것이 발견되었기때문이었다.

《동문 뭐요?》

바다쪽을 향해 철배 한쪽 귀퉁이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 선박부장이 소리질렀다.

《보면 몰라요. 갑문전투원이지 누구겠습니까?》

그는 약간 몸을 뒤로 젖히며 앉은채로 대답했다.

《그런데 왜 올랐소?》

《가물막이전투장에 가보고싶어서요.》

청년은 머리를 곧바로 쳐들고 뜨적거리었다.

《동문 이 배가 려객선인줄 아오?》

《려객선은 아니더라도 명색이 배가 아닙니까?》

《차 이동무 봐라- 이건 배가 아니라 날바다를 막는 대형구조물이란말이요. 구조물! 각도가 좀만 기울어져도 어떻게 되는지 알기나 하오? 통채루 바다물에 처박히구만단말이요. 알아들었소!》

《여 이건 생명을 내대야 하는 전투야. 보아하니 동문 총각인것 같은데 사람이 할일을 다 못해봤을게 아닌가. 어서 내리라구.》

나이 지숙한 수로측정원이 붙는 불에 키질이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청년은 배에 뿌리내린듯 끄떡없었다.

《바다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두 내한텐 못견딥니다. 이제 두고보시우. 저 날바다를 내가 강아지 다루듯하지 않나...》

그는 여간 능청스럽지 않았다.

《가만있자. 동무가 우리 전투조에 망라시켜달라고 비서동무를 못살게 굴었겠소?》

한동안 우두커니 서서 그의 거동만 살피던 선박부장이 저으기 누그러진 목소리로 물었다.

《예.》

《동무였군. 그런데 그건 뭐요?》

《기타입니다.》

조각상처럼 부동자세로 앉아있던 청년은 슬쩍 기타를 들어보이였다.

《그래 첼배우에서 기타나 탈 생각이였겠소?》

《그러므로. 배우에서야 노래가 흘러나와야 할게 아닙니까?》

《허참 한심한 청년이군. 아무때나 부르는게 노랜줄 아오? 동무가 일단 배우에 오른 이상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단말이요! 그런데 기타나 들고다니는 꾀대기를 어떻게 책임지겠나?》

《손에서 기타를 놓으면 주먹이가 아니지요. 이 경사스러운 날에 대교향곡이 울려야 할게 아닙니까? 짐이 되지 않을테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너울가지가 좋은 그는 병긱병긱 웃으며 빈정거리었다.

《부장동지, 데리고 갑시다.》

젊은 중대장이 그를 두둔해나섰다.

《오늘은 내가 양보하지. 하지만 미리 경고할건 배우에서는 절대로 기타를 타서는 안되오. 이 전투가 어느만큼 간고하리라는걸 각오해야 한단말이요. 그런데 기타소리가 울리면 어떻게 되겠소? 전투원들의 긴장이 풀리게거던. 그때엔 끝장이요. 알아들었소?》

《원 알다뿐이겠습니까?》

주먹은 귀여운 어린애를 부둥켜안듯 기타를 꼭 끌어안았다.

뜻밖에도 또 한사람이 배우에 오르고있었다.

못시선이 그한테로 돌박히였다.

《제길할 동문 또 뭐요?》

눈이 켜해진 선박부장의 목소리였다.

《설계원이예요.》

《그런데?》

《이 첼배변조종설계를 제가 맡았했어요. 현장에 가 봐야 할게 아니예요.》

변조종설계까지 이미 끝내고 귀로에 올랐던 봄이는 다시 언제장에 돌아와서 주먹이를 만나 다음 줄곧 첼배조립장에 뛰여갔었다.

그는 조립공들속에서 며칠을 보냈고 첼배가 떠나 는 날 함께 가리라는 마음을 굳히었던것이다.

《젠장 오늘은 무슨 불청객들이 이리도 많아.》

부장은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해하였다.

《데리고 가오. 설계원이 바다바람에 저는것도 나쁘지 않지.》

밀에 서서 첼배를 지켜보고있던 당비서가 웃음띤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윽고 거목처럼 첼배꼭대기에 발을 번디디고 선 부장이 대공송화기를 입가에 가져다대고 앞과 좌우 쪽 끝배선장에게 출발명령을 내리였다.

첼배가 움썰 몸부림쳤다.

부두에 물결쳐온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고 손저어 바라왔다.

봄이는 머리에 얹혀놓았던 빨간 나이론수건을 하늘높이 추켜들었다. 그것은 해불마냥 첼배꼭대기에서 타오르고있었다.

산같은 첼배는 물때를 따라 천천히 교항을 벗어나지였다.

첼배는 당장 바다물소에 곤두박질것처럼 선체를 기우뚱거리였다.

그때마다 사람들의 몸에는 살얼음이 끼얹혀지곤 했다.

항만기사는 배의 각도를 살피느라고 한순간도 자리에 앉아 배기지 못했다.

전투원들은 팽이돌듯했지만 원통기둥란간에 서있는 두 젊은이만은 너무도 태연하였다.

《다시 돌아올줄 알았소.》

주먹은 넌지시 봄이를 쳐다보았다.

《새삼스레 그 이야긴... 그날 언제장에서는 알은척도 않으시더니...》

봄이는 일부러스럽게 눈을 할기죽거리며 상그레 미소지었다.

《뭐 할소리가 있어야지.》

《전 정말 아팠어요. 그런데 어쩔 그렇게 태연할수 있었어요?》

《내가 뭐라고 했던지...》

주먹은 빙그레 웃었다.

《아이 참.》

봄이는 이마우로 미끄러져내린 머리칼을 가볍게 쓸어넘기며 볼우물을 지었다.

《정말 미웠었어요.》

《그럼 지금은?》

《지금도 역시!》

《그럼 같이 가지 못하겠군.》

꽃이파리같은 봄이의 엷은 입수레 그윽한 미소가 어리였다.

《내내 싸우면서말이지요?》

주먹은 자르듯 말했다. 그리고는 웃었다.

《그러므로.》

봄이의 길다란 속눈썹밑에서 별빛같은것이 부서지였다.

짜- 처절씩  
 검푸른 물결이 배전을 들부시었고 갈매기가 파도를 차며 선미에서 날아왔다.  
 배는 몸부림치듯 파도를 헤가르며 흰거품을 비단 깃처럼 날리었다.  
 뽀얀 비발이 얼굴에 휘뿌려졌으나 두 젊은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에 여념이 없었다.  
 《바다가 좋지요?》  
 주먹은 넉없이 바다를 지켜보며 말했다.  
 《그러문요. 그래서 바다를 청춘의 활무대라 부르는 거겠지요!》  
 《그럼 갈매기는?》  
 《갈매기는 바다의 기상이구요. 저것 보세요. 저 작은 새가 바다를 차지 않아요.》  
 봄이의 눈길도 주먹이를 따라 바다로 달리었다.  
 《그래서 갈매기는 한겨울에도 끄떡없이 바다를 떠나지 않는 모양이지!》  
 주먹은 누구에게라 없이 자기의 마음을 쏟아부었다.  
 《...》  
 묵묵히 바다를 지키고 서있는 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우리 나라 정말 아름답지요?》  
 《그래요. 바다에서 보는 조국의 모습은 더 아름다와보이누만요.》  
 《미래의 조국은 또 얼마나 더 아름다와질테요!》  
 주먹은 기타의 건반에 손을 얹어놓으며 힘주어 말했다.  
 고향을 떠난 철배는 어느덧 멀리 해상으로 달렸다. 바다위에 등실하니 솟은 파도가 아스라니 바라보이였다.  
 안개가 자오록이 피어올랐다.  
 섬이 가까와질수록 수심은 점점 깊어지였다.  
 갑자기 바람이 일며 짙은 안개가 온통 바다를 뒤덮었다. 파도는 금시 배를 삼켜버릴것처럼 태질을 했다. 하늘에서 검은색 물감덩이가 떨어져내린듯 바다는 검은빛을 띠었다.  
 어느새 섬은 안개속에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동안을 두고 올리던 선박부장의 지휘구령이 점점 높아지였다.  
 철배는 금시 바다물속에 처박일것처럼 온몸을 비틀었다.  
 파도는 천군만마처럼 밀려들며 아우성을 쳤다. 지척을 본간키 어렵게 사위는 캄캄하였다.  
 《이거 심상치 않은데... 폭풍우요!》  
 《부장동무! 위험합니다. 배를 돌려세웁시다.》  
 누구인가의 목소리가 편이어 쟁쟁 울리었다. 그러자 그 말에 깃을 다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좋겠수다.》

《뭐요? 우리가 어떻게 헤쳐온 길인데 돌아선단말이요!》  
 부장의 목소리는 저으기 갈리었다.  
 《우리가 뭐 제목숨 하나 두려워서 그러는줄 압니까. 이게 어떻게 무어진 뱀니까?》  
 《조수가 덮칠듯이 밀려드는데 어떻게 맞받아나간다고 그러니까? 이젠 덤불을 지고 불속에 뛰여 드는 거나 같지 않습니까?》  
 《...》  
 한동안 머춤해 서있던 부장은 천천히 송화기를 입가에 가져갔다.  
 《정지!》  
 이윽고 앞에서 달리던 대형글배가 점점 속도를 죽이였다.  
 《도미썰, 도미썰.》  
 어디선가 거세찬 바람을 뚫고 기타의 소리가 조용히 울려왔다.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한 너무나도 평범한 기타소리는 마치 고요한 정원에서 호기심이 많은 어린애가 기타줄을 튕겨보듯 무질서하게 울렸다.  
 《이 친구가 종시 일을 칠러는가보군. 동무 정신있소!》  
 부장은 성이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랐다. 그러나 주먹은 끄떡없이 한모양새로 음정을 맞추고있었다.  
 봄이는 안타까이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무슨 말로 그를 타일러야 할지 종잡을수가 없었던 것이다.  
 설계실의 그 밤에 그토록 기분을 잡치게 하던 《도미썰》이였다.  
 그 《도미썰》이 생사를 판가리하는 이 준엄한 시각에 바다우에서 또다시 울릴줄은 천만뜻밖이였다.  
 (과연 저 동무는 무슨 심장을 지녔기에 저다지도 여처구니가 없었을까?!)  
 짧은 한순간이 지나갔다.  
 봄이는 자기가 그를 제기시켜야 하리라는 단호한 결심을 내리며 그앞으로 한걸음 다가섰다.  
 그 순간 주먹은 머리를 버쩍 추켜들고 일어서며 기타의 여섯줄을 한뼘만에 튕겼다.  
 가렬한 전투의 저기 저 언덕  
 ...  
 가슴을 짝 퍼고 온몸을 들썩거리고 주먹의 눈에서는 푸른 섬팡이 일었다.  
 기타소리는 더욱 고조되였다. 사뭇치는 파도에 휘말리기도 하고 맞받아 일어서기도 하며 장엄한 파도에 실려 바다위에 힘있게 미끄러지였다.  
 화석처럼 굳어져 서있는 봄이의 가슴은 조용히 부풀어올랐고 끝없는 걱정으로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방금전까지만도 설계실의 그 밤을 되살려주던 그  
가 아니었던가.

주먹은 이 순간을 위해 《도미쫄》의 지루한 그밤  
들을 오늘로 이어온것일까?!

모든것이 불타고 재더미만 남은 고지우에서 전사  
들을 최후결사전으로 불러일으킨 이름없는 영웅의  
기타소리를 가슴에 안으려는것이였을까?!

중대장은 그것을 바라고 갑문건설장으로 달려가는  
그에게 기타를 안겨주었을것이다.

주먹은 중대장의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있기에  
그처럼 모대겼을것이 아닌가!

그가 지금 타고있는 기타소리가 단순한 음악처럼  
들리지 않았다.

어쩐지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쳐주고  
이어주는 진군나팔소리같았다.

전투원들의 저 눈빛을 보라!

공포와 불안으로 가슴조이던 그들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지금 그들은 기타의 선율에 맞추어 하나같이  
노래를 부르고있지 않는가.

자기가 처음 도미쫄을 연습할 때 눈앞에 떠오른것  
은 경연무대였었고 꽃다발의 환영이 힘겨운 나날을  
이겨내도록 해주지 않았던가.

그런데 주먹은?!

이윽고 부장의 구령소리가 쟁 하늘에 메아리쳤다.

《좌로 중속 우로 미속 전속 앞으로!》

철배가 움쉴 몸부림쳤다.

바람은 금시 배를 뒤집어엎을듯이 기습을 부리었  
고 파도는 태를 쳤다.

했으나높이 울리는건 《들었는가?》 《알았다!》  
라는 웨침소리와 기타의 장쾌한 선율이였다.

드디어 철배는 끝살뿌리에 이르렀다.

기중기배가 가까이 다가왔다.

바람은 미친듯이 몸부림쳤다. 파도는 더욱 세쳤다.  
대형끌배가 기중기배에 바줄을 던졌다.

전투원들이 바줄을 잡아 고정못에 걸려는 순간에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순간 파도가 산더미같이 일며 바줄을 벗겨버리었  
다.

결계바줄을 바다물속에 흘려버린 철배는 파도에  
실려 망망한 바다로 밀려가기 시작했다.

순간 주먹은 기타를 봄이의 가슴에 휘뿌리듯 안겨  
주었다.

《부탁하오!》

그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바다물속에 침병 뛰어들  
었다.

《주먹동무-》

봄이는 목놓아 그를 불렀다.

주먹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바줄을 잡으려고 바다  
밑으로 더 깊숙이 몸을 잠그었다.

사품치는 파도는 봄이의 절절한 부름마저 사정없  
이 삼켜버리였다.

철배우에 서있던 전투원들도 그의 뒤를 이어 바다  
물속에 뛰어들었다.

그런한 눈길로 바다를 지켜서있는 봄이의 가슴에  
는 방금전에 그가 남기고 간 그 말이 천만근의 무게  
로 울려오는듯싶었다.

그는 기타의 짚을판을 꼭 부여잡았다.

이윽고 기타의 장중한 메아리가 바다에 울려퍼졌  
다.

썩- 처절썩!

파도는 쉽없이 선체를 들부시였다.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까?! 그리고  
그는 어디에 있는것일까?!

생활의 기슭에서나 아니라 들끓는 현실에 발을 튼  
튼히 붙이고 설 때 그리고 자기를 인간으로 부단히  
수양해나갈 때만이 가장 성실하고 승고한 사람을 만  
나게 될것이다.

리상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 들기전에 우선 자기를  
더 높이 세우라!

봄이의 가슴속에 바로 이러한 생각이 깊숙이 뿌리  
내려진것은 이때였다.

X

봄이는 시계를 보았다.

《아이 어쩔 좋니? 빠스시간이 지났구나.》

그는 자리에서 움쭉 일어서며 어린애처럼 발을 굴  
렀다.

《차라리 잘됐어. 룩십리라고 했지. 걸어가자마. 얼  
마나 좋은 마가울 밤길이니!》

은희가 뒤따라 일어섰다.

《...》

은희는 너무도 목직한것이 가슴에 젖어들어 다수  
곳이 머리를 숙이였다.

이윽고 둘은 천천히 걸었다.

은희는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는 인제 돌아가서 봄이 어머니에게 무엇을 이야  
기해줘야 하리라는 확고한 결심을 다지며 밤길을 걷  
고 또 걸었다.

## 추억 외 1 편

김 병 만

우리 형제 여섯중에서  
다섯이 전선에 나갔었다  
나이 못찬 막내만이  
집에 남아 어머니를 돕고

전승의 축포 오르던 날  
말형은 돌아오지 못했다  
어머니를 위로하고싶은 마음들이  
두리반 그득하니 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강직한 우리 어머니  
그 많은 혼장자랑에 앞서  
말형의 사진을 꺼내놓으며  
모여온 이웃들에게 말했다

-이게 우리 집 만이라도  
은덕을 잊지 않던 녀석이니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구려  
장군님 만세를 웨치며 갔다오

그리고는 공지에 찬 눈길 들어  
좌중을 둘러보는 어머니  
마지막 말에 힘을 주었다  
-로동당원이었다오

오, 잃은 목숨보다  
빛내인 삶이 귀중하기에  
어머니는 그러히도  
-훌륭한 아들에게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는 법이라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금은 내가 자식들을 키운다  
공세우라는 말에 앞서  
의리를 지키라 훈계하며

아, 위대한 수령님 받들어  
당을 따르는 혁명의 길에서  
내가 어머니를 추억하듯  
자식들 나를 잊지 않기 바라는 마음뿐...

## 아버지의 말

하루일 끝낸 저녁  
온 집안식솔  
텔레비죤화면앞에 다 모인  
즐거운 저녁

바뀌는 화면속에  
일곱살난 총각아이  
손풍금을 타며 웃고  
별의별 재간 다 부리며  
달덩이처럼 웃고

그 광경 바라보는  
신살 넘은 나는  
어느덧 눈굽이 젖고  
그 나이 그 시절  
풀피리 불어 설음삭이던  
지난날의 목동아이  
나는 그만 눈물을 쏟고

언제봐도 아버지는  
눈물이 헤프더라고  
찍하면 핀잔인  
아들딸 세 남매  
화면속의 군중과 함께  
손뼉 보내며 웃고  
안해만이 나를 따라  
조용히 눈굽을 째고

아, 은혜로운 해발아래  
일곱살난 어린것의 미래  
구만리로 창창내다보이고  
신살 넘은 나의 과거는  
천길 나락길이 되살아나고...

회憶하기조차  
몸서리쳐라  
소꿉머슴으로  
꿀꿀 찾아 헤매이던

메마른 등판엔  
왜 그리도 많던지

얼기설기 엉킨  
가시돋친 넋출  
송곳처럼 날이 선  
목은 쑥그루터

사정없이 굽히우고  
턱없이 찢리워  
붉은 피 랑자하던  
나의 예린 좋아리  
나의 벗은 맨발...

아, 내 지금은  
다 자란 아들딸  
그췌한 세 남매  
옆에 앉혔으니

그들에게 물려줄것  
가산이던가

아니여라  
아니여라  
그들의 가슴속에  
지나간 그 세월  
내 받은 천대  
내 겪은 설움  
망국의 피어린 수난사  
제것처럼 안도록  
깊이 심어주는것

하여 세 남매  
오늘의 행복앞에  
눈물 지울줄 안다면  
아, 그때 비로소  
내 아버지구실 다 했다 할가...

## 저 젖은 신발을 바라보며

신 병 윤

그대 언제 별에서 돌아왔는가  
소조원이 자는 건넌방 사랑채에  
휘영청 달빛에 어린  
후줄근히 젖은 저 신발 한켠레

령넘어 다락발에  
김을 매주다 늦어왔는가  
논배미마다 물을 철철 대주고  
늦어왔는가

이른새벽 찬이슬 남먼저 헤치고  
달뜨는 저녁엔 밤이슬도 저렇듯 다 맞으며  
농장별 구석구석 돌보노라  
그 언제 한번 마른적 없는  
우리 소조원의 저 젖은 신발

눈시울 뜨거워 바라볼수 없구나  
어찌하면 농사를 더 잘 지어  
아버이수령님과 당에 기쁨을 드릴것인가  
저리도 아글타글 애쓰는  
우리 소조원의 저 젖은 신발

한포기의 모라도 더 심어  
올해농사 기어이 만풍년 이룩하자고  
자신이 모내는기게 운전공이 되어  
평당포기수와 포기당대수도 가늠해주고

천만가지 농사일에  
주체농법 어길세라  
그리도 잔잔히 가르쳐주어  
우리의 눈 밝게 띄워준 사람

하기에 그대의 부름은  
농장원들 심장속에 울리고  
그대의 첫발자국은  
농장원들을 혁신으로 이끌거니

아, 내 검은 머리 희도록  
평생을 농사일로 늙었다만  
이런 사람-  
또 언제 보았던가

자나깨나 농사를 잘 지을  
오직 이 한마음으로 항시 찬이슬 마를새 없이  
혁명의 길 3대혁명전위의 길을  
묵묵히 걷고있는  
소조원의 저 젖은 신발

목메여 바라볼수록  
아, 이내가슴 젖어든다  
아버이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의 마음  
언제나 새벽길을 걷는 그 자욱따라  
내 가슴도 끝없이 젖어든다

## 알려지지 않은 진료소에서

탁 속 본

내가 새로운 광산기계 시운전에서 성공했다는 기별을 받고 우리 연구소의 연구사동무를 만나러 현지인 보은광산에 급히 도착한것은 한낮이 가까와올무렵이었다. 역에서 광산까지는 십리길이 잘 되어서 자칫 걸음을 늦잡다간 점심전에 가닿을것 같지 않았다. 생각던 끝에 나는 언제인가 한번 가본 일이 있는 지름길로 접어들었다.

6 월이어서 따뜻한 해빛이 록음이 짙어가는 산밭을 어루만져주고 하늘에는 꽃구름이 훨훨 날아가고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마냥 즐거워졌다.

그도 그럴것이 보은광산에 내려와 몇년만에 성공을 했는가. 자그만치 5년세월이었다. 그 기간 그는 얼마나 쓰디쓴 실패와 고뇌 그리고 번민과 싸워왔던가.

이런 생각을 하노라니 당장 꽃구름에 몸을 싣고 훨훨 날아가고만싶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내가 그의 실장으로서 연구사업에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부단히 채찍질하여온 타협없는 요구성의 귀중한 열매이라고 생각했을 때 더욱 그러했다.

나의 눈앞에는 연구사업에 가끔 애로가 제기되면 울상이 되어 달려오군하던 그에게 《여보, 아무려문 현지연구사업이 어떻게 연구소의 실험실과 같이 모두 원만하겠소. 웬만한거야 참고 견뎌야지, 나는 동무의 설명을 당초에 듣고싶지 않소. 그런 일본새로 연구사업을 대하면 3년이 가도 그만 4년이 가도 그 만이요.》하고는 그 걸음으로 현지로 돌려세우던 일이 방불히 안겨왔다.

일군이 되자면 가슴아픈 때가 있더라도 결함앞에 랭후하고 무자비한 편이 낫지,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구 일군들 자신을 위해서도 ... 자기 사업에서 정해놓은 이 철칙이 십분 정확했다는 자기만족감에 싸여 나는 등골에서 땀이 나도록 팔을 휘휘 저으며 힘있게 걸어갔다.

어느새 보은천기슭에 닿았다. 시내물만 건느면 광산 승리갱입구가 나진다.

바로 그곳에 우리 연구사 한통서동무가 있다. 나는 성큼 징검다리에 들어섰다.

50 메터가량 더 올라가면 나무다리가 있었으나 단 일분이라도 빨리 가고싶은 생각은 그리로 갈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맑은물에 찰랑찰랑 이마를 스치는 돌을 밟을 때마다 바위틈에서 채치있게 헤엄쳐나와 강아래로 무리

져가는 산천어새끼들에게 눈을 떼지 못하면서도 재빨리 발을 옮겨놓던 나는 절반을 못가서 그만 장대에 부딪치고 말았다. 앞에 누군가가 막아섰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흰 위생복을 말아친 곱살한 처녀가 눈이 동그래서 나를 올려다보는것이 아닌가. 얼굴에는 콩알같은 땀이 송글송글 내뿜어있었다.

《어마나?!...》

처녀의 입에서는 신음소리같은것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처녀는 나를 피하려 하지 않았다. 돌이 너무도 작은것들이어서 발을 잡지 않고서는 어길수 없었다.

둘중 어느쪽에서든지 양보를 하여야 하였다.

나는 땀을 손등으로 문지르는 처녀의 검고 큰 눈을 바라보며 얼굴은 이쁜데 도덕은 없군, 하고 생각하였다.

절로 한숨이 나갔다.

처녀도 나를 따라 한숨을 푹 내쉬었다.

돌아서자니 체면이 깎이는것 같았고 욕을 하자니 그건 지나친 무리 같았다.

시간을 지체할수 없었던 나는 조금히 말했다.

《처녀동무, 동무는 내가 오는걸 못봤소?》

《아이참, 손님은 왜 못보셨나요? 자, 보세요. 누가 더 많이 왔는가?》 하고 말한 처녀는 자기가 걸어온 징검다리를 일별하는것이였다. 그리고는 쌍까풀진 눈을 내리깔며 나를 흘겨보는것이였다.

아무리 바빠도 엄연한 사실앞에서 나는 다른 말을 할수 없었다. 처녀는 확실히 나보다 먼저 징검다리에 들어섰으며 나 역시 그를 보지 못했던것이였다.

처녀는 위생복으로 싸취고있던 유리병을 흔들어 보이면서 《급한 환자가 있어 그러합니다. 포도당이 떨어져 그것을 가지러 군병원엘 가던길입니다.》라고 했다.

그제야 나는 처녀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웃사람답게 서둘러 양보를 하였다.

징검다리를 건너온 처녀는 내가 어떤 환자인지 물을새도 없이 고맙다는 인사말을 남기고 둔덕길로 구울듯이 내리달리는것이였다.

고개길을 넘어서니 보은갱입구가 지척에 보였다. 꼬리를 문 광차들이 오가는 철길옆으로 무슨 일이 그리 급한지 안전모도 벗지 않은 사람들이 진료소쪽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무슨 사고가 난게 아닌가?》 나는 조금히 달려가는 한 녀인을 붙여잡고 알수 없는 근심에 휩싸여 물었다.

그랬더니 그 녀인은 사고가 아니라 여러해를 광산에 내려와서 요란한 채광설비를 만든 연구사가 갑자기 정신을 잃어 지금 온 갱이 그를 구원하기 위한 일에 펼쳐나섰다는 것이었다.

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마음이 어땠다고 할까, 나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의식하지 못한채 종합진료소문전에 뺨쪽이 선 사람들을 밀치고 간신히 들어섰다.

피기를 싹 가신 얼굴, 알릴락말락한 맥박, 확대된 동공, 천길지심속에서 들리는듯한 가냘픈 심장의 고동... 죽음이 그의 온 유기체를 차지하고 삶의 빛이란 실오리만큼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너무도 놀라운 사태를 보는 순간 나의 눈은 삼시에 연막에 가리운듯 사람들을 똑바로 가려볼수 없었고 가슴은 무거운 바위에 지지리눌리우는듯한 무서운 압박감을 느끼었다.

하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연구사를 부둥켜안고 《릉서,릉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하며 그의 가슴을 헤집고 흔들기 시작하였다.

어제저녁까지 송수화기를 통하여 나의 귀전에 쟁쟁 울려오던 그 목소리는 왜서 대답이 없으며 것처럼 정열로 빛나던 그 눈길은 어디에 가고 이리도 만사를 잊고있는것인가, 나는 련속 그의 얼굴과 목, 손이며를 미친 사람처럼 만지며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

밖에 나갔던 녀의사가 들어와 나를 환자한테서 떼내서야 한쪽으로 비켜선 나는 의사에게 아직은 인사전임을 의식하고 조금씩 자신을 소개한 다음 사태의 전후사연을 차근차근 물어보았다.

녀의사는 연구사가 새로운 광산기계 《승리 7》호의 최종시운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점심시간을 타서 갱에 들어갔다가 미만성복막염으로 갑자기 쓰러지는바람에 공교롭게도 심한 뇌타박상까지 입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점심시간이여서 현장에 사람이 없었던것이 불행하였다고 말한 녀의사는 복막염의 원인이 충수천공에서 온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렇게 말끝을 맺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연구사를 검진하려고 생각했었어요. 며칠전부터 가끔 허리를 그러쥐고 신고하는 연구사를 제가 본 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료소에 한번 다녀가라고 당부했지만 어디 말을 들어줘야지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간호원을 그의 호실로 보냈지요. 식사시간에는 어디 갔다가도 들어올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호실에 가니 누군가가 점심식사를 먹은등마는등하더니 인차 어디론가 나가더라하지 않아요. 그래 여기저기 찾다가 마지막에 현장엘 가보니 이지경이 되어 쓰러져있더라입니다. 그러니 진료소에 업고 오기까지는 넘어진 때로부터 시간이 퍼그나 경과한 뒤였지요.》

이 말을 들으니 조금전에 징검다리에서 만났던 처녀가 피륙 생각났다.

(약을 얻으러 간다 했지...)

뺨 창밖에서 급정거하는 자동차의 마찰음소리가 들리더니 몸이 우람한 사람이 문을 채우며 들어왔다. 광산기사장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한참이나 환자를 들여다보고나서 의사에게 무슨 이야기인지 조용히 하고 나갔다. 마지막 말은 나에게도 들려왔는데 그것은 승용차를 진료소에 대기시켜놓고 쓰라는 것이었고 군병원에 알리기는 했지만 인차 승용차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가 나간 뒤 나는 도리에 어긋하는 것도 잊고 녀의사에게 말했다.

《선생님, 그럼 환자를 여기에다 놓아들 걱정인가요? 후송하지 않겠습니까?》

녀의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50대에 가까운 녀의사는 희끗희끗하기 시작한 귀밑머리를 조용히 쓸어들리며 환자주위에서 서성대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했다. 그의 말소리는 낮았으나 드릴수 없는 의지가 엿보였다.

《여러분, 이젠 좀 나가주세요. 여러분의 성의는 고맙습니다. 가지고 온것들은 모두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일을 빨리 시작해야했기에 이젠 돌아들가세요.》

사람들이 놓간 물건들에는 뇌진탕에 좋다는 여러병의 산골도 있었고 산삼뿌리며 지어는 사슴뿔같은 진귀한 약재도 있었다.

그것을 보는 나의 가슴은 불덩어리를 그러안은듯 뜨거워났다. 어떻게 되어 우리의 연구사가 이렇듯 광산로동계급의 사랑을 받을수 있었을가... 하지만 나는 오래도록 그것을 생각할 경향이 없었다.

무작정 나는 연구사를 군병원으로 후송하고싶었다. 의사는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때 단호한 결심을 내린 나는 환자를 다급히 부둥켜안았다.

어떤 일에서든지 우유부단성을 악습으로 알고있는 나는 의사가 하는대로 내버려둘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이 시각 나의 마음은 오로지 연구사를 구원해내야 한다는 이 하나의 생각으로 하여 끓어번졌다.

그가 어떤사람인가. 그에게 지금 어떤 영광과 명예가 기다리고있는가. 순간 몸을 일으키려던 나는 그만 의사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고말았다.

어느결에 나의 손과 몸을 환자로부터 떼어낸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어찌자고 그러세요? 환자를 움직이면 안됩니다. 여기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무리한 행동을 삼가하세요!》

《여기서말입니까? 나는 이 동무의 실장입니다. 나는 그의 모든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건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각엔 동지가 환자를 책임일수 없습니다.》

《아니, 선생이 일체 후과를 책임지겠습니까? 예? 만약...》

《이 환자의 생명은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나는 그를 담당하여 치료해 온 진료소 소장이니까!》 이렇게 말한 그는 꼭 결사전에 나선 투사의 모습과도 같이 건결하였다. 그의 온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파아란 불꽃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가만있을수 없었다.

《지나친 욕망이 아닙니까? 한 인간의 운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으로 책임진단말입니까. 잘못된 일 앞에서 책임진들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니뭐니 해도 후송하는것이 환자나 또 선생에게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 자그마한 진료소에서 그의 치료를 회피했다 하여 그 누구도 추궁할 사람이 없습니다.》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경솔한 행동뒤끝에 나는 드디어 리성을 잃고 썩썩한 분노에 휩싸여있었다.

《사람을 모욕하지 마세요. 병원까지 가자면 시간이 퍼그나 걸릴거예요. 그것은 이 환자에게 제일 어려운 극한점인데 그 시간을 자동차안에서 보낼수 없어요.

더 설명해드릴수 없습니다. 일에 방해됩니다.》

나는 끝내 너의사를 설복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 고말았다.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대기하고있던 승용차가 어디론가 떠나갔다. 승용차가 달려간 마당에서는 번거로운 나의 생각과도 같이 종이쪽지들이 이리저리 바람에 날리고있었다. 누구인지 자동차가 구병원으로 갔다는것을 알려주었다. 기사장의 의견도 있었지만 나의 완강한 주장에 그렇게 한것 같다.

그러나 나는 그때로서는 진료소장에 대하여 너무도 아는것이 적었다. 지난날 의학에 크게 관심을 돌리지 않았던 나는 복막염상태에서 환자를 움직이는 것이 금물이라는 초보적인 상식도 모가지고있었으며 더우기는 진료소장이 몇해전 이곳으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공업지구병원 외과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경에서 구원해낸 의학계의 공로있는 외과의사라는 것도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진 연구사의 병명을 진단하기 위하여 그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치는 실험검사를 거쳐 마침내 미만성복막염이라고 진단했다는것도, 또한 그것과 동시에 송수화기를 들어 당조직 앞에 이렇게밖에는 결코 달리는 행동할수 없는 자기의 결심을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왔다는것이며 그래서 마침내 온 갱이 연구사를 구원하기 위해 펼쳐나섰다는것도 모르고있었던것이다. 그랬으니...

그때로부터 나는 밖에서 서성거리었다.

군에서 오는 군병원의사들을 기다리는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루하게 흘러갔다.

나는 담배를 몇대 피웠다.

나무와 풀냄새로 가득찬 싱그러운 공기인데 왜 이다지도 숨쉬기조차 힘들가. 나는 나무에 기대어도 보고 결상에 앉아도 보았으나 어디에다 자기의 몸을 맡겨야 편안할지 알수 없었다. 발자국소리가 등뒤에서 조용히 잦아든다.

몸을 돌리니 보은천징검다리에서 만났던 간호원처녀가 우수에 찬 눈길로 나를 올려다보며 놀라와 했다.

《여기에 오시는 선생님을 몰라보았군요.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처녀는 진심으로 미안해하였다. 그 다음 처녀는 나를 소장방으로 안내해주는것이였다.

소장방에서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가며 처녀는 《우리 선생님을 믿으세요. 일이 잘될거예요.》라고 신심이 깃든 부탁을 남겨놓았다.

나는 그 말에 잠시나마 마음이 진정됨을 느끼였다. 천진한 그 마음이 펴 고마왔다. 환자를 위하여 분을 다투며 달리던 그 마음이였고 절벽이 앞길을 가로막아선 나에게 그어떤 출구를 열어주려고 애쓰는 마음이었다.

처녀가 나간 뒤 사무실에서 서성거리던 나는 넓은 유리판이 깔려있는 소장의 량수책상우에 무심중 눈길을 들렸다.

그때 나의 눈길을 끈것은 유리 한쪽 모서리에 끼워있는 색날은 사진이었다.

사진은 큰 우표장만한것이였다. 그리로 가까이 다가간 나는 그만 일시에 피가 머리끝으로 솟구치는듯한 짜릿한 충격을 느끼였다.

그 사진은 놀랍게도 30 여년전에 내가 이섬누나와 헤어질 때 찍은 사진이었기때문이다.

아 이것이?!... 불현듯 나는 방금 만났던 소장이 어쩐지 눈에 익어보이던것이 생각났다.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다면 이 소장선생이 철없던 동년시절에 나를 참된 길로 이끌어준 그 리이섬이란말인가. 생활에는 이런 우연도 있는가.

정녕 이 일이 이처럼 나에게 필연적인 일이였다면 왜 좀 더 일찍 마련되지 못했는가. 나는 서둘러 사진을 꺼내들고 뚫어지라 들여다보았다.

모자도 쓰지 못한 더벅머리, 가는 목, 얇게 저은 처고리를 입고 고집스러워보이는 입을 꼭 다문 시골 소년, 그결에 단발한 머리를 곱게 빗고 크고도 시원한 눈으로 어디론가 하염없이 바라보고있는 처녀가 나란히 앉아있다. 웃는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시름을 덜어버린 미묘한 감정이 어려있는 상실했다.

아, 내가 리이섬을 이렇게 만날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사진을 들여다볼수록 이 감격적인 사실은 나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옛 추억을 불러냈다.

내가 리이섬을 알게 된것은 전화의 나날이었다. 그때 그는 우리 마을에 소개하여 왔던 유자녀학원아로서 우리 학급 과외소년단생활을 지도해주었다. 당시 인민학교 3 학년생이었던 나는 이틀거리로 학교에 나가지 않아 이섬이의 숙을 무던히도 태웠다. 그래서 내가 이섬이를 더 잘 알게 되었는지 모른다.

이무렵 나는 새잡이에 거의 미쳐있었다. 새잡이, 새놀이, 이것은 그때의 나의 온 넋을 지배하던 매우 흥미진진한 일이었다.

우리 집에는 새들이 많았다. 콩새, 박새, 메새, 찌르레기를 비롯하여 밀화부리며 류리새 그리고 후투디와 같은 진귀한 새들까지 있었다. 나는 아침이면 새장들을 다락밖 추녀에다 내다걸고 저녁이면 다락안으로 들여다 걸군하였다. 마치도 새를 연구하는 학자라도 되는것처럼. 나는 그것들과 함께 있느라 시간가는줄 몰랐다. 눈만 감으면 새무리를 타고 머나먼 하늘가, 꽃구름이 펼쳐진 구름나라로 훨훨 날아가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랑만에 젖은 나의 동화는 거의 매일 계속되었고 학교의 출석부에는 동그라미가 꼬리를 물고 늘어만났다. 나를 볼 때마다 욕설을 퍼붓기에 지쳐버린 선생님도 아예 나를 나쁜 아이로 점찍어놓고 관계치 않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섬은 우리집에 찾아왔다. 집에 와선 나를 붙잡고 소년단조직생활과 학과학습에 결석하고있는데 대해 준절히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따듯이 타일려주기도 했다.

(체, 선생님도 날 어찌지 못하는데 제가 뭐야.) 나는 속으로 두덜거리며 뺨소니칠 구멍만 노렸다.

우리 집 다락 스펀지봉우에 저녁노을이 잔줄거리던 어느날 그는 웬일인지 시답지 않게 뿌리치는 나의 손을 꼭 잡고 《운호야, 너는 다른 애들과는 다르지 않니. 미국놈들 폭격에 피살된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 일을 아시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니? 이렇게 공부조차 하기 싫어하는 애가 어찌 부모님의 원쑤를 갚을수 있단말이냐.》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리고는 손수건을 눈가에 가져다대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해온다. 후에 안일이지만 그날은 바로 이섬이 부모가 희생된지 14년을 잡던 날이였다.

하지만 나는 이섬이의 그 진정을 알지 못했다. 어찌하여 이섬이가 그리도 무수한 밤길과 이슬덮인 새벽길우에 걸음걸을 진정을 바쳐가고있는지 나는 그것을 알수없었다. 오히려 나는 그것을 더 시끄럽게까지 생각했다. 그래서 이섬이가 우리 집에 왔다가는 때이면 길목에 숨어서 교양이소리를 내거나 심하게는 승냥이 울음소리까지 내어 그를 놀래우기까지 했다. 그런 때면 이섬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줄곧 앞으로 내달리기만 했다.

그러다가 돌부리에 걸쳐워 넘어지기도 했는데 그럴라치면 그것을 보고 나는 좋아라고 깔깔 웃어 대기까지 했다.

국방색학원복 치마전에 묻은 풀잎을 털고나서 원망어린 눈길로 나무뒤에 몸을 숨긴 나를 돌아보던 이섬이의 눈전엔 무엇인가 반짝이고있었다.

그날도 나는 학교에 안가고 다락에서 철남이와 같이 참대로 새장을 만들었다. 얼마나 재미나게 놀았던지 해지는것도 모르던 우리는 부랴부랴 준비해두었던 광술가지에 불을 붙였다. 저녁이어서 사위는 끝없이 고요했다. 밤하늘에 휘뿌려진 은하수의 별무리도 우리하고 숨박꼭질을 하는듯 반짝이는데 우리는 화려한 공상에 몸을 싣고 즐거운 동화를 끝없이 펼쳐가고있었다.

이때 나는 어디선가 푹푹히 들려오는 힘있는 노래소리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분명 학원마당에서 울려왔다. 그제야 나는 오늘 점심나절 학원마당에서 원아들이 법석 떠들며 전주를 세우고 그우에 자그마한 나무통을 달아매던 일이 방불히 생각났다.

아, 나무밑에 매인 황소보고  
인민군 땅크라고  
놀라서 도망치다 산에서 굴러났다네  
웃어라 하하하 또 웃어라 하하하  
미국놈 양꼬배기 눈손 소경이라네  
땀 따 따라라라

노래도 들을수록 재미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흥미있는것은 어찌하여 그 나무통에서 그리도 멋진 노래가락이 흘러나오는가 하는것이였다.

《야 저 꼬꼬만 통에 사람들이 들어간걸가?》

《하하, 그것두 몰라, 씨 저건 고성기라고 부르는데 평양에서 부르는 노래가 흘러나온대.》 머리를 한손으로 고이고 노래에 정신이 팔렸던 철남이가 큰 학문이라도 아는듯이 웃음보를 터뜨리더니 오른손을 연해연방 흔들면서 설명하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본때있게 건뚫 들린 들창코를 씩 닦았다.

《뭬? 거짓말 말아. 그렇게 먼곳의 노래가 기차길두 없는 여기에 어떻게 온다던.》

나는 철남이에게 창피를 당했다는 노여움도 생각할새 없이 호기심에 싸여 또 물었다. 다른 때 같으면 이런 모욕을 용서할수 없는 싸움거리였다.

철남이는 나의 물음에 《글쎄》하고 대답하고는 두눈을 찔프리고 손은 다발을 만들어 눈가에 대고는 노래가 울수 있는 길을 찾는듯 어둠이 깃든 거뿔거뿔한 산골짜기를 두리번두리번 살폈다.

《아유, 귀신이나 알 일이야.》하고 신기한 결론을 내리고말았다.

《아니야, 세상엔 귀신이 없대, 전번에 이섬누나도 말했어.》

나는 너무도 안타까와 머리만 살때살때 흔들며 고성기의 비밀을 알아 낼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느라고 머리를 쥐어짰다. 다락엔 또 정적이 깃들었다. 멀리 들려오는 자동차기관소리는 이 밤도 전선으로 달리는 우리 인민군전사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마을의 여기저기서 울리는 개짖는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깨뜨린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서야 나는 철남이를 꼬드겨 고성기를 가져다 뜯어보리라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 이튿날 온 마을은 고성기를 잃어버린 사건으로 하여 떠들썩하였다. 학교마당에서도 소동이 일었다. 담임선생님은 벌써 그것이 나의 작간이라 짐작하고 나를 몹시 달구었다. 그러나 나는 딱 자르고 아닌보 살렸다. 그렇게 되자 선생님은 나를 위협도 해보고 얼려도 보았다.

나는 그것이 시끄럽다고 이튿날부터 또다시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저녁 할머니는 방등불의 심지를 바늘끝으로 돌구면서 《애, 운호야, 저 학원마당에 걸려있던 고성기를 어떤 녀석들이 훔쳐갔다는나. 혹시 너는 그런짓을 안했겠지. 함부로 너는 그런 일엔 빠치지도 말아라...》 했다.

선생님이 근거도 못잡고 우격다짐으로 말했을 때는 아무런 가책도 없었지만 로파심 많은 할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는 어쩐지 가슴 한쪽이 스르르 녹아내리는것만 같아서 하마터면 그 어떤 단서라도 잡힐번했다.

부모를 잃은 나에게서 할머니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했다. 60이 가까와온 할머니는 농사일이나 전선원호사업에 언제나 남들에게 뒤질세라 참가하면서도 나는 손에 흙이 묻을세라 공부만 하라고 했다. 할머니의 나에게 대한 걱정은 실로 끝이 없었다. 밥을 적게 먹으면 배고플가봐 밥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가봐... 할머니의 이런 눈먼 사랑은 그때 나로 하여금 더욱 극성스레 장난만 탐나게 하였고 외뿔고집통으로 만들어놓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틀후 마음약한 철남이가 모든것을 선생님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숨겨오던 비밀이 그만 날날이 드러나고 말았다. 그리하여 나는 선생님한테서 눈이 빠지게 비판을 받았다.

선생님은 나에게 소년단원의 량심은 둘째치고 초보적인 학생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출단시켜 학교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울러댔다.

나는 아예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그다음날 저녁이었다.

새벽이를 구해가지고 뒤늦게 집에 들어오니 할머니가 어디 갔다가 그리 늦느냐고 하면서 조금전에 이

섬이가 와서 내가 망탕 뜯어놓은 아직은 한가지의 비밀도 알아내지 못한 꿀먹은 벼어리로 된 고성기를 가져가버렸다고 알려주었다.

《예구 이 철없는것아, 내가 얼마나 말했기에 남의것을 가져온단말이나? 그런 나무통이야 집에도 많지 않냐, 갖고싶으면 삼촌더러 만들어달라게지 쓰쓰...》 할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을것만 같았다.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르는것을 느끼었다. 그 감정은 삼시에 그 어떤 진귀한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듯한 허전한 감정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길로 학원으로 갔다. 도대체 그 고성기가 왜서 나의 손에 오자 입을 꼭 다물어버렸는지, 이섬이가 그것을 어떻게 고쳐놓는가를 알고싶었기때문이었다.

《1》자형으로 된 학원의 칸칸마다에선 등잔불빛이 조용히 흘러나왔고 도간도간 이야기소리와 느닷없이 울리는 웃음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발걸음소리를 죽여 고양이마냥 칸칸이 종이창문을 침묵은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여 들여다보던 나는 알수 없는 계기들을 주련이 진렬해놓은 조그마한 방안에 오도카니 앉아 무엇엔가 정신을 몰뫼는 이섬이를 발견하였다. 나팔통에서 내가 떼여놓았던 부분품들을 하나하나 재치있게 붙여나가던 이섬은 이번에는 많이도 풀어내었던 머리칼같은 금빛선들을 부지런히 감는것이였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 있었다.

나는 이섬이가 하는 그 모든 동작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치도 사진을 찍듯 머리속에 푹푹히 새겨넣었다. 나사틀개를 돌리고 집게로 조이고 그다음 화로에 달군 인두로 떨어졌던 선들을 붙이고...

체질에 배인 자신있는 판단, 눈에 익은 세련된 손놀림, 탐구적인 열정에 활활 불타는 눈, 나는 그날밤의 이섬이의 모습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

얼마후 이섬은 손에 든 도구를 놓고 고성기꼬리에 달린 선을 한쪽 다른 선에다 편결하였다. 그러자 깊은 잠에 취했던 고성기는 비로소 잠에서 깨어난듯 그 힘있는 목소리로 이 밤의 정적을 깨치는 것이였다. 고성기에서는 평양 소년단원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경쾌하게 흘러나오고있었다.

야, 나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이 새여 나왔다.

이섬은 어찌하여 이런 신비한 재간을 가지고있을가.

나는 났을 잃고 그 광경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언제 들어섰는지 담임선생님이 이섬의 등뒤에 조용히 다가서는것이 아닌가. 너무도 정신없이 집안을 들여다보다나니 삼작문 여는 소리도 듣지 못한 나였다. 훌쩍 몸을 일으켜 마당앞 느티나무에 바라올랐던 나는 한참만에야 스스로 미끄러져내려와 창문에 또 붙여섰다. 방안에서는 이섬이와 선생님의 목소리가 도간도간 엇갈려 들려왔다.



나는 커다란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윤호를 몇번이나 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선생님, 오늘 나는 윤호네 집에서 이걸 가져오면서 많은것을 생각했어요.》

《…》

《윤호를 제가 잘못보았어요. 그저 아무런 지향도 없는 장난군인줄로만 알았는데 오늘 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고성기를 분해해놓은걸 봐도 그렇지요. 고성기를 분해하면서 그 순서가 삭갈릴가봐 제나름으로 이름을 붙여 기록했더군요. 이걸 고성기의 비밀을 알아내고싶어하는 아름다운 지향이 아니겠어요. 이런 지향, 이런 진취적인것이야 얼마나 귀중한것이에요.》

나는 이섬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쩐지 얼굴이 달아오르는것을 느끼었다.

어떻게 하면 이섬은 내 마음속을 이렇게도 똑바로 맞춰줄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나는 점점 그들의 이야기에 깊이 끌려들어갔다.

《그뿐일줄 아세요. 윤호네 집 다락에 가보니 별의 별 새들이 다 있었어요. 어린 학생이 했다가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재치있게 만든 새장들이 주렁이 걸려있고 또 오랜 기간 얻어낸 새들의 습성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도 있구요. 물론 내용이 어리지만 어린아이로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게 얼마나 놀라와요. 선생님두 보시면 틀림없이 놀라실거야요, 윤호는 꼭 과학자가 될거예요. 나는 그의 탐구심을 믿고싶어요.》

《미안해요. 나는 윤호의 담임선생이지만 한번도 그의 이런 장점을 봐내지 못하고 욕만 하였습니다.》

얼마후 방 안에서 의자 부딪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서둘러 그자리를 떴다. 나는 처음으로 자신에 대하여 흐트하게 생각을 해보았다. (과학자로 될수 있다고…)

웬일인지 이 말은 나를 흥분시켰고 저도 모르게 학습에 열중하게 하였다. 나는 점차 학습에 흥미를 붙이었고 또 공부가 끝나면 이섬이를 찾아가곤하였다. 그때마다 이섬이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고성기에 대하여, 큰 공장에 대하여, 밝고밝은 등근달의 비밀에 대하여… 정말 이섬이가 알고있는것은 많고많았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 일찍 철남이와 학교로 가던 나는 장수산에 바라보이는 고개말기에서 한곳을 주시하며 못박힌듯 서버렸다. 우리가 서있는 지척에서는 여러마리의 참새들이 소나무우듬지로 내리꽂히기도 하고 날아오르기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기때문이었다.

호기심이 동한 우리는 그리고 다가갔는데 그곳에는 놀랍게도 부엉이가 새들의 공격을 받으며 큰눈을

더욱 크게 뜨고 목을 움츠렸다 뛴다하면서 공포에 질려 앉아있었다. 새들은 어찌도 집요하게 달려들고있었는지 그 큰 몸집을 가지고도 참새무리들을 감히 어찌지 못하고있었다.

나는 더욱 호기심이 커졌다.

그런데 이때 원 목소리가 우리 귀에 날아들었다.

부엉이란놈은 낮이면 못보기때문에 팔구면 얼마든지 잡을수 있다는것이였다.

몸을 돌리니 이따금 고개말기에서 만나곤하던 썸터마울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나무를 한집 지고 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던것이였다.

바삭 구미가 동한 우리는 부엉이에게 접근했다.

정말 낮에는 몰볼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부엉이가 앉아있는 소나무결에 이르자 인적기를 발견한 참새들은 어느새 어디론가 다 날아가버리였다. 그러나 부엉이만은 여전히 한자리에 앉아서 눈만 디룩디룩 굴릴뿐이였다.

우리는 신바람이 났다.

부엉이를 꼭 잡을것만 같았다. 나는 뒤발 되는 장대기를 얻어들고 나무로 툭아오르기 시작하였다. 3미터, 2미터, 순간 나는 장대기로 힘껏 내리쳤다. 그러자 그것과 때를 같이하여 부엉이는 푸드득하고 나무위로 날아올랐다. 그리고는 옆가지로 살짝 옮겨앉는것이였다.

분했다. 한번은 꼬리까지 잡았다가 놓쳐버렸다.

모르는새에 우리는 점점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해는 산너머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짙은 황혼이 골짜기를 물들였다. 그러자 부엉이는 어디론가 멀리로 훨훨 날아가버리였다. 깊은 산골짜기에 끌어다놓고 어디론가 혼자 훨훨 날아가버리는 부엉이를 바라보는 우리는 꼭 무엇에 홀린것만 같았다. 야속한 마음이 극도로 우리를 허전하게 만들었다. 그럴수록 부엉이가 낮에는 못본다고 말한 로인의 말이 의심되었고 마침내 로인이 꽤 씩씩하게 생각되었다.

철남이는 구시렁거리며 뒤편까지 하였다. 이때 나의 머리속에는 별안간 그 로인을 단단히 혼내우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함정을 만들어서 로인을 골탕먹이자는것이였다. 간신히 길을 찾아나온 우리는 날이 캄캄해질 때까지 로인이 잘 다니는 길목에 함정을 만들고 마른흙과 풀단으로 잘 위장하여놓았다. 그런데 이틀후 우리는 그 로인이 아니라 군에 가서 새 고성기를 받아가지고 오던 이섬이가 그만 함정에 빠져 팔까지 분질러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것만 같았다.

(정말, 이 일만 알면 날 가만두지 않을거야. 고성기를 습격했을 때는 그래도 그것이 처음이었으니 용서했지만 이번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거야.)

그러나 더욱 마음에 갈마드는것은 이섬이의 상처에 대한 근심이였다. 다시 볼 면목이 없었다.

나의 눈앞에는 수십명의 학원원아들이 달려들어 팔과 다리를 뽕뽕 묶어 자동차에 태워싣고 어디론가 멀리로 가버리는 환각이 진실처럼 떠올랐다.

나는 며칠간을 무서운 공포에 시달렸다.

그런데 어느날 학급에서 여러명의 동무들이 나를 찾아와 선생님이 찾는다고 알려주는것이였다.

나는 이제는 모든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였다.

진료소마당에 갑자기 승용차가 들어서는 소리가 났다.

생각에서 깨어난 나는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다. 군병원에 갔던 자동차였다. 의사들이 타고왔다. 진료소 간호원처녀가 문가에서 초조한 얼굴빛으로 사람들을 맞아주고있었다.

나도 뒤따라 들어갔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던 이섬이는 자기결로 다가오는 군병원 외과과장에게 수인사를 하였다.

이때 나는 자기를 잊고 이섬이를 부를번했다. 세월속에 얼굴도 펴 늙어보이고 주름살도 깊어졌으나 그 눈만은 여전했다. 겨우 자신을 억제할 나는 눈길을 돌려 환자를 바라보았다.

연구사는 여전히 의식을 잃고있었다.

군에서 온 구레나룻이 희끗희끗한 로의사는 진료소장에게서 병증상에 대한 설명을 듣더니 한동안 말없이 환자를 진찰하였다.

신경이 최대로 예민해진 나는 로의사의 얼굴에 눈길을 창끝처럼 박고있었다.

환자에게 청진기를 가져다대고있는 로의사의 손에서 일어나고있는 파문이며 그 진동을 감수하는 미묘한 감정까지를 나는 로의사의 얼굴에서 포착하려고 애썼다. 이섬이가 진단한 충수천공에 의한 복막염외 또 어떤 병적증상을 로의사가 발견한다는것은 나에게 남아있던 한가닥 희망마저도 짙그리 빼앗아가버리는것으로 되기때문이었다.

이윽고 로의사는 많은 사람들의 초조한 눈길을 둘러보고는 이섬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선생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틀림없이 급성충수염입니다. 고열은 뇌타박상과 합병증에서 오는 현상인것 같습니다. 현상태에서 제일 환자에게 불리한것은 뇌에 외적진동을 받는것입니다. 군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안정한것은 정확한 조치입니다. 자, 먼저 수술해야겠습니다.》

로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리이섬의 눈에서는 강렬한 빛이 번뜩거리고있었다.

그것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던 그 어떤 일을 한순간에 작은 가슴이 벅차오르도록 받아안았을 때 환희로 빛나는 소녀의 감출수 없는 기쁨이 표식과도 같이 천진하였다고 할가.

나는 로의사의 판단앞에서 그렇듯 드높은 신심으로 굳어지는 이섬이와 얼굴을 지켜보며 그에 대한 존경과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것을 느끼었다.

자그마한 처치실은 순식간에 수술실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새하얀 하불을 씌운 침대며 번적이는 수술도구들, 방안중심에 매달린 고촉전등불빛, 수술을 서두르는 의사들의 세련된 동작, 누구도 이 긴장된 공기를 다치기 저어하는듯 계속되는 침묵, 숨소리속에 질어만가는 정적.

휴게실로 잠시 리용되는 옆방에서 애꿎은 담배만 뼉뼉 빨며 긴장한 공기를 들이키는 나의 마음은 조금하고 불안한 나머지 검은재가 되어 풀썩풀썩 무너져 내리는것만 같았다.

이때 수술실에는 이섬이의 침착한 목소리가 도간도간 들려왔다.

《환자는 꼭 5년간을 연구설비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그의 연구사업을 도와드리기 위해 건강관리부를 만들었습니다. 연구사동지가 병원에 오는일이 펴 드물었으므로 간접적으로 만든것인데 도움이 되겠는지 보아주십시오.》

문밖으로 이섬이가 내어미는 건강관리부를 보는 나의 가슴은 순식간에 불덩어리같이 달아올랐다. 언제인가 나에게 리해할수 없는 편지가 날아왔었다. 결봉에는 보은광산 승리강종합진료소라고 씌여있었는데 편지내용은 연구사에 대하여 물어온것이였다. 과거의 건강상태와 성격과 취미, 식성, 지어는 안해의 직장파 아이들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물어왔던것이였다.

일이 언제나 바빴던 나는 그것을 공허한 일로 생각하면 당초에 회답을 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자책감이 전신을 휘감으며 나를 괴롭혔다. 나의 마음은 이섬이에 대한 감사로 부풀어올랐다.

소년단조직생활과 학과학습에 락후했던 소년단원과 그를 옹운 길로 이끌어준 이섬이, 5년세월 현지 과학연구사업에서 지쳐버린 연구사를 오로지 질책만 한 한 일군과 그 연구사의 성공을 위하여 말없이 돌봐준 이름없는 의사,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순간 지금까지 모르고있던 새삼스러운것을 자신에게서 발견한것 같아 부르르 몸을 떨었다. 무엇인가 나는 내 자신에게 강하게 말하고싶은것이 있었다. 이때 군병원 외과과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장선생, 의사에겐 기술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환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요. 이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진리요. 나는 이것을 선생이 만든 건강관리부를 보면서 다시한번

심장으로 느꼈소. 내마음이 아무리 뜨겁다 한들 이 환자에 대한 선생의 사랑에 어떻게 비기겠소. 나는 선생을 믿소. 자 수술을 시작하시오…》

《아이, 선생님이》

《!!…》

무엇때문에 이섭이는 우리 연구사를 그토록 사랑했고 자기자신처럼 생각하는것이냐. 30여년전 그때 나에게 하던것처럼 오늘은 우리 연구사를, 아니 모든 사람들을… 그렇다면 나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자기 연구사 하나도…

《칼, 가위, 핀셋, 체온계를… 좋아요.》

미구하여 수술실에서는 찰칵찰칵 기구들을 다루는 소리만 끊임없이 들릴뿐 짙은 정적속에 잠겼다. 벽 하나를 사이둔 휴게실에서 사람들은 숨소리마저 죽여가며 송고한 침묵의 바다속에 잠겨있었다.

사람들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채치있는 수에가인양 수술대위로 오가는 리이섭의 회고 자그마한 손을 존경심과 믿음에 찬 눈길로 바라보고있었다.

이 시각 이섭의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참으로 무한함을 심장으로 체득하는 나는 자신에 대한 맹렬한 분노를 느끼었다. 이때 나의 머리속에는 일찍 기억속에 아득히 사려졌던 언젠가가 연구사가 써보낸 편지의 한구절이 생각났다.

《참으로 나의 약한 몸을 추세워주기 위하여 바람 불고 눈내리는 밤길을 무수히 걸어 체질에 맞는 약을 만들어 보장해주고있는 진료소장선생의 수고에 무엇으로 보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의 심장은 세찬 흥분으로 하여 막 가슴벽을 헤치고 뛰어나올것만 같았다. 나는 목구멍이 조여드는것만 같아 목단추를 열어젖히고 문밖으로 뛰쳐나갔다. 시원한 저녁바람을 폐부에 들이키며 나는 연거퍼 담배만 태웠다. 시간이 가지 않았다. 이것은 결코 환자에 대한 위구심에서 오는 불안과 수술결과를 기다리는 초조한 감정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불안과 초조, 믿음과 확신이 한곳에 뒹영킨 이상아릇한 감정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발밑에는 담배꽂다리가 수두룩하였다. 훌쩍해진 담배갑에서 또다시 담배를 뽑아드는데 간호원처녀가 쭈르르 달려와 나의 손을 잡고 쿵당쿵당 뛰는것이였다.

《선생님, 선생님, 성공입니다. 우리 소장선생님이 한 수술이 성공입니다.》

처녀의 눈에서는 맑은것이 가랑가랑 넘쳐나고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눈에도 핑 물기가 교여오르는것을 감촉했다. 결코 그것은 단순히 수술에서 성공했다는 기쁨을 느껴서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도 잘 알고있는 이섭이가 이렇듯 나의 귀중한 동지의 운명을 소생시켜주었을뿐만아니라 지난날 전혀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빈구석을 말끔히 가시게 해주었다는 감격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하였기때문이었다. 나는 어망결에 잡은 처녀의 손을 이윽도록 놓지 못한채 한자리에 굳어져있었다.

얼마후 나는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시키며 처녀에게 수고하였다고 진심에 넘쳐 사례의 말을 하였다.

《우리 소장선생님은 자기자신을 알뿐아니라 환자들도 잘 알고있지요. 때문에 이번 수술이 성공될수 있었다고 로의사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룡서동무, 동무는 지금 어떤 선생이 동무를 수술했는지, 또 어떻게 되어 동무가 여기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지 알기나 하오?) 하고 나의 심장은 말하고있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울렁이는 나의 심장이 모든것을 대신하고있었다.

얼마후 나는 가까스로 자신을 진정하고 리이섭을 만나러 소장방으로 걸어갔다. 나의 머리속에는 잊을수 없는 일들이 또다시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집을 뛰쳐나선 우리의 발걸음은 마치도 즐거운 등산길에 오른것같이 가벼웠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오솔길은 거의나 일년생식물들로 가리워져있었는데 그나마 길이 보이는곳은 방금 지나간 바람이 떨어뜨린 낙엽이들로 무질서하게 뒤덮여있었다. 그곳을 디디고 지나갈 때면 낙엽이 부러지는 소리가 발밑에서 딱딱 하고 들려왔다. 머리우에선 서늘한 공기가 감돌고 키높이 자란 나무 우듬지들엔 머루넝쿨들이 묘하게 지붕을 엮었고 그 우엔 머루송이들이 조롱조롱 달려있었다.

무성한 잡관목들사이엔 드문드문 다래넝쿨들이 덤불을 이루어놓았는데 그속에서는 풀벌레며 찌르레기들이 설새없이 울어대고있었다. 락엽이 깔린 산비탈에 걸음을 옮겨놓으면 발목이 푹푹 잠겨들어갔다.

검불속 바위밑 어디선가에서는 물 흘러가는 소리가 정답게 들려오고 이름도 모를 새들이 우짖어 대고있었다.

얼마쯤 골짜기로 더 들어가니 자연은 천태만상의 요지경속같은 비밀의 세계를 펼쳐놓는것이였다.

이렇게 집을 나선 첫날 우리는 온 세상의 축소판인듯한 장수골짜기를 철남이와 같이 살살이 편답하고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여 그곳에서 묵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할머니의 눈을 피하며 올 때 가지고 나왔던 주먹밥도 하루사이에 다 먹어버렸다.

지루한 시간은 흘렀다. 삼일간을 머루와 다래만 따먹고보니 밥생각이 간절해왔다. 인젠 그처럼 마음을 휘여잡던 새소리도 물소리도 정답지 않았고 온몸이 나른해오는데다가 눈만 감으면 밥상이 눈앞에서 빙빙 돌뿐이였다. 철남이는 더했다. 그래서 나흘째 되던 날 철남이를 먹을것을 가지러 마을로 내려보냈다. 그런데 그는 약속한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나

는 인내성있게 그다음날도 또 그다음날도 기다렸다. 하지만 여전히 오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철남이가 더욱 간절히 기다려졌다.

혼자 산속에 있자니 하루가 한달 맞잡이로 지루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낮은 그럭저럭 보낼수 있었지만 밤은 노상 공포속에 흘러갔다.

《깽깽》하고 울부짖는 승냥이울음소리는 어린시절 할머니에게서 들은 전문 애들만 잡아먹는 노랑머리 승냥이가 방금 달려오는듯한 환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었다.

내가 집을 나온지 꼭 일주일일이 되던 날 밤이었다. 늦은 바람이 싸하고 나무우듬지들을 흔들며 지나가자 주먹같은 비가 후둑후둑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잠시 후 비는 창살같은것으로 변하여 정신을 차릴수 없게 쏟아부었다. 지금까지 조용한 정적만이 내려덮였던 천지는 순식간에 란리만란 세상처럼 소란해지기 시작했다.

큰 이빨나무중턱에 만들었던 다락집도 그만 비바람에 무너져버렸다.

나는 어찌지 못하고 그 비를 앓은자리에서 다 맞았다.

피할 생각도 피할곳도 없었다.

머리우에서 우렁거리는 천둥소리가 장수산끝 봉우리로 흘러가서 어디에다 벼락을 때리는지 차근차근하는 소리가 귀를 따갑게 했다. 온 산판은 푸른 섬팡에 산산조각나는듯 부르르 떨었다.

나도 허공 어디론가 날아가버리는것만 같았다.

이때 나는 강한 빈혈을 느끼고 그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쓰러진 나는 놀랍게도 얼마후엔 꿈을 꾸었다.

…눈바람 모질게 불어치는데 강판에서 썰매를 타던 나는 너무도 추운 나머지 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손은 장작개비처럼 뻗뻗해졌고 발은 돌덩이 같이 감각이 없어졌다. 나는 더는 걸을수가 없어 그자리에 쓰러지고말았다. 그러자 때를 기다리길라도 한듯 앙칼진 소리를 지르는 바람이 나를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다. 나의 얼굴에서는 언살점이 푹푹 부셔서내리는것만 같았다. 그런데 난데없이 어머니가 나타나더니 나를 그림고 그림던 그 따뜻한 품에 안아주는것이였다. 나는 어머니의 목을 꼭 그러안고 막 흐느껴울었다.

《울지 말아 일어나거라. 응 정신차려라, 자, 밥을 먹자 응.》 어머니는 나의 얼굴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 부드러운 손길로 닦아주며 속삭였다.

《어머니 밥.》 나는 부지중 중얼거리며 두손을 내밀었다. 나는 간신히 눈을 떴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그때 내가 이섬의 품에 꼭 안겨있는것이였다.

나를 안아준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분명 이섬이였다.

함정에서 팔을 다친 뒤 병원에 입원하고있던 이섬은 내가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산속으로 들어와 천신만고 끝에 나를 발견하였던것이다.

어느덧 비도 멎고 하늘도 말끔히 개였는데 환한 보름달에 비낀 이섬이의 눈귀에서는 맑은 이슬이 빛나고있었다.

《이섬누나! 누나…》

나는 이섬이의 품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오래도록 흐느끼기만 하였다.

이섬이의 눈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맑은것은 더러울대로 더러워진 나의 얼굴을 말끔히 씻어주었다.

가슴속에 서리고서려있던 천만가지 시름이 한순간에 눈물로 변한듯 견잡을수 없이 흘러내리는 이섬이의 눈물은 나의 가슴속에 서서히 젖어들었다.

부드러운 손길, 다정한 얼굴, 흠뻑 물기에 젖어든 빛나는 눈, …달빛속에서도 선명해보이였다.

눈물고인 흐릿한 눈으로 이섬이를 올려다보느라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온갖 애정이 넘쳐나는 표정으로 나를 포근히 감싸주고 어루만져주는것만 같았고 지지리 못난것으로 이섬이를 애먹인 얼룩진 지난날들에 대한 후회가 작은 가슴을 차고넘쳐 나는 더욱 흐느껴울었다.

비내린 뒤 그 산속의 밤은 신비롭게도 아름다웠다. 검푸른 하늘에서 다정하게 반짝이던 별들이 이제라도 조용히 내려앉을것만 같았다. 저쪽 덩불속 바위밑에서는 물 흘러가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산속의 고요를 끝없이 흔들며 주절거리는 골짜기의 물소리… 어머니의 숨결인양 부드러운 바람결은 따뜻한 애무속에 모든것을 씻어버리려는듯 나와 이섬이의 얼굴을 조심스레 어루만져주고 있었다.

나는 지금도 그날밤 이섬이가 활활 타오르는 우등불가에 앉아 나의 젖은 옷을 말리우며 하던 정다운 이야기를 잊지 않고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전쟁으로 하여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하여 조국땅 도처에 수많은 학원을 세워주시고 고아들을 불러주시였다.

준엄한 전화의 나날이었지만 부모없는 아이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는 행복의 요람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아버지장군님의 해빛보다 파사로운 사랑의 품이였다. 그 품속에서는 솟검댕이로 메마른 땅우에 쓰고싶던 글자를 새겨야만 하였던 고아들의 손에 칠색령룡한 무지개언필이 쥐여지고있었다. 후방깊숙이 먼곳 전기를 일꾼다는 바다같은 호수가 그 번두리에 늘어선 창유리 번쩍이는 교실들, 조용한 방에서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우렁차게 울려퍼지는 곳, 전쟁이 있는 땅우에 전쟁을 모르고 사는 세상, 그곳이 우리 원아들이 산다는 학원이였다…

여기까지 말한 이섬이는 불현듯 눈굽을 훔치는 나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운호, 나도 일본놈들한테 부모를 죄다 빼앗겼어요. 그러나 나는 한번도 고아라고 생각해본 일이 없어요.》

《?! …》

《아버지장군님께서 해방된 이듬해에 동북의 넓은 땅에 모래알처럼 흩어졌던 우리 유자녀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혁명가유자녀학원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때 송화강기슭에서 헤매던 나도 만경대로 나오게 되었어요.》

《…》

《그래서 내가 운호를 그대로 놔둘수가 없었던가요.》 하고 말을 끊었던 이섬은 눈가에 손수건을 가져다대더니 마침내 예지로운 눈을 빛내이며 이렇게 또 박도박 말을 이었다.

《나는 운호를 학원으로 보내자고 해요. 학교하고도 초보적으로 토론이 있었어요. 우리 원장선생님두 찬성하셨고요.》

이섬이의 이 말에 나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그저 오래오래 흐느끼기만 하였다.

아버지장군님의 은덕이 어린 마음에도 너무도 고맙게 생각되었기때문이다.

정령 그날밤의 모닥불은 지나온 나의 생활에서 불유쾌한 모든것을 말끔히 태워버리길라도 하는듯 오래오래 밤하늘을 밝혀주고있었다.

이리하여 나는 운명적인 그 밤이 있는 뒤로 학원으로 가게 되었다.

머칠후 나는 필요한 수속을 마치고 군인민위원회 마당에서 그와 헤어졌다.

그때 이섬이가 나의 양말끈을 꼭 매여주면서 가지고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넘겨줄 때 목메여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해온다. 그중에서도 이섬이가 학원에서 처음으로 받았다는 연필을 나에게 넘겨주던 일이며 그리고 팔까지 상하며 가져온 고성기 나팔통과 부엉이박제품을 나의 손에 쥐여주면서 학원에서는 네가 알고싶어하던 그 모든것을 남김없이 배워줄 것이니 애써 배워서 훌륭한 일군이 되라고 절절히 부탁하던 목소리는 지금도 나의 귀전에서 쟁쟁히 울려온다. 바로 방금 본 그 사진은 그와 헤어지기 앞서 찍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의 앞에는 배움의 층계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졌고 불빛은 교실들과 넓은 운동장들이 가는곳마다 아낌없이 차려졌었다.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하여 오늘은 마침내 광산기계 연구제작에서 우리 나라에서 권위있는 학자로 자라났다.

철부지시절의 그 산만한 취미… 그래도 그것은 나에게 과학연구사업의 시초가 아니었던지 모른다. 이것을 생각할 때면 나는 언제나 머나먼 동화시절 고성기와 부엉이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애쓰던 한 시골소

년의 천진한 꿈을 꽃피워주려고 그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바쳐간 한 녀성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곤하였다.

이런 이섬이를 그후 나는 한번도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이섬이를 여기서 이렇게 만났다! 3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는 그때 그 심장으로 나의 마음을 덥혀주고있는것이 아닌가!

의사의 본분에 앞서 연구사의 활동과 그의 운명을 자신의 일로 맡아나선 진료소장, 처녀간호원, 그리고 수술대옆에 지켜선 의료일군들, 이러한 사람들로 무어진 알려지지 않은 진료소의 동지들, 바로 이런 동지들로 꾸려진 수천수만의 《알려지지 않은 진료소》가 있기에 우리 연구사들은 그 어디에서 일하건 천부모형제다운 따뜻한 사랑을 아름답게 받아안고 생활하지 않는가.

이러한 사랑속에서 기적을 창조하는 혁신의 불꽃을 도처에서 일어나고 이러한 사랑속에서 우리 조국은 속도전의 기상을 온 누리에 떨치며 10대전망목표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고있지 않는가.

《알려지지 않은 진료소》 이 자그마한 단층건물을 광산밖의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또 영원히 알려지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뜨거운 마음은 연구사의 실현된 희망과 함께 우리 시대 빛나는 창조물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을것이다.

그런데 나는 마치 이 모든 성과가 자신의 차디찬 비판과 무자비한 요구의 결과라고 허황하게 믿어왔다.

재능있고 영민한 인간으로 자처했던 나는 인간에 대한 열렬한 심장만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리고도 자신이 그 무슨 책임자라고 자처하지 않았는가.

끓어오르는 자책감으로 하여 나의 가슴은 미여지듯 아팠다.

우수수 불어오는 선들바람이 축축히 젖어드는 목전을 씨원히 식혀준다.

광산마을로 통한 지름길로 하루일을 끝낸 청년남녀들이 희희낙락 웃음꽃 피우며 물려온다. 아마 청년회관으로 가는 씨클원인가싶다.

그들은 이 단층건물앞에 이르자 일시에 입을 다물고 웬일인지 걸음을 멈추었다.

우리 연구사의 건강을 걱정해서일가?

아니, 그곳에서 한 생명을 위하여 싸우는 의료일군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일것이다! …

나는 진료소장의 방문앞으로 걸음을 재우쳤다. 불과 몇걸음 되지 않는 지척이건만 것처럼 멀어보여…

열어놓은 창문으로 방안의 불빛이 쏟아져나왔다. 하르르한 창문보가 밝은 불빛속에 휩싸이며 미풍이 불 때마다 우등불처럼 타오른다. 언젠가 잊을수 없는 그날, 숲속의 하늘가에 타오르던 우등불처럼…

## 파괴된 굴뚝앞에서

리 수 덕

조국강산에 질게 서리였던 전쟁의 포연이 가셔진 지도 어언간 30여년 세월이 흘러갔다. 전후의 그날 재가루만이 흩날리던 폐허우에 오늘은 공장굴뚝들이 숲처럼 일떠서 창조의 연기를 뿜고 초연에 그슬렸던 산과 들은 풍만한 과원과 규격포전으로 잘 꾸려져 해마다 오곡백과 무르익고있다.

정말 조국땅은 그 언제 이 강산에 가렬한 전쟁이 있었던가싶게 락원으로 전변되었다.

이 행복의 락원우에 아직도 파편과 탄알자국이 력력한 허리부러진 공장굴뚝이 남아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선뜻 믿으려 하지 않을것이다.

나는 얼마전에 그 굴뚝을 직접 보았다.

내가 천리마의 고향-강선제강소를 찾아갔을 때였다.

제강소의 심장부라고도 할수 있는 1강철직장 용해장으로 향해가던 나는 문득 문어구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견학차로 공장에 찾아온듯한 어린 소년단원들과 대학생들, 로동청년들이 나이지속한 한 로장을 에워싸고 이야기를 듣고있었던것이다.

나는 호기심을 금치못해 가까이 다가갔다.

《...이 파괴된 굴뚝을 무심히 보지 마십시오.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날강도놈들은 공장을 파괴하려고 이 제강소구내에만도 1만 2천여발의 폭탄을 떨어뜨리고 포탄과 기총탄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허리가 끊어진 이 굴뚝은 미제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온 세상에 고발하며 오늘도 이렇게 서있습니다.》

세월의 눈비에도 씻기지 않은듯 아직도 남아있는 거무칙칙한 흔적, 여기저기 파편과 기총탄에 활쾅고 뿜린 술한 자욱들...

진정 상처입은 굴뚝은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보라, 잔악무도한 원쑤 미제의 만행을! 그리고 잊지 말라! 오늘의 이 공장이 어떤 폐허우에 일떠섰는가.》 하고 소리치는듯싶었다.

나는 로장의 이야기를 통해 이 굴뚝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가슴후덕게 받아안게 되었다.

정전된지 1주일밖에 되지 않은 1953년 8월 어느날 이였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후복구건설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신 그 바쁘신 나날에도 이곳 제강소를 몸소 찾아주시었다.

처참하게 파괴된 공장정경을 오래동안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땀을 들으실 생각도 잊으시고

길길이 자란 풀숲을 헤치시며 제강소구내길을 앞장서 걸으시었다. 물이 고인 폭탄구덩이들사이를 에도시여 강철직장터전앞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철골이 얼기설기 엮히고 로체마저 허양 떨어져나간 굴뚝에 시선을 멈추시었다.

못내 가슴이 아파신듯 허리가 뭉쳐 끊어진 굴뚝을 한동안 지켜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저 굴뚝은 남겨두고 미제의 야수성을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폭로해야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속에는 원쑤 미제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반제사상으로 후대들과 우리 인민들을 교양하여 참다운 혁명전사로 키우시려는 높은 뜻이 깃들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만일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높은 계급의식과 혁명정신을 가질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오늘의 행복한 생활에 만족하여 혁명을 포기할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우리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여기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가슴속에 되새기는 나의 생각은 깊어졌다. 이 땅에 포연이 가선지도 30여년, 그동안 많은것이 변하고 달라졌어도 우리의 파념만은 변치 않았다.

열기를 띤 용해공의 이야기에 귀를 강구고 서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의 눈동자마다엔 원쑤에 대한 증오의 불빛이 숏불처럼 이글거리고있었다.

출생년도를 60년대와 70년대에 둔 이 새세대들, 창조와 건설의 나날에 벅찬 기쁨과 행복만을 안고 자라온 이들에게 있어서 전쟁의 참화를 들춰왔던 미제의 죄행에 대한 산 증견자-파괴된 굴뚝이 가슴마다 던져준 충격은 그리도 컸던것이다.

《우리 용해공들은 이 굴뚝에 깃든 사연을 늘쌍 가슴에 되새기면서 전후 그 어렵던 나날에도 불과 40일만에 2호전기로를 복구하여 첫 쇠물을 뽑았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100년이 걸려도 조선은 다시 일어 서지 못한다고 떠벌이던 미국놈의 정수리에 퍼붓는 복수의 불벼락이였고 미국놈의 코대를 또다시 꺾은 증오의 반격이었지요.》

로장의 걱정엔 넘친 목소리에 견학생들의 얼굴엔 사뭇 통쾌한 빛이 어렸다.

허리가 끊어진 공장굴뚝을 다시 바라보는 나는 가슴이 뚫트해졌다.

지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는 모조리 불태우고 모조리 파괴함으로써 조선인민의 억센 기개를 꺾어보려 어리석게도 날뛰었다. 그러나 실상 전쟁에서 코대가 꺾이고 허리가 부러져 멸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된것은 과연 어느놈인가? 바로 미제침략자들인것이다.

전설적영웅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받들고 싸웠기에 우리 인민은 전쟁의 모진 참화속에서도 오히려 백배의 완강한 투지로 원썩 미제를 쳐물리쳤고 전후에는 복구건설의 마치를 추켜들고 불사신처럼 일떠서서 보다 우람찬 공장굴뚝들과 보다 아름다운 도시들을 수없이 건설하였다.

사랑과 증오를 안고사는 강철전사들의 마음 쇠물보다 더 뜨겁다.

이곳 강철전사들은 나라안팎의 정세가 매우 어려웠던 1956-1957년도에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북진》 소동과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짓부

시는 마음으로 6만톤 공칭능력의 분피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편을 생산함으로써 다시한번 강선로동계급의 본때를 보여주었다.

파괴된 공장굴뚝을 눈에 익혀두고싶은 충동을 안고 재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뇌리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저 굴뚝을 어찌 준엄한 전쟁이 남긴 한갓 유물로만 볼수 있으랴.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대로 우리 인민들과 혁명의 후대들이 오늘의 행복에 도취되어 피땀한 원썩놈들을 잊지 않도록 계급적자각을 높여주며 오늘도 조국의 절반땅에 등지를 틀고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있는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해야 할 성스러운 임무가 우리의 어깨우에 놓여있음을 마음속깊이 새겨주는 혁명교양, 계급교양의 생동한 직관물이다.)

그렇다. 이 땅우에 무쇠철탑과 아슬한 공장굴뚝들,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라 조국강산이 날마다 자기의 모습을 일신해가도 제국주의 마지막 아성이 무너질 때까지 허리부러진 이 굴뚝은 우리 인민에게 미제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교발하며 서있을것이다.

## 미소

### 신 형 길

창문가에 붉게 타는  
한떨기의 꽃이런듯  
아가야 늘쌍 좋더라  
밝은 얼굴에 피어난 그 미소

따라서며 반겨주더라  
초소길에 나서는 아침이면  
걸음마 아장 아장  
동구밖에 손 저어주며...

잠복의 긴긴밤이면  
마음의 길동무 되어  
꽃피는 계절이 오면  
향기질은 한점 바람이 되어

정다운 미소여, 너는 정녕

풀잔디우에 덩굴며 안고자란 나의  
꿈이 아니더냐  
잠시 떠나도 못견디게 그리운  
고향산천의 맑은 시내물소리 아니더냐

그러볼수록  
이 내 가슴에 우렁한  
그 모습...  
그 웃음...

그 미소를 한모습으로 안고  
맹호같이 돌격전에 달려가지 않았던가  
아, 너는  
병사들의 기쁨이며 미래!  
나의 심장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철 피여 아름다운 미소-조국의 꽃이여!

# 기적소리 높은 역구내에 서니

리금녀

불어오는 가을바람  
어서 가자고 재촉하는듯  
산기슭 들국화  
하많은 이야기 속삭여주는듯  
마음 자꾸만 설레이는 아침

나오지 말라고  
젊은이들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 몇번 당부를 받았건만  
기적소리 못견디게 나를 불러  
한결음 두걸음  
끝내 역구내에 나와섰네

노래소리  
웃음소리  
날리는 돌격대의 기발  
그아래 모자 깊숙이 눌러쓰는 그 사람  
언듯 나를 향하는 눈길에  
알릴듯 말듯 반기는 미소

인제는 레사로워진  
저 배낭준비가  
전에는 얼마나 품이 들었던가  
터전을 닦던 전후  
제대군인 저사람을 처음 떠나보내던  
그날에는

마치 전선길에 다시 나서듯  
자기는 즐거워 떠났지만  
방안이 설령하여  
때로는 고깝게도 생각했었지  
하필 연공납편을 만났는가고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언제부터였던가  
비날론공장건설장에  
야금기지건설장에  
떠나보내고 떠나보내며  
신문에서 소문나는 그곳마다  
그이가 있다는 자랑이 싹트고 자란것은

온 나라가 흥분하여 마음 달리는곳  
아,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족하시어  
조업의 테프를 끊어주시는  
영광의 화면을

텔레비죤에서 뵈옵는 순간  
목청껏 웨치고싶었어라  
우리 아이 아버지가 거기 철탑을 세웠다고

아침저녁  
출퇴근길 함께 걷지 않았어도 좋았다  
사택마을 불밝은 한때  
아이들의 재롱을 자주 받아주지 못했어도  
보람찬 나날이었다.

날이 새면 그 새날에  
저물면 그 저녁에  
만년대계 기념비에 바치는  
로동이 기쁨 함께 나누며  
조국의 큰 숨결 안게 된  
나는 연공의 안해

나라의 크고 작은 일  
어느덧 내 집안일처럼 소중해지고  
지고 떠나는 저 배낭에  
안해의 소원만이 아닌  
시대의 념원을 뜨거이 담기에

이 아침  
또다시 우리 당이 부르는  
5개지구전선  
들끓는 격전장에 달려가는 사랑하는 사람이  
흰 귀밀을 모자밑에 감추는 그 심정  
나만이 알고  
오래오래 꽃다발을 흔드나니

기차는 움직이고  
승강대우에 마주 흔들던 손길  
산굽이에 사려졌어도  
기적소리높은 이 구내에서는  
다 보이네

언제나 이길에  
내마음 함께 안고 달려가는  
납편의 그 모습이  
위대한 수령님 믿어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내세워주시어  
영원한 청춘으로만 사는  
건설자, 여전한 그 모습이



## 그해 봄

리 복 은

불꽃이 벙끗거리고 기계소리, 쇠붙이소리가 한시도 멎는 날이 없는 주물직장으로 일터를 옮긴 기계기사 마성호를 두고 구구한 말들이 돌아갔다.

그렇법이, 요 며칠전까지만 하여도 기사의 일터는 햇빛보다도 전등불빛이 더 환한 설계실의 조용한 한쪽 구석에 있었다. 돌연히 소란스러운 장소로 일터가 옮겨지자 그의 이름은 수많은 기계를 창안설계한 공로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빛도 잃고 사라지는가싶었다. 벌써 일터가 옮겨지는 그날로 억측인지는 모르나 별말이 다 돌아갔다. 입방아를 찧기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의 허끝에서는 듣기도 거북한 소리까지 굴렀다. 그 소리는 뿔이 뿔힌 베아링을 키운 기계소리와 흡사했다. 하지만 누구나 불쾌하게 들으면서도 거기에 마음 끌리듯 귀를 기울여보는것이 문제였다. 종당에 그 거칠은 소리는 얼굴이 갈수록 남없이 눈매가 시원스러워 못사람들의 시선을 종종 반군하는 압전한 안해(양복점재단사였다.) 박순덕의 귀에까지 가닿아 부부간에는 결혼한 이래 첫금이 실릴번까지도 하였다...

저녁이었다. 박순덕은 옷걸개에 걸린 남편의 모자에서 볼티에 뚫린 팔알만한 구멍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을 구실로 그는 남편과 마주설 힘을 얻게된 것이었다.

그는 해쓱해진 낯을 풀고 이렇게 부르짖듯 말하였다.

《당신은 절 속이며 살고있지요?... 무슨 파오로 일터를 바꿨어요. 지금 사람들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아세요? 당신에 대해 기연미연하던 모든것을 오늘에야 확정했어요. 당신도 귀가 아플거예요.

...어째서 남들의 말을 동냥해서 당신을 알게되나요? 정말 섭섭해요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고 살아간다는게 말이 되지않아요.》

무거운 침묵이 방안에 드리워 그들을 꼭 눌렀다.

박순덕은 서글프기가 그지없었다. 사랑도 그리고 일도 성실한 남편이라고만 믿어왔고 또 그러기를 바라며 산것이 아니었던가. 그는 이제부터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자기들의 존재는 옷을 짓고 남은 자투리천 모양 쓸모가 없는 인간으로 돼버리는듯싶어 다르게는 몸부림칠수 없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못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남편이었다는데로부터 고통과 불안은 더욱 큰 것이었다. 그 모든 것이 오늘은 뒤죽박죽이 되다니... 박순덕은 입술을 깨물고나서 한번 더 남편한테 달려붙었다.

《이제는 학위논문도 귀찮아버렸겠지요?》

순간 안해의 말이 정통으로 가슴을 찌르기라도 한 듯 마성호의 눈에 채찍같은 불꽃이 번뜩 달리었다.

《뒤편구?!...》

《여래 써오던 논문말이에요. 당신은 버렸을거예요.》

지금 남편은 어려해 준비해오던 학위논문도 멀리 밀어놓은것만 같았다.

박순덕은 빨개진 얼굴을 옆으로 들었다.

남편의 학위론문이 어서빨리 완성되기를 바라던 박순덕이었다...

한달전에 있었던 일만 기억해보아도 박순덕의 달콤한 생활의 꿈은 그 학위론문에 한것 무르녹아있었다.

사실 그랬다. 그날 부피가 두툼한 책을 가지고 집에 들어온 남편의 입에서 안해를 한번 떠보듯하는 능청스러운 말이 울려나와 박순덕은 내심 놀랐다.

《이걸 좀 보오. 끝내 성공했거던...》

남편과 막역한 사이인 한 친구의 학위논문이라는 것을 박순덕은 인차 알아차렸다.

《오늘밤 우리 그 친구를 위해 축하를 해줘야겠소... 당신도 결혼식때 봤겠지. 그 친구 무엇을 좋아하느니말이요... 좀 있소?》

박순덕은 친구가 집에 찾아와있기라도 한듯 점점 더 입이 헤쳐지는 남편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친구의 성공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남편의 거동에는 조금도 가식이 없는듯싶었다.

그래 걸음도 가벼이 부엌으로 나갔던 박순덕은 소박하게 상을 챙겨가지고 들어왔다. 목이 기다란 병도 올라있었다. 그는 병마개를 따며 흥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을 위해 마련해놓았던것 같군요. 호호호.》

빈잔을 채우는 쪼로록소리가 박순덕이 한번 지어본 웃음처럼 상우로 굴러갔다.

밤하늘의 영글은 별들도 창가에 어려 빛을 뿌리는 밤이었다.

《당신 논문이 완성되는 날 친구도 이러겠지요.》

《음, 그만 북소. 넘쳐나오.》

《정말 그사이 친구들은 몰라보게 발전했어요. 우리는 그것두 모르고 제자리걸음만 한것 같고요...》

《건 또 무슨 소리요?...》

잔을 쳐들던 남편의 손이 상우에서 떡 굳어지는 바람에 박순덕은 변명하듯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단말이에요. 당신을 위해 내가 오늘밤을 마련했으면 얼마나 좋겠나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맥주맛 잃겠소.》

...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생활이 귀찮았다. 남을 위해서라면 평시 거들떠보지조차 많던 목이 기다란 병까지도 서슴지 않고 찾은 남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미쁘게 생각한것이 지금 한조박도 남아있는것 같지 않았다. 남편은 일터를 옮긴 다음부터는 창조적인 사색만이 아닌 사나이의 자존심까지도 어데다 짱그리 파묻어버리고 외판 구석에서 쓸쓸히 허덕이며 사람들의 원망을 받는것만 같았다.

그날밤에도, 또 그 다음날 밤에도 박순덕은 곁에서 남편의 숨결을 들을수록 자기는 한껏 줄아든 존재로 그리고 남남처럼 여겨지는 불안을 좀처럼 가시여낼 길이 없었다.

박순덕은 어느때보다도 일찌기 양복점에서 나왔다. 집에 온 그는 토방에 올라서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파랗란 하늘은 금시 마당가에 몽땅 내려오는듯 눈시울이 사물거렸다. 얼른 하늘가에서 시선을 떼고 마당 한 가락으로 눈길을 보냈다. 넓은일정향나무가 눈앞으로 들어왔다. 아지들에 붙은 꽃옴들은 벌써 줄기에서 보내준 달디단 진액에 맛을 흠뻑 본듯 부풀어있었다. 이 넓은일정향나무를 심은것은 남편이었다. 3년전 집을 잡은 그날 남편은 어데가서 나무를 깎고 팔고였다. 향기가 많은 꽃나무라는것을 인차 가려보지 못한 박순덕은 차라리 관상용으로 심을바에는 이 파리로도 꽃도 화려한 나무를 선택하여 심는것이 좋을상싶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자 마성호는 꽃이라느거야 향기를 받는 재미에 가꾸는것이 더 좋다면서 이렇게 깨우쳐주듯 말하는것이였다.

《꽃 하나만을 보기 위해서라면 구태여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넣고 물을 주며 나무를 가꿀 필요가 없지. 종이장으로도 얼마든지 보기 좋은 꽃을 만들수 있으니말이요... 꽃이 아름답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런것만이 아니요..》

작년봄 꽃나무는 남편말마따나 망울을 터치면서부터 향기도 짙게 풍겼다. 박순덕은 향기에 취한듯 소녀처럼 기쁨에 겨워 남편에게 말했다.

《정말 라이라크처럼 향기가 많은 꽃나무는 더 없는가봐요. 나란히 한그루 더 심었으면 좋겠어요.》

마성호는 안해의 말을 들어보고서는 왜선지 무엇인가 한참 생각하더니 통명스러운 어조로 언지시 말하는것 이였다.

《이자 뭐라 말했소. 라이라크라구?...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않소. 우리 식으로 만든 이름이 있단말이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거던...》

박순덕은 남편의 깨우침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빨개진 얼굴만 감춰보이느라 애썼다.

그후 어느 찜시간에 새로 나온 우리 말 사전을 뒤져보았는데 아닐세라 남편의 말대로 우리 식으로 지

은 꽃나무 이름이 올라있는것을 보고 박순덕은 다시 한번 얼굴을 붉혔었다.

별서 세해겨울을 나다보니 꽃나무원줄기는 실하게 자랐다. 박순덕은 꽃나무를 말없는 벗처럼 사랑하였다. 누가 아니라 남편이 심고 키운 꽃나무라는데선지, 아니면 아직 집에 들어오면 밥상에 마주앉는 사람이 단둘, 한쪽은 마성호, 맞은쪽은 박순덕, 그외 더 다른 자리를 맡은 식구가 없는것이여서 이런 레사로운 꽃나무에까지 재미를 붙이고 사랑도 향기질은 꽃송이에 실어보는지...

이러나간에 오늘은 더 뜻깊게 보이는 꽃나무였다. 그는 방안으로 들어갔다. 인차 허드레 의복으로 바뀌 입고 창문에 다가서서 유리에 붙은 방풍종이를 뜯어내기 시작하였다. 서컨으로 쑥 떨어진 저녁해살이 아직 창문을 넘어서지 못한채 박순덕의 몸애다 감빛무늬를 수놓았다.

한동안 종이를 뜯어내던 그는 유리를 통해 꽃나무애다 다시 시선을 박았다. 꽃나무에는 부리가 몽통하고 배허벅에 빨간점이 살짝 찍힌 새 한마리가 가느다란 가지에 앉아 꼬지를 싹싹 털며 위태스럽게 한들대더니 고개를 가웃하고는 어데로인가 휘탁! 달아가버렸다. 그 순간 박순덕은 《어마나?!》하고 소녀처럼 가벼운 비명을 질렀다. 얼굴이 화끈 달고 숨도 좀 가뻔했다. 그는 멍없이 놀란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가슴은 그냥 뛰었다. 문가에서 물러났다. 그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듯 봉긋한 그우에 손을 얹어보며 눈을 살며시 감았다. 무엇인가 애써 생각하려는것이였다. 무척 힘들었다.

요즘 신경이 왜 예민해질까?... 한번 더 생각했다. 예민한 그것에는 확실히 무엇이 있었다. 말못할 그 무엇과도 같았다.

후날 박순덕은 이 일을 두고두고 기억하였다.

마성호도 안해한테서 새때문에 놀랐다는 이야기를 펴 후에 들어보고 껄껄 웃으며 박순덕을 골려주듯 수제 하지 않던 룡까지 하는것이였다. 녀자란 역시 남자와 다른 그 무엇이 있다고.

하긴 백번 옳았다. 박순덕은 비로소 자기 체내에서 급작스레 일어나는 새로운 숨결을 맛보며 거기에 가슴을 태워보는중이였다. 난생 처음이였다.

새로운것이자 처음이였고 처음이자 아직은 부끄러운 일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방금 놀랐고 자기를 걸잡지 못했다. 어느때건 도래할 일이 삼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박순덕의 가슴을 흔들어놓을줄은 그자신도 미처 몰랐다. 배허벅이 빨간새, 그 새는 한껏 피워놓을대로 피워놓은 소중했던 한 시절의 생활에 종지부를 찍어놓고 달아난듯싶었다. 충격은 크면서도 미쁘고 가슴 들레이는것이였다. 가정을 가진 녀성들 거개가 그러하듯 저으기 긴장하고 행복하였다. 그는 그 려보았다.

둘반 밥상에 나왔던 그 생활은 이 대목에 이르러 깨여지고있는것이다. 밥 《투정군》은 《어머니》를 못살게도 굴것이다. 남편의 얼굴도 그려보았다. 옷을 가, 부끄러워할가, 침묵일가...

박순덕은 다시 남편과 마주앉아볼것을 계획하였다. 남편의 일은 비단 둘문제에만 국한된 레사로운것이 아니었다.

며칠간 남편의 얼굴을 조심스러이 훑쳐보던 박순덕은 그날만은 우정 방안을 더 깨끗이 거두었다. 남편이 퇴근하여 요새 밤늦도록 보던 책들도 장궤속이 박아넣었다. 남편은 무엇인가 느껴볼것이다. 만약 눈귀가 무디더라도 보던 책은 찾을것이다. 그러면 시작은 된셈이다. 박순덕은 그렇게해서라도 이 밤은 꼭 모든것을 알아내리라 마음먹었다.

일은 처음 예견대로 딱 들어맞았다. 남편은 옷방에 올라가 무엇인가 찾더니 책이 아니라 수첩을 못봤는가고 묻는것이였다. 박순덕은 부엌에서 방으로 들어갔다. 수첩은 책장이 아니라 책상서랍 한쪽구석에서 숨박꼭질하고있었다. 수첩을 꺼내놓았다. 그러며 이렇게 느닷없이 말을 걸었다. 《사실 전 당신의... (여기서 그는 《당신의 파오》라고 하려다 《처사》라는 말마디를 기억해내느라 더듬었다.) 당신의 처사를 놓고 더 아픈 소리를 안하자고 했어요. 제가 그런다고 당신생활에 변화가 있었어요. 전 안해예요. 그래서 모든것을 수격수격 받아주고 기억에서 지워버리자고 마음먹었했어요.

또 지워버렸했어요. 그러나 저는 다시 마음이 움직였어요... 현장으로 내려간 진짜 원인이 어느 사람들이 보는것과 다름이 없겠지요? ...말해주세요. 저도 이제는 알아야 해요. 저도 힘을 내여 당신을 돕고싶어요. 도와야 해요. 후날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제는 우리 둘 문제가 아니예요.》 박순덕은 조금 동안을 두고나서 계속 말했다. 《친구의 학위론문을 진정으로 축하해준 날 당신도 생각했거예요. 솔직히 전 이제는 손맥이 풀려요, 저도 자존심을 버렸어요. 친구들은 우리의 처사를 알면 모두가 환멸을 느낄거예요... 그래요. 당신은 다시 학위론문을 집필할 펜과 원고지를 찾아야 해요. 남들의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사는것도 중요하지만 당신도 남들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야 해요. 저의 말이 너무 경박한지는 모르겠어요. 또 제가 당신의 공명과 명예만을 주장하는 그릇된 녀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수치로 보지 않아요. 오늘 이 말을 하려고 굳이 각오했어요. 리해해주세요...》

정녕 박순덕은 자기의 진실을 토해버린 이 순간이 고통스러우면서도 후련하게 느껴지였다. 자기와 남편간에 지금껏 유지해오던 마음속 그 저울에서 마지막 한그람을 퍼내여 보인것이 아닌가. 어느 한쪽이 오르거나 내릴것만은 당연한것이였다.

그는 그렇게 해서라도 지난날 생활의 그 안정을 찾고 기대했던 모든것을 속히 수습했으면 바랐다.

마성호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그는 안해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고서야 의미심장하게 묻는것이였다.

《파오를 씻고 논문집필에 착수하란말이지?...》

《...》

박순덕은 소곳였던 고개를 쳐들었다.

《만약 지금 밖에서 떠도는 말처럼 논문몽치를 재가루로 날려버렸다면 어떻게 할 차비요?...》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소. 또 그런 논문을 세상에 공개하고싶지도 않소. 공개되었다쳐도 나를 위해 축하해줄 사람은 한명도 없을거요. 그런 수치를 무릅쓰고 살 필요가 없단말이요.》

마성호는 문득 말을 끊고 옷방에 올라가 책장속에서 학습장 한권을 꺼내가지고 내려왔다. 그는 다시 그 목소리도 말을 이어놓았다. 《나라에 리득을 주지 못하는 논문을 집필한다는것은 사실상 씻을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것과 조금도 다를바가 없소. 난 조용한 방에 앉아 논문을 집필할 자격을 이미 그전부터 상실한채 살아온 기사였댔소. 현실은 참고서적 따위나 뒤지면서 논문이나 집필하며 살아가는 나의 빈구석을 드러내놓게 했소...》

《...?!》

박순덕은 남편을 의아쩍게 바라보았다.

마성호는 나직한 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도 알지 않소. 내가 학위론문을 쓰겠다고하니 나라에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로력을 아끼지 않고 대주었는가에 대해서말이요... 머리에 빈곤이 생기면 재차 공부도 하라고 가고싶다는데도 다 보내주어 책을 읽게 하였고 지혜가 무디여져서는 안된다고 훌륭한 일터에 세워주고 따듯이 보살펴주었소. 그런데 나는 적당히 오금을 썼소. 학위만 꿈꾸면서 현실과 담을 쌓고 살았단말이요. 면목은 세워야했기에 이틀을 조금씩 팔아먹는 밥벌이군으로 산 나였다는것이 이번에 드러났소. ...은덕에는 노력으로 보답하라는 말이 있소. 나는 나라와 인민 앞에 한 일이 너무도 없소.

여기 내가 국가로부터 얼마만한 혜택을 받으며 논문을 집필했는가 하는 대답들이 적혀있으니 한번 보오. 따지고보면 공민으로서 국가앞에 진 빚이라고도 말할수 있소.》

박순덕은 남편이 내민 학습장을 받아보았다. 대뜸 그의 눈으로는 많은 수자들이 몰려들었다. 논문의 성과를 담보해주기 위해 나라에서 돌려준 로력이며 실험용 자재값들이였다. 과연 남편의 파오가 여기에 엉켜있단말인가. 그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당신 혼사서 이 많은것을 썼단말이예요?》

《.....》

대답은 역시 무거운 침묵이였다.

《아니예요!》  
 《그러지 마오.》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잤아야 하오.》  
 《무엇으로요.》  
 《이자 당신도 힘이 있다 하지 않았소》  
 《전 리해가 안돼요...》

하고 박순덕은 얼굴을 푹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무엇인가 목구멍으로 치미는 말이 있었다.

《거짓말이에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 많은것을 혼자서 쓸수는 없어요. 그것을 모르고 자기 론문을 집필할 당신이 아니예요. 당신은 내가 안해라고 너무 숏보고 그래요. 나도 인간이에요. 당신을 사랑할 권리를 가진 안해이며 또 사랑도 받을 인간이에요. 그걸 나에게 강조할 근거가 뭐예요. 난 그런 당신을 바라지 않았어요. 너무해요.》

이런 말마디가 목구멍으로 넘어왔으나 입밖으로 드러낼 힘은 벌써 쟁그리 빼앗긴 박순덕이었다.

마성호는 텔레비존을 켜놓고 옷방으로 올라갔다. 그뒤로 박순덕이도 무거운 몸을 일으켜 책장길숙이 박아넣었던 책을 도로 꺼내어 책상우에 올려놓고 내려왔다.

텔레비존화면에서는 《창광원》의 물놀이장에 뛰여든 아이들이 비껴 흘러가고있었다. 좋아라 뛰노는 그 천진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한층 고조되어 울려나왔다.

며칠이 지나갔다. 주문받았던 양복을 돌려주고 돌아오던 박순덕은 앞에서 가는 차정수란 청년을 발견하였다. 집에 찾아오는 많은 노동자들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남편을 제일 따르는 청년이었다.

지금 남편은 함께 일하고있었다.

박순덕은 놀란듯 청년의 뒤모습에 시선을 불인채 주춤거리며 그를 불러보려는듯 입을 움썹거렸다. 그러나 그는 인차 마음을 달리 가졌다. 요 며칠전 지금과 비슷한 정황에서 무안을 느껴본 그였다. 그날도 뜻밖에 양복점앞으로 지나가는 청년을 창너머 본 즉시 밖에 나가 불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부름소리가 너무 가냘팠던지 청년은 어느 골목으로 돌아서더니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분명 자기를 피하는것 같았다. 저런 좋은 청년까지 다 잃고 지금 외토리신세로 남편이 사는것 같아 박순덕은 땅으로 다 잣아드는듯 싶었다...

고개를 숙이고 타타타박 걸는데 누가 《아주머니! 아주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에 박순덕은 생각에서 깨어나며 앞을 살폈다. 청년이 종종걸음으로 다가오고있었다. 어떤 기척에 뒤를 돌아보다 자기를 본 모양이었다.

청년은 다가서며 박순덕의 얼굴을 한번 언뜻 살펴보다니 《어디 편찮은데라도 있습니까?》 하고 놀란듯 묻는것 이었다.

박순덕은 매우 당황하였다. 그는 얼굴을 감추듯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올렸다. 그러며 간신히 입을 벌려 《아니요...》 하고 나직이 중얼거렸다. 미소도 질게 지으려고 애썼다. 허나 모든것은 왜선지 억지로 꾸민것처럼 되는양싶어 얼굴이 화끈거렸다.

《에 ...》

차정수는 박순덕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며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주억거리더니 대번에 《아주머니, 저기 가서 좀 앉지 않겠어요.》 하고 먼발치에 있는 공원을 턱으로 가리키는것이였다.

청년은 무작정 박순덕을 끌었다. 그는 걸으며 혼자 소리처럼 한마디 더 중얼거렸다. 《아주머니얼굴을 보니 말이 아니군요. 아무래도 까뵈혀놓아야겠습니 다.》

박순덕은 꿈속에서처럼 그 소리를 들었다. 은연중 한숨이 나왔다. 리해되였다. 그래 그는 얼굴을 붉히였다.

어느덧 그들은 평평한 세멘트의자에 앉았다. 박순덕은 다소 밀이 선풍하게 느껴졌으나 그런데는 신경이 갈 아무런 마음속 여유가 없었다. 머리에에는 물기가 오르기 시작한 실버들가지가 낮추 드리워있었다.

차정수는 더 주저하는 기색이 없이 말을 떼는것이였다.

그것은 마성호기사한테는 과오가 없으니 아주머니 공연히 마음고생을 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이였다. 그러며 마성호가 일터를 바꾸게 된 진짜 이유를 자초지종 말하였다.

박순덕은 남편과 함께 일하는 청년도 과오를 범한것만 같아 처음 가슴이 선풍하였다. 그것은 마치 다 아문줄 알았던 상처에서 다시금 아픔을 느껴볼 때와 같은 고통이였다. 긴장해졌다. 그는 귀를 도사리고 차정수의 목소리를 새겨들었다.

《...우리가 하는 일이란 수많은 대상설비에 필요한 소재를 쇠물에서 뽑아내는것입니다. 그래서 몇종의 규격화된 소재를 내놓고는 다른것들은 여러가지 공정을 걸쳐야 소재로 완성됩니다. 그러니 우리 작업반은 특수한 조건에서 일한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대상설비에 들어가는 매 제품이 다 다르니까말입니다. 형타를 만들고 쇠물을 끓여 붓고 소재를 뽑아 모래를 털어내고... 이런 공정을 걸쳐야 기계부속형태를 갖춘 소재를 보게 되니 좀 복잡한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글세 모래를 깨끗이 털지 못한 소재가 어찌다 한두개 넘어간 때이면 그 즉시 단발머리 선반공까지 찾아와서 <동무, 바이트는 쇠를 깎으라고 생긴 공구지 모래를 털라고 생긴것은 아니예요.>이런답니

다. 그건 그래도 낫습니다. 소재를 빨리 내라고 여기 저기서 손을 내밀 때는 우린 정말 소재에서 모래를 털어내느라 바빠 돌아치는 판이랍니다. 방법이 새로 나와야 되겠다고 누구나 떠들었고 머리로 짚습니다. 나는 종종 기사동지가 일하는 설계실에도 찾아갔고 또 아주머니 집에도 서슴치 않고 뛰어들곤하였습니다. 이런 심정을 기사동지는 알아주었습니다. 거의 반자동화되다싶이 된 모래터는 기계를 만들어 내놓겠다고 기사동지는 우리와 약속했습니다.

후날 우리는 그 창안품이 기사동지가 학위론문을 집필하는데 필요한 기계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꺾먹고 알먹는격으로 일이 되어가는데 기쁨을 느끼며 성수를 내었습니다. 공장기술혁신조에서도 도와나섰습니다. 조만간 기계도 나오고 기사동지의 논문도 완성될거라고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벌어졌습니다.

한창 새 기계를 설계하는 기사동지의 사업에 끼여든 <방해군>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름아닌 차정수였습니다.

기사동지의 사업에서는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차정수는 문득 말을 멈추고 머리에 드리운 버들가지를 톡 잡아채며 비틀어끊었다. 그는 두토막이 난 그 버들가지를 발앞에다 던지며 말하였다.

지난 가을에 한조에서 일하는 오금란이란 처녀와 같이 주형장에 가서 소재를 들고오다가 우연히 발견된 현상이 곧 마상호기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차정수는 이렇게 덧붙여 말하였다.

《그때 소재는 방금 형들에서 뽑아낸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금란동무와 함께 그것을 장대에 꿰어 맞들고오다가 약간 경사진데서 떨어뜨렸는데 글썽 그 소재가 주형공들이 만들어놓은 큼직한 쇠통물함에 데그르 굴러들어갈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땡! 하는 소리가 나고 우린 땡땡해졌습니다.

인차 소재를 꺼냈는데 모래는 말끔히 떨어져있었습니다.

난 과학에서 새로운 법칙을 발견한것만 같았습니다...

그후 여기에 재미붙여 여러차례 해봤지만 뜻대로는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곧 기사동지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설계를 바꾸었다말이에요?》

하고 박순덕은 저도 모르게 차정수의 말꼬리를 잡아채듯 물었다.

《예, 그렇게 되어 바꾸어졌습니다.》

차정수는 조심히 대답했다.

박순덕은 《호-》 한숨을 내뿜었다.

기계가 어떤것인지는 다 알수없는 일이지만 방법을 바꾼데는 무슨 잘못할 사연이 들어있는것만 같았

다. 한 노동자 제기를 받고 오랜 기간 쌓은 탑을 허물어버렸다는 자체도 아직은 이해할수조차없는 일이었다. 아무 바람에나 흔들릴 남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수록 박순덕은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더우기 남편의 학위론문을 위해 자기가 크던작던 뒤받침해준 그 모든 성의와 기대도 지금에 이르러서는 한갓 무용지물처럼 된것이어서 박순덕은 섭섭함을 금할길이 없었다.

그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나직이 물어보았다.

《방향을 바꾸는데 어느 사람들의 의향은 어떠했어요?》

《솔직히 말하여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나섰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것처럼 정열을 기울여오던 논문까지 버리다싶이 하고 방향을 바꾸는 기사동지의 행동에 감복되어 다른 의견들을 철수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의 고집에 맞설 힘이 없었던가보지요... 고집이 이만저만 아니랍니다.》

박순덕은 이번에도 흥심없이 중얼거렸다.

《아니, 고집이라니요?... 아주머니까지 그러면 정말 기사동지의 립장은...》

차정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섭섭히 생각 말아요. 남들로부터 불쾌한 말을 들으며 사는것 같아 그래요.》

순간 차정수는 어깨 들썩이며 웃었다.

《누가 불쾌한 말을 듣는단말입니까. 좌우간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고 속단을 해도 하십시오.》

박순덕은 민망한듯 차정수가 토막내어 발치에 던졌던 그 버들가지를 무심코 집어들었다.

이야기는 다시 이어졌다.

한달전에 생산중간총화가 있었다.

소재생산이 따라서지 못해서 야단났다고 불만이 터졌다. 마성호가 모임에 불리워갔다. 현재 실험단계에 있는 두번째 창안을 그만두고 파악이 있는 첫번째로 돌아가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그 첫번째 창안을 내놓아 긴박한 소재문제를 풀자는 것이었다. 심중해졌다. 마성호의 의견은 달랐다. 발등의 불을 끄는 것으로는 되지만 그렇게는 할수 없다고 강경히 나섰다. 언성들이 약간씩 높다지였다. 심지어 새로 시작한 그 두번째 창안에서 얻으려는 목적이 무엇인가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다.

마성호는 말하였다. 《지금껏 저는 명예가 보이는 길로 걷고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한 노동자가 깨우쳐주었습니다. 나는 노동자동무가 찾은 방법을 안 순간부터 고민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것처럼 애쓰며 논문도 완성하고 설비도 제창하던 이 모든것을 버린다는것은 제살점을 도려내는 일보다 더 아픈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그 논문원고도 불태워버리고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창안한것이 두번째 창안보다 생산성이 적다는데만 문제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보다는 위생조건이 그만 못한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노동자들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애쓰는것이 아니라 자기 명예따위나 바라며 일해왔다는것을 말해줍니다.

생각할수록 몸서리치는 자책감에 이길수 없었던 저였으니 말입니다. 수치스럽지만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청년이 제기한 문제를 원리로 했다는 기계에도 모호한 문제점들이 많다는 등, 첫번째 창안대로 한대도 파오를 범할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는가 하는 등 여러가지 의견이 구구하였다. 했으나 마성호는 조금도 자기 립장을 달리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 향해 집행자가 모가 난 말을 던지였다.

《기사동무는 패배했소! 첫번째도, 두번째도... 짝 걸어치우시오!》

《보다 능률적이고 위생조건이 훨씬 좋은 기계를 완성할수 있다는것을 안 이상 저는 걸어치울 권리가 없습니다. 노동자동무들이 꼭 성공시켜줄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집요하군. 공명이요!...혹시 기사동무의 주장대로 기계가 성공되었다고 봅시다. 그래 몇몇할것 같소. 어떤 희뿔뿔한 학술적인 술어로 새 창안에 대해 써내려 세상에 공개해도 마음은 몇몇치 못할거요. 실머리를 누가 찾아냈소?... 동무의 랑심은 몇몇치 못할거요.》

《여기에 제 개인의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가 착상하고 누가 완성했건가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기계가 완성만 되면 저는 더 바랄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위해 저는 그 무엇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실이 회오리바람처럼 공장에 떠들며 사람들의 귀속으로 파고들었다.

그 다음날 마성호의 일터는 설계실이 아니였다.

그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일터를 바꾼것이였다.

차정수는 문득 말을 끊고 박순덕을 한번 쳐다보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는것이였다.

《누가 뭐라 말라든 우리는 먼 후날에도 흠잡을데 없는 기계를 만들어 내놓아야 한다는것이 기사동지의 주장이였습니다. 그래야 후대들도 우리 시대 인간들의 높은 지향과 숨결을 느끼고 따를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주머니, 기사동지는 결코 당이 키워준 지혜와 재능을 자기자신의 명예나 권위, 그리고 일신의 안락을 위해 써먹는 그런 기술자는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들은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시킬줄 아는 기사동지의 그 뜨거운 마음을 리해할것입니다.》

박순덕의 치마우에는 잘다랗게 토막친 버들가지가 떨어져있었다...

집에 들어온 박순덕은 먼저 거울부터 찾았다.

차정수와 만나자 벌써 거울을 찾고싶었던 그였다.

어떤 형태로 얼굴이 빗어졌기에 차정수까지 놀라게 하여 그의 실토를 듣게 됐는지 알수 없었다.

죄스러웠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아침이나 다름없었다. 요즘 몇 점 핀 검버섯으로 하여 다소 축간듯싶었으나 유연하고 부드러운 얼굴의 룰판은 조금도 흠어져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난생 처음 자기 얼굴이 이처럼 이그러져 보인적은 없었다. 그는 얼른 거울앞에서 몸을 뻗었다. (넌 못난이야. 경망스러운 인간이야.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 자기 혼자만 독차지하고 생활도 화려하게 꾸려보려고 한 바보였어. 난 남편의 그림자도 못돼!...)

모든 사람들을 위해 바쳐야 할 지혜와 재능을 자기의 《명예》나 《권위》를 위하여 써먹는다면 그보다 더 큰 죄악이며 파오가 없다는 남편의 말은 곧 박순덕 자기를 두고 한 말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소박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그들속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는것은 좋은 일이지만 결코 단순하게 차례지는것은 아니다.

박순덕은 바로 그런 한 인간으로부터 자기도 사랑과 존경이 어린 말을 들어보고 한순간이나마 반성해본 일이 부끄럽고도 가슴 설레도록 기뻐다.

아무한테나 그런 사랑의 권리가 부여되어 누리게 되는것은 아니였다. 남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들로부터 그 이상의 사랑을 받게 된다. 아니 그 사랑을 몇몇이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것이 다...

그로부터 여러날이 지난 어느날 박순덕은 남편이 실험작업에서 실패를 면치 못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나 그전날처럼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실패, 그는 믿으려고도 안했다. 어떻게 실패란 말이 남편한테 따라다닐수 있으랴.

박순덕은 더는 그 어떤 고민속에다 자기를 세우며 살고싶지 않았다.

방금도 그랬다.

그가 일하는 재단실로 한 처녀가 머리수건에 싼 물건을 들고 조심히 들어왔다.

무늬 현란한 휘장보로 방한쪽을 막아놓은 칸에서 피는 구름처럼 머리단장을 해 놓인 한 젊은 녀인과 박순덕이 재단자를 들고나왔다.

박순덕은 시원한 눈길로 방안을 둘러보고는 방금 들어선 처녀에게 반색을 하며 의자에 앉아 좀 기다리라 하였다. 그러며 같이 나온 녀인에게 진달래색 비단옷감을 받아들고 《언제까지 지을가요?》하고 물었다. 녀인은 금시 옷감의 색을 빨아 얼굴에 물들인

듯 밭그레해가지고 《일요일이니까...》 하고는 인차 수집음을 싸친채 밖으로 나갔다.

박순덕은 손님을 보내고나서 비로소 어딘가 조심스러워하는 처녀와 마주섰다.

얼굴은 등그스름하고 살색은 가무스름한 편인 처녀의 몸에서는 봄날의 제비처럼 싱싱한 그 무엇이 풍기고있었다.

처녀는 보자기속에서 연회 색의 데트론양복천을 내놓았다. 남자의 양복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박순덕은 양복호수와 형은 어떤것을 하겠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처녀의 얼굴은 대번에 홍시알처럼 빨개지었다.

박순덕은 처녀를 구원해주듯 벽에 붙인 옷본보기 그림을 가리켰다.

《저 그림가운데서 어느것이 마음에 드는지 찾아보세요.》

처녀는 벽에 건 그 그림을 한번 쳐다보더니 모두 그 멋쟁이로 그린 그림들에는 마음이 없는듯 양복천을 꿇을 때 눌어진 실오리를 떼내어 손끝에다 뱅뱅 감는것이였다.

박순덕은 문득 처녀의 거동에서 무엇인가 이상한것을 발견한듯 마음이 울렁거렸다. 버들가지를 꺾어 손으로 비비며 말하던 차정수생각이 새삼스레 뇌리로 지나가는것이였다. 혹 그 오금란이란 처녀가 아닐가. 차정수와 함께 소재를 들고가다가 우연히 새 방법을 찾은 처녀가—

《제끼형이 어때요?》

박순덕은 생각에서 깨어나며 물었다. 차정수라면 그런 형이 제격일것 같아서였다.

처녀는 실오리를 당겨 툭 꿇으며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전, 잘 모르겠어요...》

《직업은 무엇인가요?》

《주물직장 완성작업반에서 일해요.》

《그래요?! ...》

순간 박순덕은 눈앞에 불꽃이 방긋 지나갔다.

예감은 틀림없었다. 무엇때문에 주저하는지 리해되는것이였다. 처녀를 다시금 쳐다보았다.

어데서 많이 본 처녀같은데도 낯이 선 그런 처녀였다. 정말 그 오금란이란 처녀라면... 《금란동무이지요?》 하고 탄성도 지르고 자기품으로 당겨 포옹도 하고 싶었으나 떨리는 것이였다. 어째서인지 더 큰 피로운 말이 쏟아져 자기를 곤경에 몰아넣을것만 같았다. 차정수, 본인이 안오고 처녀에게 들리워 옷을 맡기러 온것만 미루어봐도 충분히 리해가 되였다. 차정수가 오지 않은것을 보면 실패는 큰것이 분명했다. 설음이 울컥 치밀었다.

바로 그런 순간이였다. 박순덕이 나른해진 손목에 와서 잡히는 뜨거운것이 있었다.

《언니, 욕하지 마세요. 전 모든 부끄러움을 참고 여기로 왔어요.》

박순덕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만 끄덕이였다. 모든것이 끝났단말이지. 이제는 금란이란 처녀가 위안해주려고 찾아왔단말이지... 그러면 실패의 값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만 알고싶었다. 모든것이 그저 그렇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더는 가슴이 떨리지 않았다. 다만 입이 굳어져 돌덩이모양 똥똥하게 느껴질뿐, 물을가? 그는 망설이였다. 묻고싶어도 그는 굳어진 그 입을 꺾 힘이 없었다. 또 물을수 없는 질문이였다. 지금껏 그런 물음에 몸을 맡기고 헤맨 자기가 아닌가. 거기에 이길수 없었던 의지로 하여 죄스럽게만 산 안해였다. 몸부림도 거기에 있었다. 남편에 대한 불만, 타발, 멀어만지던 사랑도 그속에 있었다. 그는 다시 그러고싶지 않았다. 새로운 의지와 역센 힘이 간직된 그 어떤 태아가 체내에서 움쉴거리며 자기를 무한정 달구던 때처럼 그는 자기도 모를 힘을 느끼였다. 그것은 바로 다름아닌 자기자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숨결이였다. 또다시 그는 행복했던것이였다!

모든것이 진정된 다음이였다. 처녀는 눈치가 역 빨랐다.

《언니, 걱정 마세요.》

《응.》

《정말이에요.》

《정말?...》

《실패는 했어요.》

《알아요.》

《아니, 언니는 몰라요.》

《...?!》

《실패한 어제 전 기사동지를 찾아갔었어요. 솔직히 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기사동지는 웃으며 금란이도 이제보니 마음이 약한 축이구만. 밥을 태운 어머니가 우는걸 못봤겠지. 왜 태웠는가 끝내 알아내어 다음번에는 훌륭한 밥을 지을거란말이요. 금란이는 자기가 하는 일에 신심이 없는가봐. 그래가지고는 앞으로 계속 탄밥을 상에 올려놓기가 일쑤겠어. 또 진정으로 심장을 누구한테 보여야 할 그런 생활까지도 두렵게 여길게고...》

기사동지는 일이 실패처럼 되였지만 성공의 실머리를 잡았다면서 수첩을 꺼내놓는것이 었어요. 거기에는 소재에 따라 취해야 할 기술적인 수칙들이 깨알처럼 가득 적혀있었어요. 내가 언제인가 헛눈을 팔다 넘어지며 물통에 떨어뜨렸던 소재의 온도까지도 있었어요. 말은 쉽지만 그 많은 수칙들을 밝혀낸다는것은 보통 의지로는 당할수 없는것이였어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제나름으로 말까지 했으니... 난 볼로 눈물이 내리는것도 탓하지 않고 부르짖었어요. <너무해요! 그런 일을 하면서 무엇때문에 쓴 말을 듣나말이에요. 속시원히 말하며 일해선 안되나말이에요.>

<과오야 범한거나 다름없지. 동무들속에서 일하면서 더 절실히 느꼈다면, 왜 내가 미리 함께 손잡고 일하지 못했던가 하고 말이요.>

<아니예요.>

<아니, 건 모르는 소리,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것은 과오가 아닐가— 자기만을 먼저 생각하며 산다는 거기에 엄중성이 있어. 누구나 이러면 당의 방침이 어떻게 잘 관철되겠나말이야. 난 기술자지. 기술자가 자기 구실을 다 하지 못한 과오 이상 엄중한것은 없지. 3대기술혁명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 나는 자기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기술자였어. 현실에 내려가 실지 급란이랑 생활하며 겪어보니 더욱 모든것이 명백해졌어. 당의 방침을 한시라도 빨리 실천해나가려는 강한 의지와 높은 책임성만 있었다면야 벌써 우리가 만드는 기계는 실현되어 로동은 보다 더 흥겨워졌을거야.>

언니, 저는 정말 귀중한걸 알았어요... 어떻게 비유해 말할까요?... 갑자기 신통한 말이 생각 안나요. 하여간 사람은 마음이 굳세야 모든것이 제대로 잘된다는것을 배웠어요... 모두 기사동지를 존경해요. 또 존경을 마땅히 받으며 살 권리가 있어요. 마음이 굳센 사람은 남을 위한 일에서도 것처럼 열정인가봐요. 언니는 정말 행복해요.》

처녀는 계속 시를 읊조리듯 말했다.

《오늘은 꼭... 알만해요? ...》

《호호...》

《축하해주세요. 성공이란 말대신 승리했다고요. 자신있지요, 언니!》

《...》

박순덕은 눈곱이 핑 젖어들었다. 지난 때 차정수와 같은 인간으로부터 다시금 사랑을 받아본다는 기꺼

움에서만 아니었다. 그는 비로소 오늘에야 제 주위에 치고있던 울타리에서 단호히 벗어난것만 같아 머리로 몸도 거뜰해졌다. 지난날의 어수룩한 생활들과 깨끗이 결별했다는 기쁨인지 몰랐다. 그는 처녀가 한없이 사랑스러웠다. 또 자기의 깨끗했던 옛모습이 그에게 비껴있는것만 같았다. 그는 처녀가 무척 부러워졌다.

박순덕은 처녀를 포옹하듯 바싹 끌어당겼다.

《언제 시집가겠어요... 부끄러워 말아요. 시집가면 생활이 달라졌다고만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남편의 그늘에 가리워 살자고해요. 모든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 사랑까지도...》

박순덕의 목소리는 저르기 노래처럼 울려나왔다. 《양복을 찾으러 올 때는 꼭 차동무와 같이 와야 해요.》

처녀는 아까 이 방에서 일요일이라는 말도 변변히 못때고 떠난 그 구름머리녀인생각이 문득 들어 얼굴을 빨갱게 물들었다.

《언니, 사실 양복때문에 우정 온것은 아니예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것보다 더 싫어하는것이 없는 기사동지의 눈을 속이려고 차정수동무가 우정 연극처럼 일을 꾸민거예요.

용서하세요. ...》

《호호... 그럼 그것도 또 창안품이군요. 올봄처럼 창안품이 많던 해는 정말 없었던가봐요...

웃감이 들어온이상 그냥 나가도 안돼요. 짓겠어요. 전 벌써 웃감을 다 채단했어요. 좋은 사람의 웃은 주인을 만나보지 않아도 언제나 아름답게 지어지는 법이랍니다.》



## 건설장의 기발

김 정 남

우리 시대의 자랑스런 창조의 기념비가 솟아오르고 있는 순천지구전선건설장은 불도가니처럼 들끓고있다. 길이 미어지게 달리고있는 자동차들과 강철들보를 들어올리고있는 기중기들, 흙을 퍼올리고있는 굴착기들, 곳곳에 나붙어있는 구호들과 기발들, 그리고 전투원들을 위훈으로 부르르고있는 《경제선동대》원들의 나팔소리, 말그대로 건설장은 전선지구의 대작전이 펼쳐진 격전장을 방불케 하고있다.

비날론공장이 일떠서고있는 련포벌과 화력발전소 건설장 그리고 풍치아름다운 대동강반우에 고층아파트가 우뚝우뚝 솟아오르고있는 주택건설장 그 어느 곳을 가보아도 전선지구는 거창한 숨결로 들끓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순천지구전선, 안주지구전선, 청진지구전선, 남포지구전선, 함흥지구전선의 5 개전선건설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 대전망목표를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려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키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찬비를 맞으시며 현지에 나오시여 몸소 터전을 잡아주신 비날론공장을 일떠세우게 된 크나큰 기쁨과 자랑을 안고 달려온 건설자들이 이룩하여 놓은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건설지휘부의 한 일군에게서 들으며 발길을 옮기고있는 우리들의 가슴은 뜨거워났다.

봄별이 짙은 건설장에 숲처럼 솟아오르는 창조물들, 그 어느 하나도 무심히 바라볼수가 없는 건설자들의 뜨거운 충성의 마음이 깃들어있었다.

제 31 화학공장건설자들이 일떠세우고있는 비날론공장건설장으로 찾아간 우리들은 푸르른 하늘가에 치솟은 기둥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우리가 놀란것은 기둥들이 웅장해서가 아니였다. 하기는 기둥들이 웅장한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채직장이 한창 건설중에 있는데 그렇듯 웅장한 기둥들이 일떠선것은 참말로 놀라움과 의혹을 자아내는 일이었다.

부채직장이 건설중에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기둥을 일떠세웠는가고 묻는 우리들의 질문을 받은 그 일군은 싱그레 웃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저 기둥은 비날론공장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합성직장기둥입니다. 우리 건설자들은 비날론공장건설장에 처음으로 세워진 저 기둥을 첫기둥이라고 부르고있습니다. 저 기둥이 건설장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은 사연이 있습니다. 이제 첫기둥을 세운 주인공을 만나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는 첫기둥을 세운 기계화직장 연공작업반장인 공훈건설자 유홍주동무를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를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였다. 넓으나 넓은 건설장에서 그를 찾아낼수도 없었거니와 그를 요행 만난다고 하여도 첫기둥에 깃든 사연을 상세히 들을수 있을것 같지도 않았다. 취재과정에 종종 겪게 되는 일이어서 우리는 맥을 놓지 않고 연공작업반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생활에서는 때로 요행수라는것이 있듯이 취재과정에든 예견치 않은 사람을 만나 좋은 이야기를 들을수도 있는것이다. 우리가 마침 《전투속보》 편집부에 들렀던 연공작업반 세보비서 최봉림동무를 만나게 된것은 요행수를 바랐던 일이 성취된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우리들이 찾아온 사연을 듣고난 최봉림동무는 연공작업반장 유홍주동무가 첫기둥을 건설장에 일떠세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우리는 서둘러 취재수첩을 펼쳤다.

그날은 바로 온 나라가 공화국창건 35 뽕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던 지난해 9 월 9 일이었다. 청춘도시 안주로부터 순천으로 향한 200 리길우에 눈금이 새겨진 지평이를 짚고 걸어가고있는 사람이 있었다. 얼핏 보아서는 먼길을 걷는 길손이 지평이를 짚고 걸음을 재촉하고있는것 같았다. 그러나 그를 눈여겨본 사람들은 눈금이 새겨진 지평이로 도로의 구배와 경사지, 철다리의 높이, 그리고 다리의 통과능력을 수첩에 적어넣는 그를 무심히 보지 않았다.

보통키에 날렵한 몸매, 구리빛 얼굴의 술진 눈썹, 태풍속에 휘말려든다고 하여도 목적지로 곧바로만 걸어갈듯싶은 그의 림름한 몸에서는 끝날같은 의지와 정력이 넘치고있었다. 그가 바로 제 31 화학공장 건설사업소 기계화직장 연공작업반장인 유홍주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온 나라 인민들이 9 월의 명절을 즐기고있는 이날 유홍주가 자막대기지평이를 들고 200 리길을 걷게 된것인가?

유홍주작업반이 순천지구전선건설장으로 달려와 허허벌판에 천막을 친것은 선기가 나기 시작한 지난해 초가을이었다.

천막을 친 그날 유홍주는 반원들이 잠든 밤에 밖으로 나왔다. 휘영청 밝은 달이 솟박꼭질을 하듯 구름

속으로 해염쳐들어갔다가는 불쑥 얼굴을 내밀고 무연한 별판을 비쳐주었다. 달빛을 밟으며 비날론공장 건설전망도가 세워져있는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유홍주의 가슴은 느닷없이 설레며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려보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함흥 2.8 비날론공장 조업식에 나오시여 붉은 테프를 끊어주시고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우시며 손을 드시여 만세를 부르는 건설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주시던 그 모습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리도 기뻐하시며 미소를 지우시던 그 영상,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된 그 영상, 어찌하여 이 밤따라 유홍주의 가슴은 그리도 설레며 어버이수령님의 그 영상이 눈앞에 삼삼히 안겨오는것인가!

그때 2.8 비날론공장을 일떠세우고 언제나 흠모하던 어버이수령님을 뵈옵게 된 유홍주는 갓 스무살이 넘긴 홍안의 청년건설자였다. 그 감격의 날 연공부반장이었던 유홍주는 한생을 건설자로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우에 기념비들을 일떠세워 수령님을 준공된 공장에 모시여 그이께서 만면에 미소지으시는 그 모습을 우러르는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간직하였었다.

그 불타는 맹세를 지켜 건설장의 수리개로 김철의 건설장과 북방의 화학공장, 서부의 화학공장, 청춘도시의 화학공장을 일떠세우는 건설의 나날 위훈을 탑을 쌓으며 걸어온 유홍주였다.

그런 유홍주였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터전을 잡아주신 대비날론공장을 일떠세우는 건설에 참가하게 되었으니 어찌 가슴이 설레지 않으랴!

순천비날론공장을 앞당겨 건설하고 어버이수령님을 준공된 고장에 모실 그날을 그리며 유홍주는 수령님께서 몸소 걸으신 로정을 따라 걸음을 옮기였다. 세월은 흘러 함흥 2.8 비날론공장을 건설하던 그때에는 홍안의 애젊은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흰서리가 불리워 50 고개에 올라선 그는 그때에 다진 맹세대로 변함없이 건설장의 수리개로 살아가고있는것이였다.

순천땅에 첫 발자국을 찍던 그날부터 유홍주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줄곧 맴돌고있었다.

그것은 비날론공장건설을 앞당겨 끝내는 첫 돌과 구를 열어제끼는 기발을 건설장에 휘날리는것이였다. 그는 지휘부에 찾아가 시공을 담당한 일군에게 합성직장기동을 세우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못마땅하게 마주보았다.

《동무! 잠꼬대를 하지 않소? 부채직장 기초공사도 안했는데 기동이 어디서? 설사 기동이 하늘에서 똑 떨어진다고 해도 아직은 그걸 세울 기중기도 없지 않소?... 연공작업반장인것만큼 미리 알아두는게 좋겠소. 건설지휘부에서는 75 톤기중기로도 합성직장기동을 세울수 있겠는가를 우려하고있소.》

건설장에서 75 톤기중기라면 힘장수기중기다. 기동을 들어올릴 기중기가 75 톤이라면 그 기동이 얼마

나 웅장한것인가를 어렵지 않게 상상할수 있을것이다. 시공을 담당한 그 일군은 75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게로 유홍주의 《허황한》 생각을 일축해버리려는것 같았다.

그 당시에는 유홍주의 제의가 허황하다고 할만도 하였다. 기동생산준비를 하자고 하여도 수십일의 기일을 요구하였다.

대형기동에 들어갈 팔뚝같은 철근가공도 문제였지만 강재와 세멘트도 아직 도착하지 않아 걸리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우리는 기동을 남흥에서 생산하여 옮겨오자는것입니다.》

《뭘요? 정신이 있소? 남흥이라니? ...》

그 일군은 자못 놀라운듯 눈섭을 치켜올리고 방안의 사람들을 일별하며

《동무들, 이 반장동무가 기동을 남흥에서 생산하여 세우겠다고 하오.》 하고 큰 소리로 말하더니 어깨를 으쓱 추어올리였다. 그의 유별난 몸짓과 말투는 유홍주의 《허황한》 생각을 너그럽게 깨우쳐주려는 아량이였다.

그러나 유홍주는 푹 뻗치고선채 책상모서리를 한 손으로 잡고 슬렁거리는 방안이 조용해지기를 침착하게 기다렸다.

《우리는 남흥화학공장을 건설할 때 그런 기동을 세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 방안에 한사람도 없소. 남흥에는 동무네 건설사업소의 부채직장이 있으니 기동을 생산하는 일은 어렵지 않는 일이요. 그래 동무는 그 기동을 어떻게 운반하겠다는거요? 중량이 가법다면 <헤리콤파>로 실어올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혜를 모아 기동을 실어올 방도를 찾아 내겠습니다.》

유홍주는 이 한마디의 말을 내던지듯 남겨놓고 방안에서 나왔다. 그날 일을 끝낸 유홍주는 남흥에 있는 사업소 당위원회에 편지를 보냈다. 당위원회에서는 그의 발기를 적극 지지하여주었다.

하여 남흥에 있는 부채직장 로동계급은 예비를 탐구하여 기동생산을 다그쳐끝냈다. 문제는 생산한 대형기동을 건설현장으로 옮겨오는것이였다. 기업소 부채직장에서 건설현장까지는 200 리길이였다.

기술일군들은 안전하게 렬차로 옮겨가는것이 어떻겠는가고 유홍주에게 권고하였다. 그러나 유홍주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렬차로 옮겨가려면 평화차를 네개나 렬결하고 거기에 기동을 실어야했는데 정거장에서 현장까지는 어차피 자동차로 날라야 했기때문이였다.

기동을 토막내어 실자는 의견들도 나왔다. 이것은 가장 안전하고 손쉬운 방법이였다. 그러나 토막내어 옮겨간 기동을 렬결하여 세우려면 시간을 어방없이 잡아먹을수 있었다. 첫기동을 세워 순천땅에 대비날

론공장이 일떠선다는것을 온 세상에 자랑하려는 유홍주의 불타는 가슴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여도 시간을 늦잡는것을 따를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유홍주는 온 나라가 명절을 즐기고있는 이 날에 200 리길을 걷고있는것이였다.

건설현지에서 자동차를 타고 남흥으로 오면서 구배와 다리 등을 눈에 익혀온 길이지만 걸으면서 도로상태를 간간히 살피면서 확정하고있는 그였다.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었다. 아직 100 리길도 측내지 못했는데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지고있었다. 유홍주는 그리 크지 않은 다리목에 이르러 잠시 땀을 식히려고 란간에 기대어 강바람이 불어오는 저쪽 동쪽쪽으로 얼굴을 돌리였다.

푸른 잔디가 웅단처럼 깔린 동쪽우로 세아이를 앞세운 부부가 걸어오고있었다.

아마도 들놀이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양이였다. 아이들은 나란히 걷고있는 부모들의 앞에서 까치걸음으로 쿵쿵 뛰기도 하고 잔디우에서 덩굴기도 하면서 까르르 웃음을 터치고있었다. 유홍주의 눈앞으로는 불현듯 안해와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날 유홍주의 가정에도 명절을 즐길 계획이 있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결을 땀돌면서 명절날에 배놀이를 가자고 졸라댔다.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유홍주의 가슴은 무직해울랐다. 집을 떠나 줄곧 먼 건설장에 나가 살다싶이하는 유홍주였다. 아이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이러야싶은 생각이 그의 가슴을 허비였던것이다. 유홍주는 아이들의 청을 기꺼이 들어주겠다고 대답하였다. 방안을 거두고 있던 안해는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남편과 아이들을 바라보고만있었다. 그리고있는 안해를 바라보는 유홍주의 가슴은 더욱 빠근해울랐다. 오랜만에 명절을 남편과 함께 즐겁게 보낼 그 행복을 감수하기에는 가슴이 모질어진 안해였다. 이동작업을 떠난 남편을 기다려 잠못드는 밤은 얼마나 많았던것이라.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남편이 아니라 옆집 어머니에게 갓난애기를 안겨주고 병원문을 나섰던 안해였다.

아버지가 건설장에서 집으로 돌아온날 밤부터 아이들과 안해는 칠성각이 솟아있는 호수에서 배놀이를 하며 즐길날을 손꼽아기다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홍주는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켜주지 못했다. 꼭두새벽에 바래우려 큰 길로 나온 안해와 아이들에게 유홍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애들아, 비날론공장이 건설되면 순천에도 갑문이 솟아난다. 그러면 대동강에는 여기 호수와는 비길수 없는 큰<바다>가 생긴다. 아버지와 어머니랑 그날에 거기서 배놀이를 하자.》

이렇게 길을 떠난 유홍주였다. 유홍주인들 어찌 안해와 아이들과 함께 명절을 즐기고싶지 않았으랴, 흥안의 청년시절, 함흥 2.8 비날론공장조업식날에 아버지수령님을 뵈옵고 다진 그 맹세가 가슴에 불타고있었기에 명절날의 휴식도 미루고 길을 떠났던것이다.

200 리길을 답사하고 돌아온 유홍주는 기둥을 추레라로 옮겨갈것을 제기하였다. 기둥을 토막내어 기차로 실어가자고 하던 사람들은 그의 제의를 무모한 모험이라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반장동무, 무슨 일을 치자고 그러오? 타산을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거요?》

《어떻게 안전한 길로만 가겠습니까? 락원의 로동계급이 눈보라를 헤치고 용선로를 끌어올 때 타산을 앞세웠습니까?》

직장장 한병열과 연공들 그리고 대형추레라운전사 박후근, 전총렬은 그의 대담한 제의를 적극 지지하여 나섰다. 문희건, 한용덕은 추레라우에 기둥을 올려놓을 틀을 만드는 일에 발벗고나섰다.

그런데 추레라우에 기둥을 싣고보니 유홍주가 측정한 굴간높이보다 기둥두께가 더 높았다. 유홍주와 지령장은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 굴간 높이를 다시 측정하였다. 그대로는 굴간을 통과할수가 없었다. 방도를 모색하던끝에 피목을 낮추면 굴간을 통과할수 있다는 결론이 도달하였다.

하여 대형기둥을 실은 추레라운반서렬이 출발선으로 나설수 있게 되었다.

발동소리도 요란히 추레라운반서렬이 떠나는 때에 유홍주는 준비하였던 붉은기를 펼쳐들고 선두차앞으로 다가갔다.

《동무들, 우리 건설자들의 마음이 비친 이 붉은기를 휘날리며 앞으로 전진합시다!》

유홍주는 선두차에 붉은기를 달았다.

대비날론공장건설장으로 향한 200 리길우에 펼쳐진 장쾌한 운반서렬, 대형추레라에 실린 어마어마한 콩크리트기둥, 그것을 웅위하듯 앞뒤에서 따르고있는 기중기차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받들어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갈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의 상징인양 지축을 울리며 거침없이 달려나갔다.

세포비서의 이야기는 끝났다.

우리는 하늘가에 높이 솟은 기둥을 무심히 바라볼수가 없었다. 살아도 죽어도 오직 한마음 아버지수령님께 기쁨만을 드리려는 불같은 맹세를 지켜가고있는 유홍주작업반장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속에 받들리어 서있는 기둥, 순천지구전선건설은 이런 미더운 건설자들로 하여 날마다 시간마다 더 높이 솟아오르고있는것이 아닌가!

우리는 유홍주동무를 만나려고 기중기가 강철틀보를 들어올리고있는 작업장으로 발걸음을 옮겨놓았다.

## 첫 기동

문 병 익

△때 현재  
△곳 순천지구전선 어느 공장건설장에서  
△대역  
태섭 연공작업반장  
상근 부기사장  
현철 연공 (제대군인)  
명희 시공지도원 (현철의 애인)  
복녀 현장식당 취사원  
그밖에 청년 1, 2, 3

### 제 1 장

**무대** 기초굴착작업이 한창인 건설장의 한가운데 림  
시로 자리잡은 연공작업반의 이동식휴게실  
(철집) 이 무대 한쪽에 치우쳐있다. 휴게실안  
에는 별경게 달아오른 난로주위에 긴의자들이  
적당히 놓여있고 연공들의 작업도구들이 보인  
다.

△ 들끓는 건설장의 벽찬 소음과 함께 막이 열리면  
신호기를 든 현철이 지축을 흔들며 다가오는  
대형불도젤을 인도하여 뒤걸음으로 들어온다.

**현철** (밖을 향해) 조금만 더 우측으로 좀 더 우측  
... 됐소. 세우시오! (들어오던쪽으로 다시 뛰  
여나간다.)

△ 이때 명희와 취사복차림의 복녀가 보자기에 썬 버  
치를 맞들고 들어온다.

**복녀** (명희를 보며) 에구나, 벌써 불도젤이랑 끌어  
들이구 기동세울 차비를 하는구만.

**명희** (걱정스레) 아이 어찌나...

**복녀** 에그 일두 참, 현철이랑 저 사람들은 연공반장  
아주버니가 기동을 실어오기만 하면 제격 세우  
겠다구 점심들두 안먹구 저렇게 앨 쓰는데 야  
단났구나. 그래 그 설계도면이라는게 꼭 있어  
야만 기동을 세우나?

**명희** 설계도면두 도면이지만 부기사장동지가 자기  
승인이 없이는 작업을 시작하지 말랬어요.

**복녀** 아니 그 기동이 어떤기게 부기사장이 그러나?

**명희** 앞으로 합성탑을 세울 기동인데 길이가 서른메  
터나 되구 중량이 스무톤두 넘어요.

**복녀** (놀라며) 에그머니나, 난 기동 기동하게 그저  
그런건가 했더니 체련소굴똑같은게로구만.  
(머리를 끄덕이며) 하긴 우리가 짓는 공장이  
세계적으로 몇개 안된다니 그럴수밖에...

**명희** 그래서 시공계획엔 우리 기업소가 먼저 맡은 건  
설대상을 마저 끝내구 여기로 75톤기중기랑

가지구 기중공들이 모두 온 다음에 세우기로  
되어있는데 제대군인동무들이 자기네 반장아  
바이가 기동을 실러 떠나자 누가 뭐라든 자기  
들 힘으로 세운다면서...

**복녀** 아니 그럼 우리 현철이랑두 무슨 타산이 있겠  
지?명희 지금 여기 있는 25톤기중기의 팔을  
늘이구 대형불도젤하구 협동작전을 하면 가능  
하다는거죠 뭐.

**복녀** 음 그러니 명희기사가 가운데서 속깨나 태우겠  
구만.

**명희** 정말 안타까와 죽겠어요. 전혀 불가능한건 아닌  
데 부기사장동진 덮어놓구 안된다구만하니...

**복녀** 너무 걱정하지 말라구. 어째 연공반장아주버니  
가 돌아오면 제격 풀릴게야. 부기사장이 연공  
반장하군 군대복무두 같이 하구 옛날에 연공일  
두 같이한 딱친구라네.명희 그래요?

**복녀** 자 추운데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구.

△ 두사람 휴게실쪽으로 가는데 현철 들어온다. 현철  
아니 식당어머니... 야, 이거 점심을 가져오셨  
구만요.

**복녀** (웃으며) 아니 그 식당이란건 빼구 그저 어머  
니라곤 못하겠나?

**현철** 야 (이마를 치며) 잘못했습니다. (차렷자세  
를 하며) 어머니, 다음부턴 꼭 고치겠습니다.

**복녀** 호호... 그저 우리 현철인 시원시원해서 좋다니  
까. 팔이 있으면 사월 삼았으면 좋으련만... 현  
철 (웃으며) 아들은 나뻘니까?

**복녀** 아들두 좋기야 하지. 허지만 임자한테야 어머니  
가 있질 않나 호호...

**현철** (다정하게) 어머니, 다음부턴 밥을 내오지 마  
십시오. 건설장이 복잡한데 그러다 길을 헛갈  
릴수두 있구 괜히 고생합니다.

**복녀** 하긴 오늘은 지원자들이 어떻게나 많이 와서 왁  
짜 뚫어대는지 중도에서 명희기살 만나지 못했  
더면 밥을 다 일कु빈했다네. 그래 다른 동무들  
은 어디서들 일을 하나?

**현철** 저 모두 반장동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명희** 아니 반장아바이가 벌써 도착했나요?

**현철** 방금 덕고개를 넘어섰다는 통보를 받고 달려갔  
소.

**복녀** 덕고개면 저반 다 왔구만... 에그 반장아주버니  
가 추운데 고생을 했겠다. 떠난지 꼭 나흘째  
지?

**현철** 네, 기둥이 너무 커서 길을 넓히든가 해야지 안 된다는걸 떠났다는데.

**복녀** 우리 연공반장이주버닌 한번 한다면 꼭 해낸다니까 호호… 에그 이거 얘기바람에 정말 점심을 다 얼कु졌네. 어서 안으로 들어 가자구. **현철** 예. (얼른 버치를 안고 휴게실로 들어간다.)

△ 복녀 뒤따라 들어가고 명희만이 남는다.

△ 휴게실에서 복녀 점심차비를 하는동안 현철 다시 나온다.

**현철** 명희동무, 그래 설계도면을 가져왔소?

**명희** (난처해하며) 부가사장동지가 기술협의회에 또 참가했어요.

**현철** 하여간 한심하구만. 기둥이 당장 도착하겠는데 설계도면을 잔뜩 끼구있으면 어쩌자는건지. 명희 부기사장동지야 모험을 하지 말라는거지요 뭐.

**현철** 모험? 아니 구체적인 방도에 대한걸 동무가 부기사장동무한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지 않았소?

**명희** 하지만 정확한 답변은 주지 않지 않았나요.

**현철**젠장. 이거 복잡하구만. 좌우간 우린 반장아바이가 오면 시작하겠소.

**명희** 반장아바이가 와두 부기사장동지 승인이 없이는…

**현철** 썰잡는게 매라구 기둥을 세워놓으면 그만이지 승인은 무슨…

**명희** 아이 동문 또…

**현철** 하여간 그건 그렇구. 내 명희동무한테 한가지 의논할게 있는데… (잠시 생각하다가) 우리 들사이 관계말이요. 계속 이렇게 비밀에 붙여야만 할가?

**명희** 아이 새삼스럽게?…

**현철** 줌전에 집에서 전보가 왔소. (주머니에서 전보 용지를 꺼내준다.)

**명희** (받아보며) 《어머니, 누이동생면회차로 래일 도착》?! 아니 그럼…

**현철** 초소에서 제대배낭을 맨채 여기로 왔더니 아무래두 어머니가 노한것 같소. 그동안 편지 한장 없다 갑작스레 모두 떨쳐오는걸 보니…

**명희** 휴가라두 반구 하루이를 집에 다녀왔을걸 그랬어요.

**현철** 하긴 전보까지 받고보니 어머니를 너무 섭섭하게 한것 같소… 그래 난말이요. 이번에 우리 들사이관계를 어머니한테 죄다 말씀드릴가 하는데 동무생각엔 어쩔소? 내가 외아들이다니 우리 어머니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남달리 크오. 내가 동무하구 함께 척 나서서 인사를 하면

아마 어머니의 노여움이 그자리에서 풀릴게란 말이요.

**명희** 아이 동문 정말…

△ 이때 복녀 휴게실에서 나오다 그들의 말을 듣고 멈춰선다.

**현철** (명희에게 다가서며) 왜 의견있소? 아니 말을 해야 알게 아니요. 좋다든가 나쁘다든지?…

**명희** 아이참… 저같은게 어머니의 마음에 드시겠는지 모르겠지만…

**현철** (기쁨에 차서) 그럼 반대 없단말이지?!

△ 복녀 그만 입을 벌리며 문을 닫는다.

**명희** 현철동무, 전 동무가 군대에서 제대되어 처음 여기에 나타났을 땐 반갑기두 했지만 어떻게 한건설장에서 일을 할가 하구 당황했었어요. 그런데 동문 저의 심정을 알아차렸는지 불쑥 이렇게 말했지요. 《이 거창한 순천지구건설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들의 관계를 비밀에 붙이구 모든걸 뒤로 미루지요.》라고말이예요. 전 그때 그런 말을 하는 동무가 얼마나 돋보이구 고마왔는지 몰라요.

**현철** 하긴 어머니나 누이가 알게 되면 인차 온 건설장에 소문이 나겠지?

**명희** 손문두 소문이지만 부모님들이 알게 되면…

**현철** 당장 결혼식을 하자고 할거란말이지… 됐소. 그 만두지요. 이젠 기둥을 세우는것보다 더 복잡하구만.

**명희** 아이…

△ 이때 밖에서 《반장아바이가 온다》하는 떠들썩하는 소리 들린다.

**현철** 가만 반장아바이가 기둥을 싣고왔소! 가보자구! (달려나간다.)

△ 명희 급히 뒤따라나간다.

**복녀** (문가에 서서 그들의 말을 듣고 섰다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에그, 어쩌면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두 마음이 깊을가?! (자기 생각에 잠겨있다 놀라며) 아니, 내가 왜 이러구있니? 반장아주버니가 온다는데 뭘 좀 더 가져와야 할텐데… (황급히 서둘러 문을 열고 나와 밖으로 나간다.)

△ 이윽고 태섭 앞서고 현철, 청년 1, 2, 3 무거운 기분으로 뒤따라 들어온다.

**태섭** (모두에게) 다들 들어가 점심식사들이나 하라구.

**청년 1** (마뜩지않게) 먹고싶지 않습니다.

**청년 2** 반장아바이, 길고짧은건 대박야 안다구 되든 안되든 한번 해봅시다.

**태섭** 뭐라구? 그래 여기가 이기면 좋구 지면 마는 단오날 씨름판인줄 아는가? 일이라는게 그렇게

서든다고 되는게 아니야. 현철이, 다 데리구 들어가 식사를 하라구. 모두 머리를 떨군채 움직이지 않는다.

△ 태섭 그들에게 무엇인가 더 말하려다 말고 작업장쪽으로 천천히 나간다.

**청년 1** 제길 믿었던 나무에 구새먹는다구 이젠 깨진 사발이다. 반장아바이까지 저러는데 기둥을 세우긴 코집이 틀렸지 뭐야. (주저앉는다.)

**현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거요? 반장아바이가 왜 성이 났소?

**청년 1** 흥, 부기사장한테 벌써 침을 맞았네.

**청년 3** 반장아바이가 그러는데 부기사장동지를 부재공장에서 만났댔다는거야.

**현철** 부기사장동지를...

**청년 1** 반장아바이 하는 말을 들으면 몰라? 우리 애긴 듣지두 았구 기술적타산을 한번 다시 해보자구 하는거야 그만두자는 소리지 뭐야.

**현철** 우리가 창안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

**청년 1** 쳇, 자격장에 나선 병사가 총을 안쏘구 그냥 돌아왔겠는가? 비록 명중을 못해서 락제는 했지만.

**현철** 무슨 소린지 모르겠구만. 반장아바이가 타산이 없이 기둥을 실어오진 않았을텐데...

**청년 1** (불평조로) 문제는 우리 같은 제대군인 헛내기들은 연공이란 말뿐이지 건설장에서 땅이나 파구 잔심부름이나 하라는거야.

**청년 2** (그자리에 주저앉으며) 제길 수리개냐 두더지냐.

**청년 1** 이럴줄 알았으면 집에다 편지나 하지 말았을걸. 건설의 척후병이요, 수리개요 하구 번지르하게 자랑을 해왔는데 면회라두 와서 보면 꼴 좋겠다.

**현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저 합성탑기둥을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건 우리 이 순천지구 전선이 건설속도를 더 높이는가 제자리걸음을 하는가 하는 둘과구란말이요.

**청년 2** 그건 옳아, 우리가 주저앉으면 대형설비와 기능공들이 올 때를 기다리지 말구 건물공사와 함께 설비조립을 동시에 밀고나가자는 우리의 제기는 물거품이 되구만단말이야.

**청년 1** 글썄 이젠 코집이 틀렸다니까. 괜히 아까운 시간만 보내지 말구 가서 흠이라두 한삽 더 파자구. (나가려다.)

**현철** 병만동무, 잠깐만 있으라구. 내 반장아바이한테 가서 한번 더 얘기해보겠네.

△ 현철 나가려는데 상근, 명희 들어온다.

**상근** 가만 동무들은 여기서 뭘하요? 점심시간이 지난지 이젠 두시간이나 되어오는데 작업들을 해

야지? (명희에게) 이 동무들이 오후엔 무슨 일을 하게 되어있소?

**명희** 방사직장건물 기초굴착작업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하루책임량을 다 했습니다.

**상근** 음... (잠시 생각하다가) 박현철이가 어느 동무요?

**현철** 예, 접니다.

**상근** 동무요?! 어머니한테서 전보가 왔다지?

**현철** 예. (명희를 본다.)

**상근** 내 식당 복녀아주머니한테서 얘길 들었소. 일을 잘 배우라구. 연공일이라는게 얼핏 보기엔 별게 없는것 같지만 생각과는 다르오. 더구나 우리 기업소는 살림집이나 짓는게 아니라 현대과학기술의 종합체라고도 볼수 있는 세계적인 공장들을 건설하고있기때문에 연공작업에서도 높은 기술기능을 요구한단말이요. 기업소에서는 앞으로 제대군인동무들을 모두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망에 망라시키려 하는데 지금부터 각오들을 단단히 가지구 짹짹이 공부들을 하오.

**현철** 부기사장동지, 우리도 공부를 할 결심은 하고있습니다. 허지만 우린 공부를 하러 여기에 온것이 아니라 5개지구전선건설장에 전투원으로 왔습니다.

**청년 1** 전선에서 전선으로 말하자면 배비변경을 한셈이지요.

**상근** 그야 물론 그렇지, 하지만 군대에서두 신병훈련기간이라는게 있질 았소. 건설두 알아야 한단말이요. 모르면 동무들처럼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구 주관적의도와는 달리 건설사업에 큰지장을 줄수도 있거든.

**현철** 부기사장동지, 우린 건설에 영 백지는 아닙니다. 군대에서 다리도 세워봤구...

**상근** 교량건설하구야 성격이 다르지, 아무튼 동무네 그 기둥세우는 문제는 반장동무하구 다시 토론해보겠소.

**현철** ...

**상근** (웃으며) 너무 조급해들 마오. 동무네야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얼마든지 큰 일을 맡아할수 있소. 자, 그럼 오후엔 나하구 같이 가서 세멘트하차나 좀 하기로.

**청년 1** 세멘트하차요?

**상근** 이거, 야단났소. 아직도 보름이나 더 있어야 들어오게 되어있는 세멘트방통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잘못하단 우리 기업소가 연체료를 물게된단말이요.

**청년 1** (불만조로) 앞당기는거야 좋은 일이지요.

세멘트공장 동무들두 5개지구전선건설이 빨리 되길 바래서 보낸게 아니겠습니까.

**상근** 허허... 역시 제대군인동무들은 시원시원해서 좋거던. 자, 그럼 모두 가지요. (나가려다.)

△ 모두 무거운 걸음으로 그의 뒤를 따르는데  
**태섭** 들어온다.

**태섭** 아니, 동무들은 어델 가요?

**청년** (불만조로) 세멘트 부리러 갑니다.

**상근** (나가다 말고) 아니, 반장동문 어느새 현장엘 나와있소?

**태섭** 부기사장동무, 날 좀 잠깐...

**상근** 명희기사동무, 이 동무들을 데리고 먼저 가요.

내 곧 뒤따라 가겠소.

△ 명희, 현철, 청년 1, 2, 3 나간다.

△ 불도젤이 요란한 발동소리를 내며 물러가는 소리 들린다.

**상근** 아니, 이 사람들이 불도젤까지 끌어왔겠는가? 헛참,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더니 음...

**태섭** (그의 손을 잡으며) 부기사장동무, 여기 좀 앉아 얘길 합시다.

**상근** 가만, 난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의 곁에 엉겨주춤 앉는다.)

**태섭** (담배를 권하며) 자, 한대 태우시우. 내 부재 공장에서 기동을 싣고 떠나는데 지배인동무가 피우라고 한갑 줘데다.

**상근** (담배를 받으며) 아니, 이 령감이 또 무슨 엉뚱한 소릴 하자고 이래?

**태섭** (웃으며) 하, 이거 웃사람답지 않게 무슨 말을 그렇게...

**상근** 다른 사람들이 없는데서야 뭐라오? 할 얘기가 있으면 어서 하오.

**태섭** 그럼 좋네. 내 옛날 군대에서 함께 싸우던식으로 터놓고 얘길 하지. 내 이제말이요. 우리 저 제대군인동무들이 기동을 세울 기초공사를 해놓은거랑 돌아봤는데 구미가 부쩍 당기더라말이요.

**상근**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요?

**태섭** (그의 손을 잡으며) 부기사장동무, 우리 한번 큰 마음먹구 저 합성탑기동을 세워보지요.

**상근** (그의 손을 뿌리치며) 여보, 그따위 소릴 하자구 내가 부재공장에서 만나서 그만큼 말을 했는데 부득부득 우기면서 기어코 기동을 실어왔소?

**태섭** 가만 그렇게 벽을 문이라고 내밀지만 말구 생각을 좀 해보라니. 우리가 전후에 군대에서 제대되어 처음 2.8비날론공장을 건설할땐 우인찌

하나만 가지구두 그 육중한 《중합조》를 세우질 않았소. (감회깊이) 그때 우린 그걸 세워놓구 너무두 대견하구 기뻐서 밤새 그 옆을 떠나지 못했지. 난 어쩐지 오늘 그때 생각이 자꾸 난단말이요.

**상근** 글썸 그때는 우리가 빈주먹밖에 없었으니 할수 없어 모험을 했지.

**태섭** 그게 모험일가?

**상근** 모험이 아니구. 여보, 제발 반장동무까지 멋모르고 덤비는 제대군인들하구 맞장구를 치지 마오. 지금 그 사람들은 기업소의 시공계획까지 잘못됐다고 시빌 걸구있소. 내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태섭** 그 시공계획에 대해서야 부기사장동무한테 나누어려번 제기를 했지.

**상근** 여보, 지금은 우리가 2.8비날론공장을 세울 때하군 다르단말이요. 건설규모두 그렇지만 과학기술적요구가 대비나 되오? 도대체 군대에서 엇그제 제대되어 온 사람들을 데리구 설비조립을 어떻게 한단말이요. 게다가 75톤기중기같은 대형설비들두 없이...

**태섭** 아니, 구체적인 방도가 있구 하겠다는 결심만 있으면 되는거지 뭘 그러오?

**상근** 여보, 그 기동을 세우다 넘어지기라두 하면 어떻게 된다는걸 당신이 몰라서 그런 말을 하오? 제발 좀 자중하라고요. 무엇때문에 고생을 사서하겠는가말이요.

**태섭** 고생을 사서한다구?

**상근** 아니면 뭔가? 시공계획대루 75톤기중기를 가지구 기능공들이 온 다음에 세우면 간단한걸 가지구 뭇때문에...

**태섭** 뭇때문이라니? 우리 제대군인연공들이 75톤기중기가 없이두 저런 큰 기동을 척척 세울수만 있다면 지금처럼 건물공사를 먼저 하고 기능공들이 대형설비를 가지구 온 다음에 설비조립을 따로 할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밀수 있질 않소.

**상근** 흥, 제대군인들하구 똑같은 말을 하는구만. 그렇게 되면 건설속도를 배로 높일수 있단말이지?

**태섭** 부기사장동무, 지금 형편에서 건설속도를 높일 방도는 그길밖에 없네, 한번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보자구요.

**상근** 글썸 모든 일이 그렇게 마음먹은대로만 된다면 좀 좋겠나. 허지만 그건 모험이야.

**태섭** 책임은 내가 질테니 한번 내밀어보자구!

**상근** 여보, 이번에 중앙에서 열리는 건설일군협의회에 기업소를 대표해서 지배인동무하구 반장동무가 참가하게 됐다는건 알고있겠지?

**태섭** 지배인동무가 그런 소릴 하더구만. 그런데 갑자기 그 소린 왜 하오?

**상근** 몰라서 묻소? (불쑥 일어서며) 좌우간 합성탑 기둥은 시공계획대로 하자구. (나간다.)

**태섭** 아니 부기사장동무... (그가 나간쪽을 이윽히 보다가 혼자소리로) 고생을 사서한단말이지... 참, 사람두...

△ 건설장의 어느 먼곳에서 발파소리가 들린다.

△ 이윽고 복녀가 보자기에 무엇인가 싸들고 들어온다.

**복녀** 아니, 반장아주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당장 기둥을 세운다구 욱욱하던 사람들이 어께가 뚫켜져서 세멘트하차장엘 갑디다래.

**태섭** (자기 생각에 잠긴채) 세멘트하차두 해야지요.

**복녀** 에그 반장아주버닌 꼭 남의 소리하듯합니다래.

**태섭** 예?

**복녀** 현철이랑 그 사람들이 아주버니 없는새에 얼마나들 앓 촌꼴 아시우. 반장아주버니가 기둥을 실어오면 제격 세우겠다구 낮에는 저희들이 말은 여느 일을 하면서 밤이면 언땅을 곡괭이로 쪼아내구 세멘을 비벼넣는다, 그리곤 또 그 기초공사해놓은게 열가봐 불을 피우구 제 단벌숨 옷들까지 덮어가며 밤을 꼬박꼬박 새우군했다우. 밥을 먹으라니 말을 듣겠소, 잠을 좀 자라니 말을 듣겠소, 글썽 군대에서 제대되어 건설장에 온지 두달이나 되어오는데 눈에 띄게 해놓은 일이 없다면서 그렇게 애들을 씹디다래. (손에 든 보자기를 헤치며) 반장아주버니, 이걸 좀 보시우. (기발을 꺼내준다.)

**태섭** (그것을 받아보며) 아니 이건 기발이 아니요.

**복녀** 그 사람들이 지난밤엔 그걸 만들어놓구 그렇게들 기뻐합디다래. 온 건설장이 보란듯이 말이우다. 그 기발은 우리 명희기사가 만들었다우.

**태섭** 명희기사가요?!

**복녀** (웃으며) 알고보니 명희기사가하구 현철이는 서로 약속한 사임디다래.

**태섭** 그래요?!

**복녀** 글썽 요새 젊은이들이 얼마나 속들이 깊은가 보시우. 자기들의 사사로운 일로 공사에 지장을 줄가봐 이 순천지구건설이 끝날 때까지는 서로 내색을 안하기로 했더니요. 나두 방금전에야 저희들끼리 하는 말을 듣구 알았다우.

**태섭** 예...

**복녀** (절절하게) 반장아주버니, 그래 무슨 방법이 없겠수? 나같은게 다 5개지구전선건설장에 나왔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들먹해지는데 무슨 보탬되는 일을 더 못할가 하구 밤낮없이 궁리를 하게 되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기둥을 세우지 못하면 기가 꺾여서 무슨 멋으로 일을 하겠수? 어떻게 하든 저 사람들의 소원을 풀어주자구요.

**태섭** ...

**복녀** 에그 내 정신 좀 봐라. 반장아주버니 점심을 가져오구선...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구요. (서둘러 보자기를 싸들고 휴게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며) 아니, 이 사람들이 여적 점심을 안먹었수다래... 에그 얼마나들 시장할가 원 쯔쯔... 아주버니, 내 얼른 가서 이 사람들을 데려올테니 먼저 자시우다. (바삐 밖으로 나간다.)

**태섭** (그가 나가는것을 이윽히 보다가 손에 든 기발을 다시 보며 생각깊이 혼자소리로) 첫 기둥...

△ 음악이 흐르며 서서히 암전된다.

## 제2장

△ 음악과 함께 작업을 지휘하는 태섭의 목소리가 류달리 크게 나는 가운데 무대 밝아지면 전장으로로부터 이튿날아침, 무대는 전장과 같다.

△ 태섭이가 신호기를 한손에 말아쥐고 서서 무대 한쪽에서 우인찌를 운전하고있는 청년 1, 2에게 소리친다.

**태섭** 바삭 조이게... 좀더... 그렇지... (박을 보며) 아니 불도젤은 왜 버팁줄을 늦추느냐? 아니 저런 저... 현철이 뭘해?... 허 손발이 맞질 않는군. (청년 1, 2에게) 우인찌를 세우게! (급히 밖으로 나간다.)

**청년 3** (밖에서 들어오며) 여, 우리 반장아바이두 뭔가 좀 불안한게지?

**청년 2** 떨리지 않을수 있어? (박을 가리키며) 저 점잖게 누워있는 기둥을 좀 보라구, 아차 실수를 해서 저 제련소굴뚝같은게 넘어지지만 하면 기증기두 불도젤두 몽땅 쿵가루란 말이야.

**청년 1** 여여 떨지들 말라구, 아무려문 한생을 연공으로 늙어온 우리 반장아바이가 그만한 타산두 없이 우릴 지지해나섰겠는가?

**청년 2** 췌 떨긴 누가 떨어, 그저 그렇단말이지.

**청년 3** 여, 그런데 명희기사가 왜 나타나질 않아? 총국에 회의 갔다던 부기사장이 또 온게 아니야?

**청년 2** 부기사장동지두 반장아바이가 정 자신이 있으면 해보라구 했는지 않아.

**청년 1** 야, 과연 걱정두 팔자다. 아니 바늘가는데 실 안따라올가봐 걱정이야?



청년 3 흥판지같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청년 1 동문 눈치 못차렸어?

청년 3 뭘?

청년 1 뻘어, 동문 원래 로동과에서 배칠 잘못해구만, 눈치가 그렇게 발바닥같아서 어떻게 연공으로 발전하겠어?

청년 2 여 병만이, 잘 알지두 못하면서 함부로 떠들지 말라구.

청년 1 (큰소리로) 모르긴 내가 왜 몰라. 근거를 대라우?

청년 2 섯! 저기 현철이 온다.

△ 청년 1 말을 하려고 손을 든채 굳어진다.

△ 이때 현철 바빠 들어와 휴게실에서 바줄타래를 들고나오는데 명희 들어온다.

명희 저 현철동무 나 좀 보자요.

현철 음 반장아바이가 기다리는데 마침 오는구만. 그래 계산을 다시 해봤소?

명희 네, 우리가 처음 계산한것하구 같애요. 그런데 아무래두 작업을 중지해야겠어요.

현철 왜?

청년 1 (다가오며) 아니, 작업을 중지하다니? 우리 반장아바이가 된다는데 계산이구 뭐구 복잡하게 할게 있는가?

명희 아이, 동문 좀 가만 있으라요. (현철에게) 지금 반장아바이가 어디 있어요?

현철 볼도젤우에서 벌줄을 손질하고있소. 그래 무슨 일이요?

명희 저 래일부터 중앙에서 진행되는 건설일군협의회에 지배인동지와 함께 반장아바이가 참가하게 되였대요.

현철 건설일군협의회에?!

명희 반장아바이가 우리 기업소를 대표해서 경험토론을 한대요.

청년 1 야! 우리 반장아바이가 전국건설자들앞에서 토론까지 한단말이요?!

명희 아이, 반장아바이가 듣겠어요, 현철동무, 회의 참가자들이 오늘저녁에 떠난다는데 기등을 세우다 실수를 해두 그렁구...

현철 반장아바이두 회의에 참가한다는걸 알겠지?

명희 부기사장동지가 그러는데 알고있대요.

청년 1 아, 그래서 반장아바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구나.

청년 3 뭐라구?

청년 1 내가 지난밤에 창고경비를 서고 돌아오는데 기중기밑에서 뭘하냈는지 반장아바이가 불쑥 날 찾지 았아. 그래서 밤이 깊었는데 왜 주무시지 았는가구 물었더니 반장아바인 아무 말없이

내 얼굴을 한동안 보더니 《그래 병만인 저 합성탑기등을 세우다 넘어지기라두 하면 어떻게 된다는걸 알고있나?》 이렇게 묻질 았겠어.

청년 2 그래서?

청년 1 난 몇두 모르구 《알고있습니다.》하구 군대식으로 대답을 했지.

현철 여 작업을 중지하자구.

청년 2 우리가 그만두자면 아바이가 말을 들을가?

청년 1 아바이가 회의에 참가하구 돌아온 다음에 하면 될게 아니야.

현철 그런다구 물러설 아바이가 아니요. 아무래두 명희동무가 기등의 중력중심에 대한 계산수치가 나왔는데 신통칠 았다구 예길 해야겠소

명희 네 알겠어요.

△ 이때 태섭 들어온다.

태섭 현철인 바줄을 가질러 와서 뭘하구있나 응?

현철 저 명희기사동무가...

태섭 음 명희기사가 왔구만, 그래 계산은 했소?

명희 네, 그런데 계산수치가...

태섭 씨원치 았단말이지요?

명희 네.

태섭 그럴리가 없겠는데... (주머니에서 계산용지를 꺼내며) 어디 내가 계산한것하구 맞춰보자구. 계산한걸 주오. (손을 내민다.)

명희 (당황하여) 저...

현철 반장아바이, 아무래두 위험할것 같은데 좀 더...

태섭 뭐라구? (모두들 둘러보며) 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 모양들이요, 응? 그래 군대에선 싸움을 하다가두 위험할것 같으면 뒤걸음을 쳤나? 어디 말들을 해보라구.

명희 (그의 손을 잡으며) 반장아바이... 아바이가 이제 저 기등을 세우다 사고라두 나면 어떻게... 어떻게 중앙회의에 참가하시겠나요. 제발 부탁이예요. 오늘만은 그만두시자요 네?

태섭 아니 그럼 동무들은 그래서...

모두 (다가서며) 아바이.

명희 부기사장동지가 지금 아바이 참가증을 가지구 와서 사무실에서 기다리고있어요.

현철 저 합성탑기등이야 아바이가 회의에 참가하구 온 다음에 세워두 되지 았습니까.

태섭 쓸개빠진 녀석들... 오늘 해두 되구 래일 해두 될 일이면 뭇때문에 이 추운데 밤을 새면서 기초공사를 했느냐 응? 말로는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구 곧잘 외우면서 생각하는것들을 보면 어디서... 가슴들이 그렇게 알파해가지군 연공일을 못해! 어서 자기 자리로돌

돌아가라구. (청년 1 에게) 병만인 휴계실에  
들어가서 기발을 내다 기둥에 달구.

청년 1 아바이...

태섭 어서!

△ 청년 주먹으로 눈굽을 뺨 씻으며 휴계실로 들어  
간다.

태섭 명희기산 현철이하구 같이 불도젤우에서 벌줄  
을 줌 봐주오.

모두 아바이!

태섭 (결연히 신호기를 들며) 준비!

△ 모두 그를 이윽히 보다 뜨거운것을 삼키며 나간  
다.

△ 청년 1 도 휴계실에서 기발을 들고 나와 그들을  
따라나간다.

태섭 (밖을 향해) 기중기?

소리 기중기 이상없습니다.

태섭 불도젤.

△ 밖에서 불도젤의 발동소리

태섭 우인찌?

청년 2 준비끝!

태섭 (신호기를 힘있게 내리며) 시작!

△ 불도젤과 기중기, 우인찌 등의 동음이 한데 어울  
린다.

△ 긴장한 사이

△ 이윽고 쇠불이 갈키는 아츠러운 소리와 함께  
《반장동지 기둥이, 기울어집니다.》하는 다급  
한 소리

태섭 (큰 소리로) 불도젤공무니를 약간 우측으로  
돌려라.

△ 이때 갑자기 기중기의 동음이 멎는다.

태섭 뭐야?! 기중기를 누가 마음대로 세워? (성이  
독같이 나서 나가려다.)

△ 이때 상근 마주 들어온다.

상근 기중기는 내가 세웠소.

태섭 아니, 부기사장동무가...

상근 반장동문 명희기사동무한테서 말을 못들었소?

태섭 들었습니다.

상근 들었으면 그래두 기업소의 부기사장이 찾는데  
와야 할게 아니요?

태섭 ...

△ 이때 명희, 현철 급히 들어온다.

현철 반장동지, 기중기를 왜 세웠습니까?

상근 (그를 못마땅하게 보며) 왜 의견이 있소?

현철 ...

상근 명희기산 반장동물 데려오라구 보냈는데 여기  
서 뭘하고있소?

명희 반장아바이가...

상근 동문 기술지도를 책임진 시공기사가 아니요. 그  
래 사고라도 나면 동무가 책임을 지겠소? 전탕  
공명심에 들떠서...

명희 네 - 에?

상근 위훈을 세우는건 조금한게 아니란말이요. 아무  
리 사랑하는 사이래두 리성이야 잃지 말아야지.

명희 뭐라고요? 부기사장동진 그럼?! (그만 얼굴을  
짜쥐고 달려나간다.)

현철 제길, 그럼 그만둡시다. (힝하니 돌아서 나가려  
다.)

태섭 (큰소리로) 현철이! 동문 도대체 뭐요? 이게  
하면 하고 말면 말 일인가? 제자리에 돌아가오.  
어서!

△ 현철 그에게 무엇인가 말하려다 말고 나간다.

△ 사이

태섭 (홍분을 애써 누르며) 부기사장동무 이젠 너  
무하질 않소?

상근 반장동문 저 사람들의 관계를 모르면 가만있소.

태섭 부기사장동문 저 동무들에 대해서 뭘 어떻게 알  
고있소? 저들은 서로 사랑하면서도 자기들의  
사사로운 일로 해서 건설사업에 지장을 줄가봐  
결혼두 가정두 다 뒤로 미루고 서로 만나는것  
까지 극력 삼가하고있는데 그래 내놓고 그렇게  
해야 옳소?

상근 여보 난 공사전반의 시공을 책임졌소, 그런 사  
사로운 감정에 흔들려서는 이 거창한 건설을  
못한단말이요.

태섭 뭐라고요?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려선 이  
거창한 건설을 못한다구? 부기사장동문 언제  
부터 그렇게 사람들의 심장에 지닌 뜨거운것도  
느낄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소?

상근 뭐요?

태섭 난 이제야 부기사장동무가 당에서는 우리 순천  
지구건설을 위해 모든걸 집중해주고있는데 어  
째서 기업소자체실정만 운운하면서 대담한 작  
전을 벌리지 못하고있는가를 알았소.

상근 여보, 아무 소리나 그렇게 탕탕하는게 아니요.  
동무가 날 몰라서 그런 말을 하오?

태섭 난 부기사장동무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때문에  
말을 하는게요. 부기사장동문 당에서 보내준  
저 제대군인들이 기능이 어리구 건설경험이 없  
다구 해서 모험이요, 공명이요 하구 무시하는  
데 그래 우리가 전후에 건설경험이 있구 기능  
이 높아서 빈주먹으로 그 수많은 공장들을 일  
떠세웠소? 동무도 아마 잊지 않고있을게요. 군  
복을 그대로 입고 전후복구건설장에 달려온 우  
리 제대군인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하신 위대

한 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말ियो. 수령님께서서는 그때 우리들의 어깨를 다정히 잡아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소… 미국놈들은 조선전쟁에서 패하고 쫓겨가면서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어서지 못할것이라고 하였는데 동무들은 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말ियो. 그때 우리에게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이 전투명령을 기어이 관철하고야 말겠다는 신념 하나밖에 없었소. 그때 그때의 그 정신, 그 기백이 없이 《80년대속도》를 창조할수 있다고보우? 사람들의 심장에 지닌 그 뜨거운것이 없이 당에서 맡겨준 이 순천지구건설을 해낼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말ियो.

**상근** 하지만 과학기술적담보가 없이야.

**태섭** 물론 과학기술적요구를 무시해서는 안되지요. 그러나 그 요구앞에서 벌벌 떨고만 있어서는 더욱 안되지요. 부기사장동무두 이전엔 입버릇처럼 말을 하지 않았소. 우리가 전후에 복구건설하던 때를 생각하면 당에서 어떤 큰 건설대상을 맡겨줘두 무서운게 없다고말ियो. 그래서 제대군인들에게 그런 신념만 안겨준다면 못해낼 일이 뭐가 있겠소. 난 그때두 부기사장동무가 이걸 리해해주리라 믿었기때문에 모험을 하면서까지 저 기둥을 실어왔소. 우리 제대군인연공들에게 75톤기중기가 없이두 마음만 먹으면 저런 큰 기둥을 얼마든지 세울수 있다는 연공다운 배짱을 길러주고싶어서말ियो.

**상근** 아니 그럼 반장동문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태섭** 부기사장동문 나하구 이젠 30여년간을 함께 일해오는데 내 심정을 모르겠소?… 제발 지금부터라도 기술문서에만 파묻혀있지 말구 사람들을 좀 보우.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구 그들의 심장에서 무엇이 뛰고있는가를 알아야 그들을 이끌고 나갈게 아니요.

**상근** … (무엇인가 말을 하려다 그만 머리를 떨군다.)

**태섭** (잠시 생각하다 손에 들고있던 신호기를 넘겨주며) 자 이걸…

**상근** (엇걸에 받으며) 아니 이젠…

**태섭** 지금 건설장의 수백명 제대군인들이 여길 지켜보고있는데 수령님을 따라서 한생을 건설자로 살아온 우리가 건설자로 이제 첫걸음을 떼는 저들에게 첫기둥만이 아닌 마음의 기둥을 세워줘야 하지 않겠소. 제발 부탁ियो. 여기서 전투지휘를 해주오. 난 기중기를 좀 봐줘야겠소.

**상근** 아니 반장동무…

**태섭** 부기사장동무, 병사들은 가장 어려울 때 지휘관의 얼굴을 본다지 않소. 부기사장동무가 전투지휘를 하면 우리 제대군인연공들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소. 마음이 흔들리면 기둥이 흔들린단말ियो. 자, 난 그럼 믿구 가겠소. (나간다.)

△ 상근은 손에 들려있는 신호기를 이윽히 보며 착잡한 생각에 잠긴다.

△ 이때 복녀가 급직한 늙주전자를 들고 들어온다.

**복녀** (상근을 보자 반기며) 아니, 부기사장아주버니가 직접 현장에 나와서 작업지휘를 합니다래. 내 그저 이럴줄 알았수다. 부기사장이야 원래 연공출신인데 저 사람들의 심정을 왜 몰라줄고 했다니까요. 호호… (주전자의것을 고뿌에 따라주며) 자요. 아무리 바빠두 이걸 한고뿌 들구 하시우다.

**상근** (받으며) 아니 이젠…

**복녀** 따끈따끈한 우유웨다. 에이구 이젠 마음이 놓인다. 지금 우리 식당에 현철이 어머니랑 그 사람 누이동생이 와있어요.

**상근** 예?

**복녀** 그 아들에 그 어머니라더니 면회를 왔다는 사람들이 글썽 벅어리장갑이랑 지원물자를 한보따리씩 마련해가지구 왔습디다래.

**상근** 지원물자를요?!

**복녀** 그리구두 글썽 오자바람으루 아들이 일하는데서 함께 일을 하겠다구 작업복을 갈입질 않겠수. 그래 내 핑계를 대구 겨우 빠져나왔다우. 글썽 그런 어머니를 우리 저 현철이가 기둥을 세우지 못하면 무슨 낯으로 만나겠나요… 아니, 왜 들지를 않으시우? 사탕을 많이 넣어서 맛이 괜찮을게우다. 어서 드시라구요.

**상근** 예…

**복녀** 난 그럼 우유가 식기전에 모두 한고뿌씩 따라주구 오겠수다. (나간다.)

△ 이윽고 긴 호각소리와 함께 기중기와 불도젤의 동음이 울리며 청년 1, 2가 급히 우인찌를 차지한다.

△ 착잡한 생각에 잠겨있던 상근은 그제야 우유고뿌를 한쪽에 놓고 나서는데 청년 3이 급히 들어온다.

**청년 3** (다급히) 부기사장동지, 반장아버이가… 반장아버이가 지금…

**상근** 아니, 반장동무가 어떻게 됐단말ियो?

**청년 3** 반장아버이가 글썽 기중기의 중심을 조절하겠다구 저 높은 기둥우에 올라갔습디다.

**상근** (놀라며) 뭐요?!

**청년 3** 우리가 위험하다구 안된다는데 두 기어이…  
**상근** 명희기사동문 어데 있소?  
**청년 3** 명희기사동무가 지금 기중기를 운전합니다.  
**상근** 명희기사가…  
**청년 3** 부기사장동지, 기중기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상근** …  
 △ 기중기가 힘이 부치는듯 아츠러운 소리를 낸다.  
**청년 3** (박을 보며 겁에 질려) 부기사장동지, 쇠바줄에서 연기가 납니다.  
**상근** 병만동무, 불도젤에 가서 벌줄을 더 바싹 조이라고 하오.  
**청년 3** 아니 일없을까요?  
**상근** 마음이 흔들리면 기둥이 흔들리오. 어서!  
**청년 3** 알았습니다. (뛰어나간다.)  
**청년 1** 부기사장동지, 기둥이 옆으로 기울어집니다.  
**상근** (버럭 화를 내며) 우인찌 뭘하오? 불도젤이 당기는 벌줄을 보면서 조절하란말이요. 바싹 조이시오. 좀 더… 그렇지, 겁을 먹지 말구 한번 더…  
 △ 이때 밖에서 《기둥이 섰다!》하는 웨침과 함께 만세의 합성이 터진다.  
 △ 무대배경에 하늘을 떠이고 선듯한 합성탑기둥의 위용이 보인다. 그우에서 붉은기발이 바람에 펄럭인다. 청년 1, 2가 감격에 목메어 서로 껴안고 얼굴을 비빈다.  
**상근** (뜨거운것을 삼키며) 원참 사람들두…  
 △ 방창이 흐른다.  
**방창** 창공에 불라는 노을이런가  
 기둥우에 날리는 대오의 기발  
 충성의 위훈으로 우릴 부르네  
 그대의 마음처럼 빛을 뿌리네  
 아,  
 당중앙 부르는 이 길우에서  
 80년대속도를 창조해가리  
 △ 이윽고 태섭, 현철, 명희, 복녀 등이 들어온다.  
**태섭** 부기사장동무!  
**상근** 반장동무! (그의 손을 뜨겁게 잡으며) 날…날 용서하오.  
**태섭** (웃으며) 아니 이건 뭘 이러시오. 기둥을 함께 세우구선…  
**상근** 반장동무, 내 시공계획을 다시 세우겠소. 래일부터 당장 건물공사와 함께 설비조립을 내밀겠소.

**태섭** 아니 그게 정말이요?!

**상근** 반장동문 오늘 저 제대군인연공들한테만 나래를 달아준게 아니라 나한테두…

**태섭** (그의 어깨를 치며) 예끼, 사람두… 하하…

**청년 1** 부기사장동지, 우린 그럼 래일부터 전적으로 연공작업을 하게 됩니까?

**상근** (웃으며) 반장동무가 나래를 달아주었는데 마음껏 하늘을 날아야지.

**청년들** 야!  
 △ 모두 서로 손을 잡으며 기쁨에 떠들썩한다.

**복녀** (나서며) 아니 하늘을 날 때는 날래두 현철이 이 사람, 빨리 가서 어머니랑 누이동생을 만나 봐야지.

**태섭** 참 현철동무, 어서 가보오. 명희기사두 함께 가서 인사를 드리지 응?

**명희** 아이 반장동진… (당황하여 복녀의 등뒤에 숨는다.)

**태섭** 일없소. 명희동무, 동무들의 그 소중한 마음이야 우리가 지켜주면 되지 않소. (상근을 의미있게 보며) 부기사장동무, 그렇지 않습니까?

**상근** 그야 물론… (자책어린 어조로) 명희동무, 어서 가보오.

**복녀** (명희의 팔을 잡아끌며) 에이구 부끄럽긴… 내 벌써 현철이 어머니한테 너희들 관계를 죄다 얘길 했단다.

**명희** 어머니, 난 몰라요. (얼굴을 싸쥐고 밖으로 뛰어나간다.)

**복녀** 에이구 너무나 좋아서 먼저 달려가는구만. 호호…

△ 모두 따라웃는다.

**태섭** 복녀아주머니, 우리두 좀 있다 가겠습니다.

**복녀** 예, 현철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길 하지요. 자 어서들 가자구.

△ 현철 태섭과 상근에게 인사를 하고 청년 1, 2, 3과 함께 나간다.

**태섭** (상근을 보며) 얼마나 훌륭한 청년들이요. 첫 기둥을 세운 저들은 벌써 다 완공된 여기 순천지구공장들을 가슴에 안고있을게요.

**상근** 암, 오늘 저들은 첫 기둥만이 아닌 영원한 마음의 기둥을 세웠으니까.

△ 두사람 마주보며 서로 의미있게 웃을때 서서히 막이 내린다.

## 호수가의 서정

박 함 집

물우에 뜬 하늘이나  
하늘에 닿은 물빛이나  
내 언제우에 올라  
맑은 호수 굽어보노라

아, 손 담그면  
초록물이 들듯  
손 들어마시면  
마음도 푸르려질듯

물속엔 꼬리치는 잉어떼  
물오린 그래서 못떠나는가봐  
거울같은 호수가에 가리마를 찌며  
유람선은 흰물댕기 날리고

보아라, 저기  
줄줄이 뻗어간 고압선은  
이 언제밑에서 튼 번개란다  
배불리 먹고 누우렇게 드러누운건  
이 물을 빨며 자란 황금의 이삭

종구나, 신성호  
하늘만이 주던 풍년약비  
땅에 내려 못이 되니  
장덕벌 한해량식  
여기에 다 고였구나

옛날엔 물마른 강바닥 끼고  
오솔길 슬피 넘어갔다지

쭈정이같은 손을 마주잡고  
비를 부르던 너인의 가냘픈 모습  
지금은 어디메 갈았었느냐

아, 물 물때문에  
피도 마음도 까드라들던  
인민의 가슴에 봄을 주라고  
물길도 이어주고 유람선도 띄워준  
어머니당의 한없는 은정

계정부리는 찢먹이마냥  
물결은 춤추며 기슭에 뒹글어라  
언제는 팔 벌려  
터지도록 고이는 인민의 재부를 안아라

아아,  
사랑의 호수가  
이 가슴에 출렁인다  
복받은 언제야  
나도 함께 안아다오

만대를 가꾸어야 할 이랑앞에  
흙을 권 한생이 너무도 짧고나  
내 차라리 호수 되어 노래하리  
내 차라리 언제 되어 지켜가리

노래를 준 호수여  
노래도 호수도 거기에만 있는  
아, 자애로운 당의 품이어

# 무엇을 위한 삶이며 무엇을 위한 투쟁인가

-장편소설 《령마루》의 주인공을 두고-

윤 종 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과 같이 벅찬 혁명의 시대에 아무런 투쟁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사는것은 사실에 있어서 생활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람값에 가지 못합니다.》

값있는 삶,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위업에 한몸바쳐 복무하는 삶이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전진하고 혁신하는 투쟁으로 일관된 벅찬 생활이다. 투쟁이 없는 안일한 생활,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적인 생활은 참다운 인간의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위한 삶이며 무엇을 위한 투쟁인가 하는 문제는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혁명적문학예술에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며 이 문제를 어떤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어떤 수준에서 다루는가 하는데 따라 문학예술이 혁명발전의 시대적요구에 어떤 수준에서 해답을 주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된다.

장편소설 《령마루》는 3대혁명의 기발을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하여 기세찬 투쟁을 벌리던 력사적시대의 특징을 밝히고 이러한 시대적요구에 맞게 살며 투쟁하는 새형의 인간들의 성격적특질, 정신도덕적품모를 생동하게 형상한것으로 해서 독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시대는 그 이전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요구를 사람들앞에 제기하였다. 속도전의 불바람속에서 온갖 낡고 보수적인것이 분쇄되고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살며 일하기 위하여서는 수령님과 당에 대한 새로운 높이의 충성심을 간직하여야 하며 고도의 정신적긴장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달려가지 않으면 안된다. 순간의 담보도 안일도 허용될수 없으며 경험주의, 보수주의는 기술의 시대, 과학의 시대에 있을 자리가 없는것이다.

비록 어제날에 혁신자였고 영웅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만족하여 낡은 사고방식, 낡은 경험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주관적으로 아무리 충실하려고 하고 생활의 중심에 서으려고 해도 거센 시대의 흐름에서 여울목으로 밀려나오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살며 생활과 투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서는 충성심이 말이나 주관

적욕망에만 머무를것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로 안받침된 실천의 물질적결과로 나타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장편소설 《령마루》는 우리 시대의 이러한 특성을 밝히고 무엇이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전진시키는 요인이고 무엇이 그것을 방해하는 제동기적요소로 되는가 하는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었을뿐만아니라 참답게 살며 투쟁하는 우리 시대의 주인공,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대의 전형으로 묘사된 대표적인 인물이 광산 기사장 주인공 현우림의 형상이다.

현우림은 어떤 사람인가?

현우림은 마음속에 신념의 기둥을 세우고 명확한 삶의 목적을 향하여 살며 투쟁하는 평범하나 참다운 당원이다.

그는 병원에서 자기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썼다.

《…목적 없는 생활, 그것은 삶이 아니라 죽음이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과 보람을 체험하고는 그 순간에 느끼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또는 불행에 처하였을 때에야 그것을 돌이켜보게 된다. 참다운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것을 가지는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평소에는 절실히 느끼지 못한다.

명확한 목적과 보람찬 투쟁으로 충만된 생활에 관습된 현우림에게 있어서 조용한 병원생활, 안식과 치료는 건딜수 없이 파분한것이며 고기가 물밖에 나간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러한 느낌은 그가 자신을 과장해서 생긴것이 아니다. 그의 입원이 광산사람들에게 생활의 한부분을 차지하고있던 그 무엇인가가 갑자기 없어져버려 빈자리가 생긴것 같은 허전함을 느끼게 하였다는것은 그의 삶의 모든 의의가 동지들과 련결되어 있었고 위대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 있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바로 그러한 삶에 관습된 사람에게 있어서 읽은 책은 위생독본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생활이 장수법의 비결로 집대성되어있는 인간에 대하여 혐오감을 일으킬것은 정한 리치이며 일생에서 삶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통감하게 되는것은 필연적이다.

현우림은 위대한 수령님의 해빛아래 찬란한 삶을 찾았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말

겨주신 혁명과업수행에서 삶의 숭고한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 목적은 그의 생활의 전부였으며 그의 모든 열정과 창조력, 초인간적인 힘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현우림에게서 바로 이것을 느낀 로영민교수는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과 학제적결론과는 달리 10년후에도 살아있을것이라고 단언한다.

인간의 숭고한 목적,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데 있는 것이며 결코 일자체의 규모나 어려움의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 앞에 차례진 혁명과업은 다양한 것이므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것도 있고 띄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이며 장엄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평범한 것도 있을 수 있다. 현우림이 담당한 혁명과업은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거나 우주를 정복하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니라 착암기와 전화통을 쥐고 땀을 흘리면서 쇠돌을 캐내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매 순간은 크지 않은 것을 이룩하지만 그 평범한 순간들은 커다란 역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업을 성취해놓는 것이다. 문제는 이 평범한 사업속에서 그 매순간을 어떻게 티없이 깨끗한 충성심으로 충만되게 하고 그것을 풍만한 결실로 되게 하는가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격동적인 사변에서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사업속에서도 영웅적인 위훈이 기록되는 것이다. 현우림은 바로 평범한 기술자이지만 숭고한 목적을 가진 사람임으로 해서 시대의 흐름의 중심을 차지한 시대의 전형, 새형의 인간전형으로 되는 것이다.

현우림은 생활의 목적, 신념을 가진 사람일뿐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없이 견지하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이며 말보다도 실천으로써 당의 요구를 관철하는 행동의 인간이다.

주인공의 이러한 성격적특질, 정신적품모는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성, 혁명동지들에 대한 참다운 사랑, 사업을 위한 지칠 줄 모르는 탐구정신에서 잘 나타난다.

자신에 대한 요구성, 동지에 대한 사랑, 사업에 대한 탐구정신, 이 모든 것들은 호상 불가분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참답게 살려는 하나의 요구에 귀착된다.

자신에 대한 요구성이 높지 못할 때 동지와 벗들에 대한 진정한 관계를 가지기 어려우며 생활에 대한 탐구심은 곧 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성의 발현으로 된다. 그리고 그러한 탐구정신을 가지지 못할 때 생활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있을 수 없으며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요구성, 사랑과 탐구심이 사업,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한 주인공의 태도를 규정한다. 또한 이러한 요구성이 그의 완강한 의지를 낳고 반대로 그의 의지력이 이러한 요구성을 견지하게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높은 요구성은 정치적생명의 귀중성에 대한 투철한 자각과 연결되어 있다.

현우림은 자기의 육체적생명이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며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의 신념, 생활관의 당연한 귀결로서 비관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생의 마지막순간을 보람있게 살아가길 결심을 내린다.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자기가 살아온 한생을 톡톡히 총화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어떤 영역에서도 비관할 줄 모르고 낙관적으로 싸워이겨야 한다고 가르치시지 않았는가!

이 좋은 제도, 이 좋은 세상에서 단조롭게 살아온 자신의 지난 생활이 그에게는 허전하였다. 그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맡겨준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지나 않았는가 하는 위구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3개월의 생명은 천금보다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하여야 할 모든 일,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이 순간에 다해내려는 불타는 욕망이 그를 사로잡았으며 초인간적의지력이 그의 육체적허약성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였던 것이다. 그는 운신할 수 없는 몸으로 병석에 누운 처지에서도 그가 일심정력 심혈을 기울여왔던 장거리벨트콘베아 시운전이 성공되고 종합적기계화가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이 준 과업을 완수하였다는 기쁨으로 해서 육체적고통을 잊고 정신적안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주인공의 자신에 대한 요구성, 정신적높이는 확정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물러서지 않으며 혁명과업을 완수함으로써 자기의 생애를 톡톡하게 총화하려는데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마지막순간까지 한점의 그늘도 없이 땀뻑하게 당적인간으로 살아남으려는 지향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자기의 생명이 한정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주인공과 같은 처지에 놓인 범속한 사람들은 대개가 다 자기의 지난날을 총화해보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대하게 대해줄 것을 바라는 동시에 자신이 또한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려고 한다. 간단히 말하여 남에게 아픈 소리를 하기 싫어하며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쓰면서 비원칙적인 것과 타협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주인공 현우림은 이 문제에서 비타협적이며 자신에 대한 요구성에 높다. 그는 하루를 살아도

구김살 없이 푹푹하게 사는것, 이것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만이 누릴수 있는 영예이며 기쁨이며 긍지라고 생각한다.

주인공의 바로 이러한 생활신조, 정신적자세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업에서 그가 취하는 태도의 기초로 되고있는것이다. 또한 바로 이러한 생활신조, 정신적자세가 당과 수령에 대한 그의 충실성의 구체적표현으로 되는것이다.

주인공의 이러한 정신적품모는 윤혜영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

그는 세아이의 어머니이며 가정주부인 윤혜영이가 당과 수령의 은덕에 보답하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살며 일하기 위하여 대담하게 생산현장으로 연구실을 옮겨온 사실에 대하여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날이감에 따라 동정은 신뢰로, 신뢰는 기대의 감정으로 바뀌어간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녀성연구사가 국내 원료가 아니라 수입제원료를 쓰는 중화제를 연구하고있는데 대하여 원칙적인 의견도 주었고 또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해나가리라고 기대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연구사가 수입제원료를 고집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러 그는 자기의 립장을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놓인다.

그는 3개월이나 남편과 아이들을 떠나 막장에 들어가 살면서 손등이 터갈라지도록 일도 하며 연구사업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둔 이 녀성에게 무엇을 더 요구할것이 있는가? 더우기 죽음을 눈앞에 둔 자기가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할건 뭐가? 인간성이 너무도 부족하지 않는가? 이러한 의혹과 동요가 한순간 현우림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나 위선적인것을 가장 미워하고 자기 량심앞에서 굽힐줄모르고 뚝뚝하게 살아온 자기가 자신을 속이고 배신하고있다는것을 자각하게 된다. 만약에 지금까지 때로는 사람들한테서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서도 타협없이 꾀꾀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제 자신을 속이고 배반한다면 닥쳐올 죽음을 뚝뚝이 맞이할수 있으며 푹푹하게 일생을 충화하려는것은 무의미한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는 이 정신적위기를 이겨내고 머리를 추켜들면서 《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런 중화제가 필요하냐말이요? 그 원료를 가져온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요? 아니면 동무자신의 연구과제를 위해서요? 연구사의 체면과 학위론문을 위해서요?... 동무는 귀중한 국가려비까지 써가며 발명권과 영예를 가져가지만 당과 로동계급을 위해 해놓고 가는 일은 아무것도 없소.》라고 한다.

이것은 윤혜영이가 가지고있는 사상적약점에 대한 가슴이 저려들만큼 심각한 원칙적인 비판이다.

이 비판은 주인공자신이 자신의 량심, 생활신념을 굽히지 않고 뚝뚝이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윤혜영에게도 의지와 넋을 가진 자주적인 인간이 되고 과학자가 되는데서 반드시 필요한 비판인것이다.

윤혜영에게 필요한것은 무원칙한 동정이나 위로가 아니라 굳센 인간으로 되는데 필요한 참다운 동지적 사랑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애당초에 그는 따뜻한 남편결을 떠나 벽찬 현실속으로 나올 필요가 없었던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윤혜영이가 기사장을 차거운 인간이라고 비난한것은 부당한 자기변명인것이다.

현우림이와 같은 건강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혁명적량심, 당적원칙을 지킨다는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정신적품모는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당과 수령, 로동계급 앞에 깨끗한 량심을 지닌 사람만이 지닐수 있는 숭고한것이다.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숭고할뿐 아니라 영웅적인 성격의 소유자인것이다.

현우림은 겉으로 보기에 무점없고 인간성이 부족한 사람같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진리, 정의, 참된것을 옹호하는 불덩이가 있다. 그 불덩이는 사람들에게 때로 차갑게 감촉되나 조만간에 사람들의 온 정신을 덥혀주는 열로 전환되며 온갖 불순물을 불살라 버리는 정화제로 된다. 현우림은 얼핏 보기에 실무주의자이고 관료주의가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당적원칙, 혁명과업 앞에서 동요를 모르는 기둥이 서있으며 그가 지닌 충성의 열도는 조만간에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으며 혁신으로 추동한다. 그는 가정에 무관심하고 아기자기한 생활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였다. 그러나 그는 개인생활에 관심을 돌릴 겨를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며 안해를 살뜰히 돌보아주지 못한 지난날을 두고 쓰라린 회오의 감정을 느끼지만 그에게 만약 두번째 생애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이전의 현우림대로 남아있었을 순진하고 진실한 사람인것이다.

장편소설 《령마루》에 묘사된 주인공 현우림은 높은 삶의 령마루에 오른 우리 시대의 주인공이며 새로 자라난 주체형의 인간전형이다.

주인공이 올라선 이 령마루의 높이에 의하여 광산은 당과 수령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간다. 또한 주인공이 도달한 이 정신적높이에 의하여 사람들의 성장이 촉진된다.

강희철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은 당과 수령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신적바탕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그들의 충성의 열정이 바른길을 찾아 제때에 불길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불꽃이 필요하고 자극이 있어야 하는것이다. 현우림은 자기의 충실



성과 진실성, 탐구성과 원대한 포부로써 청년들의 심장을 불태운다.

나약성과 타산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없는 윤혜영과 같은 과학자, 기술자에게는 다만 생산현장의 준엄성만이 아니라 참다운 로동계급의 정신적높이에 부딪치는 세례가 필요한것이다. 윤혜영의 남편은 자기안해의 정신적변화와 장성에 대하여 《나는 당신이 현실에 나가 중화제를 완성하게 된 기쁨보다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당신을 보게 된것이 정말 반갑소...》라고 하는데 이러한 변화를 가져옴에 있어서 현우림의 령정하나 혁명적동지애에 넘친 충고가 결정적작용을 하였다는데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것이다.

현우림의 오랜 벗이고 동지이며 전통적인 광부인 갱장 박상만과 같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대에 뒤떨어지고 허공에 뜬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근본을 되찾고 시대의 진군에 발맞추어나가자면 세찬 불길로 공허한 정신속에 무성한 잡초들을 불사르고 묵은 때를 벗기지 않으면 안된다.

주인공의 정신적령마루는 여기에서도 불길의 작용을 하며 인간개조의 추동력으로 된다.

이러한 정신적령마루에 올라선 사람들은 대중을 영웅적위훈으로 추동하는 기수로 되며 평범한 일상생활과 사업을 력사적위업으로 전환시키는 창조적힘으로 되며 사람들의 정신생활과 투쟁속에서 확고하게 자리잡는 불가분리적인 유기적구성요소로 된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혁명과 건설이 촉진될것이고 생활이 그만큼 벅차고 아름다와질것이며 궁극에 가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다그쳐질것은 명백하다.

바로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장편소설 《령마루》는 현시대에 절박한 인간학적문제, 무엇을 위한 삶이며 무엇을 위한 투쟁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와 함께 오늘을 살고있는 주체형의 참된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줌으로써 커다란 교양자적역할을 수행하고있다.

백시

## 용접공, 그대 날리는 불꽃은...

리수용

솟는 해보다 먼저  
돋는 별보다 먼저  
련포벌 하늘가 한가득  
용접의 불꽃날리는 그대,

그대 날리는 불보라속에  
은빛기둥이 숲처럼 솟구치고  
그래 손길에 이끌려  
비날론공장은 거연히 일떠선다.

용접공 그대여,  
정녕, 그대 날리는 불꽃은  
순간에 피여도  
영원한 꽃으로 새겨지거니,

자랑하라 그대여  
노을로 피어나는 용접의 불빛속에  
비날론무지개로 더 아름다와질  
내 조국의 모습이 비껴있음을!

# 세대의 자랑

민 별

사람의 한생에서 가장 귀중한것이 청춘시절이라고  
들 한다.

피가 끓는 시절을 당이 바라고 조국이 바라는곳에  
서 빛내여갈 때 우리의 영예, 우리의 자랑은 무엇보  
다 큰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더 잘살기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더욱 많은 일  
을 해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큰 공적을  
쌓아 청춘시절을 보람있고 떳떳하게 빛내여 오랜 세  
월이 흘러간뒤에도 자랑스럽게 회고하는 사람은 행  
복한것이다.

나는 이번에 순천비날론공장 건설장으로 취재를  
나갔다가 생활의 이 진리를 다시금 새삼스럽게 느끼  
게 되였다.

초록단장을 한 대동강반에 따사로운 별이 드리우  
고 그물그물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봄날이였다.

렬차는 중천에 높이 걸렸던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지기 시작할무렵에 신련포역에 가닿았다.

걸음보다 앞서는 마음을 안고 나는 차에서 내렸다.

방금 역전거리에 나섰을 때 뒤에서 석싹한 목소리  
가 들려왔다.

《여보시오, 나 좀 봅시다.》

돌아보니 낮설은 사람의 눈길이 나와 마주쳤다.

후리후리한 키꼴에 회곳회곳한 귀밑머리, 눈꼬리  
언저리에 잡힌 부채살같은 잔주름, 부리부리한 눈과  
널직한 가슴, 그리고 뼈마디가 울퉁불퉁한 방석같은  
손은 한창나이에 한몫 단단히 해냈을상 싶었다. 잔등  
에 큼직한 배낭을 걸머지고 두손에 또 배가 불룩한  
려행가방을 하나씩 들고도 허리를 쑥 펴고 건너오는  
것이 웬만큼 건장한 기상이 아니였다.

《미안하지만 말 좀 물읍시다. 비날론공장건설장은  
어느쪽으로 가야 하는가요?》

《저와 함께 갑시다. 손집을 저에게 주십시오.》

비록 먼길은 아니지만 동행자를 만난것이 마음에  
내키여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 사람이 고집스럽게  
도리를 떠는바람에 한참 싱갱이를 해셔야 겨우 려행  
가방 하나만을 받아들수 있었다. 그러느라니 어느덧  
스스럼없이 말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였다.

이름은 리경수, 나이는 신들 나보다 두살우였다.  
말아들을 만나러 오는 길이라고 했다. 영철이라고 부  
르는 그 아들이 지난해에 군대에서 제대되자바람으  
로 비날론공장건설을 탄원하여 왔는데 편지를 띄울  
적마다 자기들이 건설하는 현대적인 공장에 대해 자  
랑이 이만저만 아니라는것이다.

《참 기특합니다. 젊은 시절에 이처럼 큰 공장을 일  
떠세우는것이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온 세상에 대고  
큰소리칠만도 하지요.》

나의 이 말에 리경수는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아니지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라 내앞에서야... 이  
래봐두 내가 바로 우리 나라 첫 비날론공장건설자라  
우.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그녀석이 금방 이 세상  
에 태어날 때 우리는 2.8 비날론공장을 세웠거든  
요.》

《아, 그런가요.》

나는 환성을 질렀다.

25년전에 첫 비날론공장을 일떠세운 세대가 순천  
벌에 새로 솟아나는 대비날론공장건설장에서 일하는  
아들을 찾아온다는것이 얼마나 흥미있는 일인가.

나는 기자의 직업적인 호기심으로 첫 비날론공장  
건설때 이야기를 이것저것 물었다.

그러자 리경수는 젊음이 소생한듯 한손을 휘둘러  
대면서 자랑을 늘어놓는것이였다.

《그때야 지금처럼 출퇴근시간이 따로 있었는데 아  
시우. 정말 낮과 밤이 따로없이 전투를 했지요. 이름  
그대로 치열한 전투를 했다니까요.》

아직 서른전의 젊은이였던 리경수는 군대에서 제  
대되어 고향인 후치령저쪽 풍산에 돌아가게 되였다.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와 동생들이 기다리는 정  
든 고향땅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보다도 마음이  
더 급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함흥에 들렀던 그는 비날  
론공장건설이 시작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공장  
이 일어서면 천이 폭포처럼 쏟아질것이라는것이였다.  
어린시절 토스레웃 한두벌을 온 집식구가 엇갈아입  
으면서 자랐고 짐승가죽으로 얼추 몸가림을 하던 해  
방전일을 생각하니 좀처럼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비날론공장건설장에 뛰어들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땅을 파고 벽돌을 저날랐다.  
그래도 힘드는줄을 몰랐다.

한작업반에서 일하던 얼굴처럼 마음씨도 곱던 외태머리처녀가 옷을 빨아주고 기워주고 살뜰히 보살펴주는것이 또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 처녀가 바로 후날의 안해-영철의 어머니였다. 아버지, 어머니의 땀이 스민 비날론으로 영철은 어릴적부터 철따라 색깔 고운 새옷을 갈아입으며 자랐다.

그때 이야기를 구수하게 엮어나가던 리경수는 창줄간 정색하여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첫 비날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 그녀석이 일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소. 공사장에 오자바람으로 댕에질이나 하구?》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렇게 묻자 로인은 《흥!》하고 코방귀부터 불었다.

《아 글썄 여기로 온지 얼마나 된다고 벌써 처녀하나를 점찍어놓았다는만요. 선뵈러 집으로 갈새는 없구 이 애비더러 오라는게 아니겠소. 그래 이 짐보따리들을 메고 들고 헐떡거리며 오는거라우.》

《하하, 그러니깐 약혼상을 차릴 차비이군요.》

《약혼은 무슨 약혼, 저희들마음이 딱 맞으면 그 자리에서 제격 혼례라도 치르어 일에 마음붙이게 해야지. 안그렇소?》

그가 껄껄 웃어대는바람에 나도 덩달아 웃었다.

우리들의 즐거운 이야기는 건설장근방에 와서 아주 동강나고말았다.

《순천비날론공장건설에서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는 대형구호가 담벽처럼 나 붙은 대동강기슭으로부터 건설장은 눈이 모자라게 아득히 펼쳐져있었다.

내가 달포전에 왔을 때만 해도 몰라보리만큼 건설은 빠른속도로 진척되고있었다. 수십메터씩 되는 기둥들이 수풀처럼 일떠선 공사장 여기저기서 거인같은 기둥기둥들이 대형벽체와 들보들을 척척 들어올리고 집채만한 자동차들이 건설장이 좁다고 부릉거리며 떼를 지어 나돌고있었다. 그 어느쪽을 바라보아도 와룡와룡 돌아가는 기계들만 눈에 띄웠다.

리경수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다.

《허참, 아주 판판이로군. 우리 그때는 삽과 곡괭이, 질통을 가지고 공장을 지었는데 온통 기계들만 짝 들어어췌으니 이게야 기계가 일하는거지, 사람이 일하는 건가. 아주 달라졌어. 하기가 세월이 흘렀으니 달라질수밖에...》

그는 후-하고 큰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의 감탄이 얼마나 큰것인지를 가늠할수 있었다.

이튿날오전, 나는 공사현장에서 리경수의 아들 영철을 찾을수 있었다.

아버지처럼 키쑤이 쑥 뻗히고 뼈가 굵고 눈이 부리부리한 젊은이, 손탁이 드세기로 온 건설장에 소문이 퍼르르한 청년돌격대 대장이라고 한다. 이곳에 오자바람으로 돌격대를 무어 황소대가리도 얼어터진다는 대소한 강추위에 바닥에 바위가 드러날 때까지 기초를 깊이 파고 대형기둥 여섯대나 일떠세워 《두발기중기》라는 별명까지 붙었다니...

기발을 들고 아찔하게 높이 솟은 대형기둥우에 들보를 들어올리는 연공작업을 지휘하던 영철은 철창에 나와 마주앉았다.

돌격대정형을 알아보고나서 나는 어제 그의 아버지를 만났던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의 훈계를 받느라고 땀을 좀 뺐았겠구만.》

이 말에 영철은 씩긋 웃기부터 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올 때는 호되게 닦아 세울 잡도리였는데 건설장에 들어서자마자 봄눈처럼 스르르 녹아버렸다는요.》

《그건 왜?》

《정말 뜻밖이라는겁니다. 순천지구건설이 크다크다해도 이렇게 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년산 10만톤이면 처음 함흥에 지었던것의 다섯배니까 그저 그쯤 되리라고 예상했는데 상상밖이라는겁니다.》

어디 비날론공장뿐인가요. 화력발전소...》

《아버지가 순천지구건설의 위세에 놀리어 아들을 닦아세우지도 못한다. 허허... 머느리감이 마음에 있어합니까?》

《아니 그건 어떻게 아시구...》

영철은 귀밑을 붉히며 뒤더수기를 굵적거렸다.

《내가 다 알고있는데 숨길건 없소.》

얼굴이 벌개졌던 영철은 어쭙게 말했다.

《사실은 어제밤에 아버지가 그 동무를 만나보구 승낙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비날론공장조업하는 날에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것 참 잘했구만. 비날론공장건설자다운 사고방식이요. 그래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오?》

《휴가를 여기서 보내겠다면서 아침부터 휘틀조립 공사장에 나가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돌격대원들이 것처럼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시도 작업장을 뜨지 않고 돌격대원들의 일손을 도와나섰다는것이다.

내 나이들어 일을 크게 치우지 못하지만 첫 비날론공장건설자의 마음만이라도 여기에 두고가겠다는것이다.

《그래?》

그의 말을 듣는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역시 첫 비날론공장건설자다운 기백이였다.

아버지의 자랑!

아들의 금지!

25년전에 아버지가 가던 길을 그 아들이 이어가는 것이고 아버지세대엔 상상도 못하던 높은곳으로 아들이 치달아오르고있는것이였다.

날을 따라 커만가는 자량은 우리 인민들에게 하나를 주면 열, 열을 주면 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는 위대

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려는 충성의 한길에서 꽃핀 자량이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사는 우리 인민모두에게는 날이 가고 해가 갈릴수록 세대가 바뀔수록 그 자량이 커만가는것이다.

## 돌격대원, 그 이름속에

최 정 용

눈덮인 은룡산마루에  
휘날리던 돌격대의 기발  
제련소건설장  
여기서 다시 바라보며  
설레는 이 가슴

이제 갓 스물  
꽃다운 저 모습들이다  
수령님과 당중앙에 기쁨드린  
《80년대속도》창조의 선구자들이

아직은 찬바람 불어예건만  
옷옷을 훌훌 벗어붙이고  
몰탈을 다져가는 피끓는 청춘들  
더운김 피어나는 가슴으로 안아세운다  
별 아득히 뻗어가는  
은빛 벽체며 검붉은 탑들을...

이제 얼마후면  
땅속깊이 묻어버릴 기초벽에  
돌격대의 이름을 남기며  
밝게 웃는 청춘들아  
얼마나 보람찬 삶의 회일이  
그대들 가슴에 넘치는것인가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을 청춘시절에  
순간순간을 더없는 보람으로 이어놓으며  
불같이 살아간 청춘들의 모습처럼  
이 땅우에 또 하나의 기념비는 솟거니

피어나리라

남대천  
봄빛어린 그 흐름우에  
아침노을처럼 아름답게 비껴내릴  
배소로의 불빛

오늘에 그대들 부르는 노래처럼  
건설장 흔드는 청맑은 그 웃음처럼  
이 땅우에 저 하늘가에  
창조의 동음은 울려퍼지리라

아, 날리는 기발처럼  
한시대를 앞장서 살아온  
청년돌격대원!  
장한 그 이름  
조국은 사랑담아 부르고 부르리라

검덕의 3선광장  
단천의 제련소...  
청춘의 나이를 세이듯  
충성의 기념비들을 세이며  
그대들은 80년대의 청춘들이였다고

아, 돌격대원!  
가장 고귀한 청춘의 이름이여!  
그 이름속에 빛나리라  
조국앞에  
미래앞에  
아낌없이 바친 그 삶과 함께  
청춘의 그 모습  
별처럼 빛나리라

## 《목화》 대풍

박영욱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초가삼간 지어놓고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면서 두툼한 무명옷이나마 깨끗이 입고 사는것이 소망이었다. 지난날에는 세대를 이어 내려오는 이 소박한 념원마저 이룰수 없길래 그 소망은 더욱 간절해지는것이였다.

이제는 옛말처럼 되어버린 조상대대의 그 간절한 소망을 두고 나는 깊이 생각에 잠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한두해안으로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아버지수령님께서 올해에 또다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창조와 혁신으로 새날을 맞이한 순천지구전선의 들끓는 전투장에서 있는 일이다.

대형보이랴를 설치할 기초바닥콩크리트치기를 끝낸 작업반원들이 땀을 들이며 잠시 휴식하고있었다.

이때 들려준 덕칠아바이의 말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박아바이로 말하면 60이 넘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작업장에 지원나오는 성실한 아바이다. 자기뿐 아니라 휴식일에는 온 가족들까지 데리고 나온다.

휘틀치는것도 돕고 못도 뽑아 하나라도 허실할세라 끈게 퍼서 모아둔다. 따라다니며 잔손질을 해주는것이 고맙기는 하나 수고를 끼치는것이 미안하여 쉬라고 만류하였더니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는것이였다.

《임자네들 내 마음을 너무도 몰라주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수령님의 은덕으로 옷케마다 가득가득 좋은 옷들을 쌓아두고 살지만 내 어린시절엔 베옷이나마 새옷을 입어보지 못했네.

아버지의 무릎나간 베잠뱅이를 줄여서 입으면 고작이였지. 어느날엔가는 얼음치기기를 하다가 온몸이 얼어 울며 들어온 나를 누데기 이불에 감싸주던 어머니는 그해 봄에 얼마 되지 않는 밭을 일쿠어 목화를 심었지. 현대 어데 제대로 되던가.

서리맞아 시들어져서 얼마 되지도 않는 목화마저 소작준 땅에 심은거라고 지주놈이 빼앗아갔네. 그 해

겨울에도 석새베바지를 면할수 없어 밖에서 풍뎡 몸이 얼어들어오는 나의 몸을 어루만져주며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네.

나쁜인가, 자네들의 아버지며 어머니들도 다 그렇게 살았네.

무명옷이나마 입으며 살고싶던 그 소원이 오늘은 갖가지 옷을 찢파라 골라입는 꿈같은 현실로 꽃피웠거든.

아버이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의해 비날론숨이 폭포처럼 쏟아지지 않나.

우리가 건설하는 이 공장에서조차 이제 해마다 10만톤의 비날론숨이 쏟아질걸 생각하면 잠이 다 안오네. 그런 《목화》대풍이 어데 있겠나. 그때 가면 우린 정말 《목화더미》우에 앉게 될걸세.》

그의 말은 들을수록 가슴뜨거워진다.

정녕 10만톤의 비날론숨이 쏟아지면 우리 나라는 《목화》대풍이 이룩될것이 아닌가. 지난날 지지리도 못살던 우리 인민이기에 오늘 이 세상에 부럼없는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주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그 크나큰 사랑이 그대로 풍만한 열매로 되어 주렁지게 될것이 아닌가.

경지면적이 적고 제한된 우리 나라에서 먹는 문제와 함께 입는 문제는 절박한 문제였다. 이처럼 절박하게 제기되는 입는 문제를 해결해주시려 포연이 강산을 뒤덮었던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승리한 래일 우리 인민들에게 더 잘 입히시려 돌에서 숨을 뽑도록 과학자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던것이다.

그 사랑, 그 은정을 오늘 또다시 꽃피워주시려 찬바람을 맞으시며 순천땅에 찾아오신 아버지수령님께서 10만톤 대비날론공장을 일떠세우도록 이끌어주시였으니 정녕 멀지않는 앞날에 마련될 《목화》대풍은 위대한 수령님의 아버지사랑속에 마련된것이다.

하기에 우리 건설자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날마다 지원의 손길이 뜨겁게 미치고있는것이 아닌가.

우리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다시 일손을 다그쳤다. 하루빨리 아버지 그 사랑을 활짝 꽃피우려는 충성의 한마음으로...

# 눈내리는 순천땅에서

윤 명 속

흰강변길따라  
아득히 치솟은 무쇠기둥들  
쓰다듬으며 어루만지며  
눈이 내리네 눈이 내리네

서둘러 눈발이 꽃보라인양  
무쇠기둥사이로 춤추며  
끝없이 내리며 쌓이는 저 눈송이들  
대비날론공장조업식의 그날을 축복함인가

닭아놓은 새길우에도  
늘어진 첩탑들우에도  
쉬임없이 내리고 내리며  
뛰고 달리는 건설자들의 이마우에도  
구슬땀을 식혀주며 단가슴을 식혀주며  
벌써 하얀 비날론 햇숨이  
하늘 가득 내려쌓이는듯...

가슴뜨거워라  
진눈까비 날리는 찬바람에  
옷깃을 날리시며  
그 크나큰 비날론부지를 돌아보시던  
어버이수령님

내리는 저 눈비를 다 맞으시며  
여기 논판의 진흙을 밟으시고  
불어오는 찬바람도 가늠하시며  
순천땅의 새 역사를 펼치시던 그 영상

바람따라 공장을 앉히고  
제진장치도 잘하라고

대형장거리 관수송의 새길도 열어주시던  
그 은정 그 사랑에 눈은 내리고  
대동강 맑은 물도 목메여 소리쳐흐르는가  
그이의 원대한 구상이 활짝 꽃피어  
비날론 햇숨이 내리고내리는가

아, 순천땅  
대비날론기지의 구내길로  
우리 수령님 다시 오시던  
내 마음 비날론꽃숨으로 피여날  
그 간절한 마음의 눈이 내려이쌓이네

동해의 대비날론기지와 나란히  
순천땅에도 세워주시는 그 은정에  
불타는 나의 심장  
건설장의 억만 불보라로 날려가도 못다할  
어버이 그 사랑에

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수령님 한평생  
비날론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 사랑 그 은정속에  
저 우주공간을 가득 채우며  
10 만톤의 비날론숨이 쏟아져내리여라

하늘땅 가득  
순천땅에 비날론햇숨이  
건설자 나의 가슴에도  
따스히 감싸안으며 내리여쌓이네  
어버이 그 사랑을 끝없이 속삭이고 속삭이며...

## 탄생 외 1편

강 남 섭

그 언제이던가  
우리 수령님  
찬바람에 진펄밭에 와슬렁이는  
갈대숲을 헤치시던 그날은

머리우 들새들의 날음도

바다기슭의 배고동소리도 귀담으시며  
한발자욱 또 한발자욱...  
력사의 자취로 남기시며 걸으실 때  
우리 다는 몰랐던 그 사랑!

그처럼 참혹한 불바다속을 헤쳐온

우리 인민이기에  
그처럼 불굴한 영웅기상을 펼쳐 온  
우리 조선이기에  
이 세상 가장 좋은 비단옷을 입혀  
따뜻이 품어주시고 내세워주시려는 그 사랑!

아직 초연서린 날이었던가  
과학자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며  
어서 찾으라고  
어서 《조선의 목화》를 피우자고  
크나큰 담력과 끝없는 지혜의 날개를 펼쳐주신  
우리 수령님!

그날의 사랑에 이어져  
언젠가는 그이께서  
은정어린 첫 비날론견본을 보아주시며  
매우 좋은 솜이라고  
훌륭한 일을 해놓았다고  
그리도 치하해주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

아, 그날의 그 사랑 그 모습으로  
바람세찬 벌 한끝에 서계시는  
우리 수령님 우리러  
감격에 목이 메여 목이 메여서  
정 해지는 가슴안고 뜨거웁에 젖었는데  
마침내 사색의 매듭이 풀리신듯  
확신의 어조로 올리셔라  
-비날론공장부지를 여기로 정함시다.  
1 만톤능력이 아니라

2 만톤짜리를 앉힙시다.

아 우리 수령님  
창공에 손높이 드셨다!  
백두산 그날에 격전을 부르시던  
전승의 그날에 복구건설을 부르시던

손, 거룩하신 그 손길  
우리 수령님 높이 들어 펼치실 때  
세계는 환성치며  
위대하신 그이의 손길  
경탄의 눈길로 바라보며 말했다  
-조선은 비날론무지개 비낀 나라!

아, 그날은  
그이의 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조선이 세기의 령마루에 서서  
다시금 세상에 대고  
우리 나라 비날론력사의 장엄한 시작을 알린  
위대한 날이었다

그렇다, 우리 나라 비날론의 력사는  
조선의 한 지점-  
황초령의 찬바람 그칠새없이 불어치는  
룡흥벌에서 꽃이었다!  
우리 수령님도 환하게 웃으시고  
그이 우리러 온 나라가 환희치며 따라웃는  
그날에 비날론무지개가 펼쳐지었다!

## 별들이 웃네

와르릉- 와르릉-  
용을 쓰는 불도젤소리  
이 밤도 전조등 환히 비치며  
쭈- 쭈-  
흙밭을 밀어가는 그가 누굴지?

설마 그 동물일지?  
군용땅크 몰았다는  
오늘은 비날론공장건설장에  
《건설땅크》몰표아 왔다는  
제대군인 익살군 그 동무일지?

내 알바 없어라

하도 넓은 이 큰 건설장에  
불도젤운전수 어디 한둘뿐이라고,  
내 그를 생각할바도 아니지  
미장공 내가 할일 따로 있지

나는 나대로 야외등아래  
비행발판 타고 쭈-쭈-  
미장칼 휘둘러 벽미장하는데  
누군가의 웅글은 목소리  
-동무! 몰탈이 얼지 않았소?

누굴가?  
이때쯤 불도젤소린 왜 똑 멎었을까?

순간 내려보거나 올려보거나-  
어머니 두눈 부딪칠줄이야...  
(아, 그였구나! 땅크병이었구나!)

어인일인가?  
분명 또 익살피우러 왔는가?  
생각은 순간인데  
어느새 그의 머리 발판우로 쑥 내밀며  
-발소! 이걸루 몰탈을 덮소! ...

아, 받아줘니 두툼한것,  
아직도 령장자리 또렷한 숨외투였구나!  
내 일터 내 일 두고  
나만 아닌 그 동무도  
걱정 해주며 일하고있었구나!

-고마와요!  
내 한마디 웃어보이며 말했을뿐...  
했어도 저만큼 다시 울리는  
불도젤소리 불도젤소리  
이 밤따라 내 마음 왜 이러히도 휘저어놓는지...

내 왜 모를가  
저 소리 땅크병동무의 마음의 소리-  
-다그칩시다! 미장공동무!-  
몰탈이 얼기전에 다그칩시다!  
그러면 내 마음도 조급해져서  
-알겠어요, 땅크병동무!-  
땅이 더 얼기전에 굴착작업을 빨리 하자요!

그도 알리라 내 마음의 소리  
아마도 그래서일가?  
이 밤따라 더 크게 울리는 저 소리-  
부럽구나 산더미같은 흙밭을 밀고가는  
그 일숨씨 내 마음 다잡누나!

언젠가도 그 동무 나에게  
다짐비슷이 익살피웠지  
이제 첫 순천제품 쏟아지려는  
비날론천으로 멋진 옷 해입고  
같이 웃으며 사진찍자고-

그때는 웃음으로 스쳐버렸지만  
익살군의 말이란 거저 그때뿐이지만  
이 밤의 저 불도젤소리만은  
분명히 나에게 진정을 말하고있어!

준공식 그날  
아버이수령님 모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도 함께 모실  
아, 그 영광 그 기쁨을 생각하면  
이제 또 백밤을 새운대도 우린야 좋아!

그래서 미더워만지는 사람들과 함께  
나도 이 밤을 충성으로 이어간다오  
별들이 웃는 밤에...  
별들이 나를 보고 속삭이는  
참말이지 이 좋은 밤에-

## 새책소개

# 김수범단편집 《무성하는 산림》

(4×6 판 250 페이지)

이 단편소설집에는 작가 김수범이 쓴 단편소설 《태양을 우러러》를 비롯하여 모두 11 편의 단편소설들이 실려있다.

단편소설집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숭고한 품모와 의리를 형상한 수령형상 단편소설들인 《태양을 우러러》, 《고귀한 의리》, 《무성하는 산림》들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매한 인품을

형상한 단편소설 《조국의 품》,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높은 사상정신적품모를 보여주는 단편소설 《상봉》이 실려있다.

이밖에도 단편소설집에는 립산부문근로자들의 생활을 취급한 5 편의 단편소설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한 1 편의 단편소설들이 들어있다.